

예술의 초대

Since 1992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Vol. **409**
JANUARY 2026 ①

© ROHSH

© Korean National Ballet

© 소수민족컴퍼니



FROM THE RIVER

FOR THE WORLD

NAKDONG ART CENTER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OPENING FESTIVAL

2026. 1. 10. — 3. 5.



bsgangseo.go.kr/nac

051-970-2771



2026 부산 메세나 신년 음악회

2026 BUSAN MECENAT NEW YEAR'S CONCERT

연주 프로그램

BEETHOVEN - EGMONT OVERTURE, OP.84

MAHLER - SYMPHONY NO.1 "TITAN"

베토벤 -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 말러 - 심포니 1번 "거인"

지휘 임헌정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연주 울산시립교향악단



일시 2026년 1월 8일 (목) 오후 7시 30분 | 장소 부산콘서트홀

후원 : 동성케미칼·고성관광개발·대선주조·대한제강·동성모터스·동진로직스·센텀종합병원·부산은행·아이원·지맥스·지비라이트·태광·태웅·희승·TKG태광·고려화공·리노공업·모든·서면·성원·아쿠아셀·에스에이비코퍼레이션·엔케이·윈스틸·삼손푸드·호웰아쿠아펠리스·DRB동일·그랜드모먼트·동성화인텍·선보공업·아트쇼부산·강일CSP·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골드블루·디앤케이개발·제이투케이글로벌·STX·죽은공간·봉생기념병원·스페이스원지

문의 : 부산메세나협회 051-715-4611



627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1월 29일(목) 19:30 부산콘서트홀

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브루크너 / 교향곡 제5번

A. Bruckner / Symphony No.5



Seokwon Hong

629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3월 26일(목) 19:30 부산콘서트홀

4월 1일(수) 19:30 낙동아트센터

Junior

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바이올린 요한 달레네 Johan Dalene, Violin

시벨리우스 / 바이올린 협주곡

J. Sibelius / Violin Concerto

브람스 / 피아노 사중주 제1번 (쇤베르크 편곡)

J. Brahms / Piano Quartet No.1 (arr. Schönberg)

628



Changyong Shin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2월 26일(목) 19: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피아노 신창용 Changyong Shin, Piano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E. Grieg / Piano Concerto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꿈>

P. I. Tchaikovsky / Symphony No.1 <Winterträume>



Johan Dalenc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6월 18일(목) 19:30 부산콘서트홀

631

지휘 홍석원 Seokwon Hong, Conductor
소프라노 김은희 · 박소영 · 박하나 Eun-Hee Kim · So-Young Park · Hana Park, Soprano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 정주연 Songmi Yang · Juyeon Jung, Mezzo-Soprano
테너 이범주 BumJoo Lee, Tenor
바리톤 이장원 Leonardo Lee, Baritone
베이스 송일도 Ildo Song, Bass

부산시립합창단 Busan Metropolitan Chorus
클래식부산 합창단 Classic Busan Choir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외

말러 / 교향곡 제8번 <천인 교향곡>
G. Mahler / Symphony No.8 <Symphony of a Thousand>

630

제630회 정기연주회
<EROICA>
4월 24일(금) 19:30 부산콘서트홀



지휘 백승현 Seung Hyun Baek, Conductor
피아노 김다솔 Dasol Kim, Piano

모차르트 /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W. A. Mozart / Piano Concerto No.20
베토벤 / 교향곡 제3번 <영웅>
L. v. Beethoven / Symphony No.3 <Eroica>



Seung Hyun Baek



Dasol Kim

티켓 R30,000원 S20,000원 A10,000원(*제631회 정기연주회 별도공지)

※ 공연의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1. 16.(금) 19:30, 17.(토) 1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송철호 신시광 유연 안청현 임지영 송예준

[미래의 현대인에 대한 추상]

연극 시뮬라시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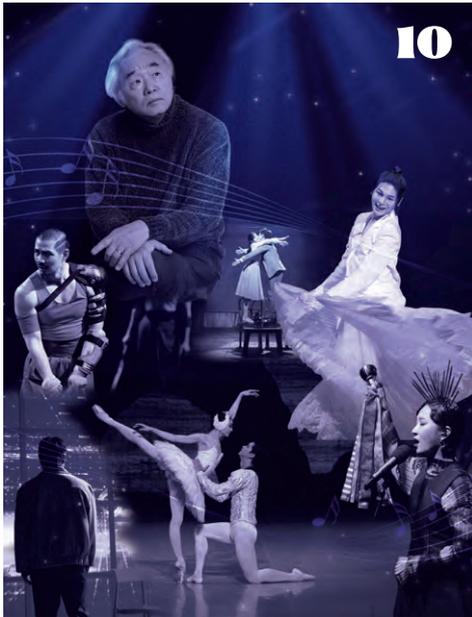
작 최양현 연출 이태린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 입장료 | 전석 5만원 | 입장연령 | 7세 이상 | 문의 | 051-607-6000

주최/주관 |  부산문화회관 | 제작 |  예술창작공장 콤맨드 | 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연예술 창작주체 ARKO Partners

본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공연 | 25-26 쿼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선정작





JANUARY 2026

VOL. **409**

발행인 차재근

편집인 남영희

편집책임 남양욱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담당 정복엽, 박수빈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5년 12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8 **신년사**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관통시키는 글로컬아트센터
- 10 **신년특집**
2026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리다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년 신년계획
- 32 **Column**
간판으로 읽는 도시의 얼굴
-부산, 오사카, 후쿠오카를 오가며
- 34 **저작권과 문화예술**
실연자의 의미
- 36 **Cultural Issue**
새해의 기운을, '산'나게 잡아보는 신년 음악회
- 38 **현대미술산책**
송고의 경험, 뉴먼과 로스코의 색면회화
- 44 **Cover Story**
연극 <시물라시옹>
- 48 **Preview**
- 53 **Review**
- 58 **문화가 화제**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 개관
- 62 **전시화제**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by Martin Bull'
- 64 **Program Guide**
- 74 **객석에서**
- 75 **New Book**
- 76 **BSCC News**
- 78 **2026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관통시키는
글로벌아트센터



2026 병오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붉은 말의 기운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한 해를 힘차게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공연과 전시, 교육 아카데미는 물론, 시민의 곁으로 쉽 없이 찾아가 한 해 동안 총 339,400분의 관객과 함께 했습니다. 부산시민의 10%가 (재)부산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만났습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세계적 권위의 음악축제인 '베를린뮤지페스트' 폐막공연, 뮌헨 '무지카비바' 개막공연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단독 초청되어 현지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음으로써 부산 예술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로 부산문화회관은 재단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공연장을 중심에 둔 기능중심의 정체성을 벗어나 앞으로의 10년은, 지속가능한 인류공동체를 위한 삶의 전환으로서의 문화, 부산예술의 문화적 다양성의 토대 위에 동시대 인류가 추구하는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관통시키는 글로벌아트센터로 지향하여 가치 중심의 기관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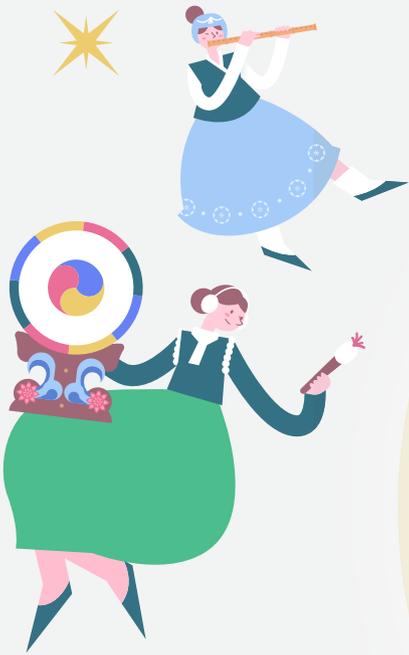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전환과 변화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결과물은 곧 부산의 미래문화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차재근

2026 병경년

‘뜻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달려라



2026년 또다른 비상을 준비하는 (재)부산문화회관

- 문화 허브의 새로운 시작, 부산문화회관 정면화 사업 추진
- 극장 개선사업을 통한 미래형 공연장 환경 구축
-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기획공연

2026년 올해로 출범 10년째에 접어드는 (재)부산문화회관은 급격한 공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또다른 비상을 준비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우선 올해는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정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부산박물관, 유엔기념공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부산문화회관 정문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편, 외관상으로도 주택가와 공원 사이에 파묻혀 있어 정체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 사업이 추진되면 정문에서 곧바로 차량 진입이 되도록 길을 닦아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부산문화회관과 유엔기념공원 사이의 터널이 사라지고 주변 시설과 연결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심 문화 허브 공간이 탄생된다.

부산 공연예술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무대 개선사업도 올 한 해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1988년 개관 이후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시민의 문화생활을 이끌며 ‘부산문화의 본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시설의 노후화는 더 이상 단순 유지보수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공연장 운영

의 핵심인 무대기계와 조명, 각종 제어 시스템은 설계 수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재)부산문화회관은 기술적·안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 시민들이 더 풍부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재)부산문화회관은 그동안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두 공연장의 특성을 살린 통합 시즌제 ‘BSCC시즌’을 운영해왔다. 이번 2026 BSCC시즌은 ‘예술로 빛나는 삶의 전환’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간과 기술, 고전과 현대, 지역성과 세계성이 교차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클래식부터 연극, 뮤지컬, 무용, 어린이 공연까지, 한두 편을 골라 보기보다, 취향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성찬을 준비했다. 아래 김PD가 소개하는 2026 시즌 이야기에 귀기울여보자.

또, 아카데미와 기획전시 사업의 경우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 분야로 주목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올해는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 미래의 10년을 위한 사업방향의 점검과 개편을 동시에 구상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혁고창신(革故創新)으로 2026년을 준비하고 있다.

김PD가 소개하는 2026년 시즌 이야기

2026 (재)부산문화회관 상반기 기획공연



글 김민지 (재)부산문화회관 공연예술팀 차장

공연기획자로 일하다 보면 유난히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요즘 부산에서 뭐 보면 좋아요?” 이 질문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따라온다. 하나는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고민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시즌엔 정말 추천할 게 많다”는 확신이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그 확신은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다. 사이먼 스톤 연출, 전도연박해수 주연의 연극 <벚꽃동산>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안무가 알렉산더 에크만의 <해머>와 예테보리오페라댄스컴퍼니의 첫 부산 공연, UN창설 80주년의 의미를 담아 조수미·윤한결·드미트로 초니와 함께한 <UN창설80주년 기념음악회>,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아 온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까지. 부산에서 보기 쉽지 않은 공연들이 (재)부산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2026년은 어떨까. “또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데?” 이제부터 그 질문에 김PD의 방식으로 답해보려 한다.

많은 이들이 기다렸을 무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K-창작뮤지컬의 상징적인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이 2026년 첫 전국 투어의 출발지로 부산을 선택했다. 토니 어워즈 6관왕이라는 기록만으로도 이 작품의 위상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수상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인간과 관계, 기억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섬세하고 진솔하다. 10주년을 지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 무대는, 부산 관객에게도 오래 기억될 만한 순간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토니아워즈란? 미국 연극·뮤지컬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연극은 1947년, 뮤지컬은 1949년에 첫 시상을 하였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2025년 제78회 토니아워즈에서 작품상, 연출상, 음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했다.

- 2026. 2. 1.(일)-8.(일) 화-목요일 7:30pm, 금요일 3:30pm, 7:30pm, 토-일요일 2:00pm, 6: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어쩌면 해피엔딩

화이트데이에 더 달콤한 선택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화이트데이를 맞아, 음악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무대가 있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은 영화 음악을 중심으로 구성된 라이브 콘서트다.

피아니스트 조윤성, 첼리스트 홍진호, 보컬 박현수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관객의 기억과 상상을 자연스럽게 자극한다.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지 않아도, 음악을 듣는 순간 각자의 영화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익숙한 멜로디는 저마다 다른 장면과 감정을 불러내며, 공연장은 하나의 상상으로 채워진다.

연인과 함께라면 공연이 끝난 뒤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음악 이야기가 길어진다. 혼자 보러 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오히려 소리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장면을 그려보게 된다. 이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음악이 관객의 상상을 자연스럽게 이끈다는 점이다.

김PD의 사심을 살짝 보태자면, 화이트데이에 이만한 선택은 흔치 않다. 과하지 않게 달콤하고, 부담 없이 마음의 온도를 올려준다. 혹시 씬을 타고 있다면, 공연이 끝난 뒤의 대화가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 2026. 3.14.(토)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극과 뮤지컬, 지금의 감성으로 답하다

부산에 젊은 관객이 없다고? 부산에 젊은 관객이 없다는 말은, 적어도 이 시즌에는 잘 맞지 않는다.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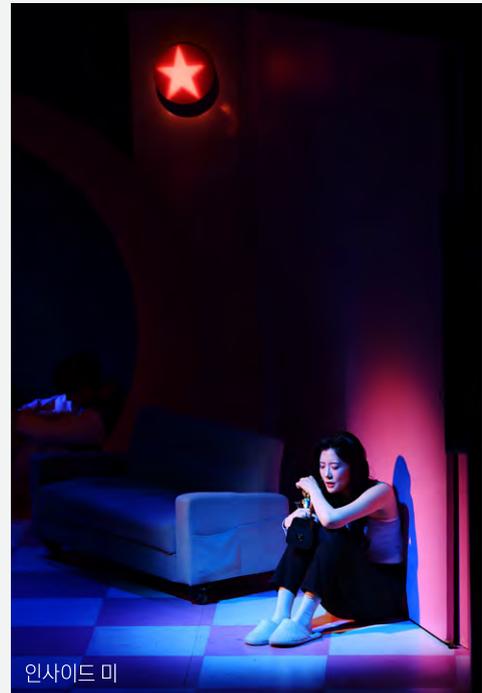
두 명의 광대가 펼치는 이 무대는 셰익스피어를 유쾌한 상상력으로 다시 불러낸다. 웃다 보면 어느새 이야기의 본질에 닿아 있고, 청소년과 20~30대 관객에게도 좋은 입문작이 된다. 두 명의 배우가 로미오와 줄리엣 전편을 소화한다는 설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자극한다.

- 2026. 4.23.(목) ~ 25.(토) 목요일 2:00pm, 금요일 2:00pm, 7:30pm, 토요일 2: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고전을 유쾌하게 비틀었다면, 이번에는 지금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무대 위로 옮겨온 작품이다. 뮤지컬 <인사이드 미>는 요즘 우리가 감정을 주고 받는 방식을 아주 솔직하게 건드리는 작품이다. SNS를 통해 관계를 맺



인사이드 미

고, 마음을 표현하는 세대라면 공연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대학로 무대와 해외 공연을 거치며 관객의 반응으로 이미 검증되었고, 이야기의 결은 가볍게 흘러가지만 감정은 쉽게 지나가지 않는다. 연인과 함께 보면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보면 공연이 끝난 뒤 이야기가 길어진다. 지금의 감성을 부산에서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요즘다운 뮤지컬이다.

- 2026. 3.28.(토) 2:00pm, 5: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재미있게, 그러나 깊게

고선웅 연출과 극공작소 마방진 20주년

<귀토>, <변강쇠 점 찍고 웅녀>,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을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고선웅이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극공작소 마방진의 20주년을 맞아 <칼로막베스>, <홍도>, 창극 <살로메>까지 그의 대표작들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홍도>는 부모 세대와 함께 관람하기 좋은 작품이다. 웃음과 공감, 그리고 여운까지 고르게



칼로막베스



살로메



홍도

남아,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대화를 만들어낸다. 참고로, 창극 <살로메>에는 '창극계 아이돌' 김준수가 출연한다. 이 한 줄만으로도 기대할 이유는 충분하다.

- 연극 <칼로막베스>
2026. 4. 4.(토) ~ 5.(일) 3: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화류비련극 <홍도> 2026. 6.12.(금) ~ 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창극 <살로메> 2026. 8.29.(토) 3: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첫 기억 어린이·가족 공연

2026년 시즌에는 어린이 관객을 위한 공연도 빠지지 않았다. <구름빵>,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토장군을 찾아라!>, 그리고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하이든>까지. 아이들이 이름만 들어도 반응하고, 부모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공연이 끝난 뒤 “재밌었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무대들이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장면을 다시 이야기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공연장을 처음 찾는 아이에게는 극장이라는 공간을 즐겁게 기억하게 해주고, 가족에게는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

아이의 첫 공연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이 무대들은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이와 보호자 모두가 편안하게 극장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한 무대들이다.

- 가족뮤지컬 <구름빵> 2026. 1.23.(금) ~ 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토요일의 키즈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하이든>
2026. 2.28.(토) 11:00am 2: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 5. 2.(토) 5:0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2026. 5. 2.(토) ~ 7.25.(토)
평일 10:30am, 토·공휴일 11:00am, 2:00pm(일·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클래식한 이름, 가장 현재의 감동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스테디 셀러다. 클래식이라는 말이 주는 부담보다는, “이 작품이라면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겠다”는 신뢰가 먼저 앞선다. 발레를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고전을 좋아하는 관객에게도 자연스럽게 열려 있는 무대다.

이 공연의 매력은 어렵지 않다는 데 있다. 줄거리를 꼼꼼히 알지 않아도 되고, 발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괜찮다. 음악과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공연은 자연스럽게 관객의 감각에 닿는다.



구름빵

그래서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언제 권해도 망설임이 적은 선택이다. 클래식 공연이 처음인 사람에게는 좋은 출발점이 되고, 이미 익숙한 관객에게는 다시 보고 싶어지는 이유를 확인하게 만든다.

- 2026. 3.19.(목) ~ 20.(금)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시간이 돌아, 다시 부산으로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

2026년은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데뷔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그 기념의 해에, 그는 다시 부산에서 관객을 만난다.

1956년, 그의 나이 열 살. 당시 부산 남성여고 강당에서 '주니어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첫 리사이틀이 열렸다. 부산에서 시작된 음악 인생이 70년의 시간을 지나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다. 이 무대는 단순한 기념 공연이라기보다, 한 예술가의 시간과 한 도시의 기억이 겹쳐지는 순간에 가깝다.

이 공연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부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음악가의 시작을 함께했던 도시였다. 사실. 이번 무대는 그 기억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꺼내 보여준다.

- 2026. 4. 3.(금)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의 저력은 현재진행형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부산의 클래식 저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 이를 지금의 언어로 이어가고자 기획한 시리즈가 바로 'Sound of Busan'이다.

지난해에는 민간 오케스트라들과 함께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를 선보였다. 한 작곡가의 세계를 연속적으로 조명하며, 부산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의 현재를 무대 위에 올리는 시도였다. 그리고 그 흐름은 2026년에도 이어진다.

올해는 차이콥스키다. 그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4번, 5번, 6번을 중심으로, 각 무대마다 협주곡을 함께 구성했다. 같은 작곡가의 작품이지만, 오케스트라에 따라 전혀 다른 색과 해석을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중요한 관람 포인트다.

공공 공연장과 민간 오케스트라의 협력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부산의 지역 오케스트라의 존재

감을 드러내고,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공연예술 단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Sound of Busan'은 단발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축적과 연속 속에서 예술적 역량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관객과 함께 지켜보는 자리다.

-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2026. 2.27.(금)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2 부산네오편하모닉오케스트라 2026. 6.19.(금)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3 유나이티드코리안오케스트라 2026. 8.21.(금) 7:30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장르의 경계를 넘다

지금의 언어로 만나는 전통과 미래

2026년 시즌에는 '전통'과 '미래'라는, 얼핏 보면 서로 멀어 보이는 키워드를 나란히 세운 공연들도 준비되어 있다. 다만 이 두 방향은 결코 반대편에 있지 않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지금의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감각과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국악, 이렇게 가까워도 된다 살롱 드 국악

'살롱 드 국악'은 국악을 처음 만나는 관객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은 시리즈다. 전통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 대신, 지금의 음악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첼로가야금, 추다헤차지스, 장르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국악의 형식과 어법을 지금의 감각으로 풀어낸다.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다. 설명을 듣기보다 음악을 그대로 느끼면 된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국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음악이었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남는다.

국악 입문자에게는 부담 없는 첫 만남이 되고, 이미 국악을 즐겨온 관객에게는 새로운 결을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 '살롱 드 국악'은 장르를 구분하기보다,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넓혀준다.

- 살롱 드 국악 I 첼로가야금 2026. 4.10.(금) 7:3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 살롱 드 국악 II 추다헤차지스 2026. 4.17.(금) 7:3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AI 시대의 사랑을 묻다 연극 <시물라시옹>

AI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연극 <시물라시옹>은 이 질문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지금 우리의 삶 가까이 끌어온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 작품은 기술 자체보다 그로 인해 흔들리는 인간의 마음과 선택에 집중한다. 그래서 이 연극은 SF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미 우리 곁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감정의 풍경을 다룬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되 어렵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관객은 인물의 선택을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미래의 이야기'라기보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 2026. 1.16.(금) ~ 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이처럼 2026년에도 (재)부산문화회관은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기획공연으로 부산 시민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클래식부터 연극, 뮤지컬, 무용, 어린이 공연까지. 한두 편을 골라 보기보다, 취향에 따라 골라 담을 수 있는 '공연의 계절'에 가깝다.

공연을 기획하면서 늘 고민하는 질문이 있다. "이 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에게도 설득력이 있을까?" 그리고 동시에, "이미 공연을 사랑하는 관객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될까?"

2026년 시즌을 준비하며 이 두 질문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이름만으로도 믿고 볼 수 있는 '검증

된 무대'로, 또 어떤 작품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새로운 제안'으로 구성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에는 관객이 손을 뻗을 수 있는 설명과 맥락을 더했고, 대중적인 작품에는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깊이를 더하고자 했다.

특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건, 부산이라는 도시의 시간과 연결된 공연들이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처럼 부산에서 시작된 한 예술가의 여정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무대도 있고, <Sound of Busan> 시리즈처럼 지금 이 도시에서 활동하는 음악가들의 현재를 함께 호흡하는 무대도 있다. 공연장은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기억과 현재가 겹쳐지는 장소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 하나, 2026년 시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는 '함께 보는 경험'이다. 부모님과 함께 보기 좋은 공연, 아이와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연, 친구와 가볍게 웃으며 볼 수 있는 공연, 그리고 혼자 조용히 몰입해도 좋은 공연까지. 각자의 삶의 리듬에 맞게 공연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다. 공연이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공연을 소개하는 글을 쓰면서도 사실 고민이 많았다. 이 작품들이 가진 의미를 너무 무겁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가볍게 흘려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번 원고는 '설명'보다는 '권유'에 가깝게 쓰고 싶었다. "이건 이런 이유로 꼭 봐야 합니다" 보다는, "이런 분이라면, 이 공연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결국 공연을 선택하는 건 관객의 몫이다. 다만 김PD로서, 그 선택의 순간에 작은 힌트 하나쯤은 건네고 싶었다. 패션 매거진에서 에디터가 "이번 시즌엔 이런 코트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라고 말하듯, "올해는 이런 공연 한 편쯤은 어떠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추천하는 마음이다.

2026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시즌은 이미 열렸고, 관객을 만날 준비도 끝났다. 어떤 공연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고, 어떤 공연은 일상 속에서 문득 떠오를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경험이 부산에서의 문화생활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공연장에서, 객석 어딘가에서 만나게 된다면 반갑게 인사 나누자. 김PD는 오늘도 다음 공연을 고민하고 있을 테니까.



스페셜 아카데미 프로그램 <번역가의 서재>



루프랩 부산 연계전 <타임큐비즘>

온고지신 溫故知新과 혁고창신 革故創新의 2026년

2026년도 아카데미와 기획전시 사업

글 박민희 (재)부산문화회관 교육전시팀 팀장

2026년은 (재)부산문화회관이 출범한 지 10년째에 접어드는 해이다. 그간 아카데미와 기획전시 사업의 경우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사업 분야로 주목받으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 교육전시팀에서는 미래의 10년을 위한 사업방향의 점검과 개편을 동시에 구상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과 혁고창신(革故創新)의 2025년을 보냈다.

아카데미의 경우 그간 구축된 역량을 바탕으로 테마가 있는 인문, 교양 강좌 중심으로 기획되며, 이는 부산문화회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으로 2025년 상반기의 <예술을 짓다>와 하반기의 <번역가의 서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획전시의 경우 폭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전시공간을 실험적으로 다루는 전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의 시각예술분야 대표적인 유관 기관인 부산시립미술관과 협력하여 <루프랩부산> 연계 전시를 준비 중이며 이는 국제적인 스타급 미디어 아티스트 작품을 부산문화회관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AI인공지능의 시대에 최첨단의 미디어 작품을 구현해 냄으로써 오늘날 부산문화회관의 전시실의 기능과 위상을 제고하며 동시에 폭넓은 층위의 전시 콘텐츠를 다룰 계획이다. 또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2019년 이후부터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의 주요 특징으로 기능하는데, 현재 반짝반짝한 강좌를 기획중에 있다.

전면적 시설교체를 통한 안전성과 신뢰 회복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선사업 추진

글 윤광윤 (재)부산문화회관 무대예술팀 차장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1988년 개관 이후 부산 공연예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35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시민의 문화생활을 이끌어 오며 지역문화의 상징이 되어 왔지만, 시설의 노후화는 더 이상 단순 유지보수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공연장 운영의 핵심인 무대기계와 조명, 각종 제어 시스템은 설계 수명을 넘어선 지 오래이며, 안전성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19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종합컨설팅 결과와 2022년 정밀 안전진단 역시 무대 시설의 '전면 교체'와 '건축 구조 일부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개선 권고가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공연 진행 중 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이다. 공연장의 안전은 관객, 공연자, 무대 종사자 모두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안전성 확보와 미래형 공연장 환경 구축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개선사업은 총 81억 원 규모로 추



진되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1억 원(설계 2. 6억, 공사 8. 4억)이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사업의 핵심은 무대 운영의 '근본적 안전성 확보'와 '미래형 공연장 환경 구축'에 있다.

특히 무대기계 분야는 상·하부 무대장치 전체를 전면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상부 및 하부 무대기계 시스템 전면 교체, 그리드 아이언 교체, 전기 및 제어 시스템 전체 교체, 방화막(커튼) 교체 및 소방·공조 배관 정리, 음향반사판 및 무대막 전면 교체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가 아니라 무대의 핵심 구조와 동력, 제어 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수준의 재구축 공사다. 이중 무대기계 제어 시스템은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요소로, 최신 규격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공연 중장비 오작동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조명 분야 역시 노후화가 심각한 영역이다. 각 조명봉의 배관·배선을 포함한 플라이 덱트 전체 교체는 조명 장비의 전원 안정성 확보와 전기적 위험요소 제거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는 작업으로, 대극장의 조명 품질과 운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중요한 개선이다.

이 외에도 건축 및 안전 시스템까지 포함한 종합 개선사업으로, 현재 대극장은 무대공간 상부의 그리드 구조물과 각종 건축적 부속 시설 또한 오랜 기간 사용되어 내화 성능과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사업에서는 건축 일부 시설의 개선도 포함한다. 화재 시 구조물 보호 성능 강화를 위해 그리드 내화도료 보수를 실시하고 무대안전통제 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대 전 구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작업 중 재해를 예방하는 최신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이러한 보완은 단순한 건축 자재 교체를 넘어, 안전 중심의 공연장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



이번 대극장 개선사업은 2026년 1월에 착공하여 일년간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월 시운전을 통해 기술 안정성을 최종 검증한 후 재개관할 예정이다. 약 1년간(2026. 2.~2027. 1.)의 휴관 기간은 불가피한 조치지만, 이는 공연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 시간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진행되는 시운전과 검증 과정은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최적의 무대 운영 상태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다.

부산 공연예술 생태계의 미래를 위한 선택

이번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 교체가 아니라, 부산 공연예술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안전한 무대 환경은 모든 공연의 출발점이며, 노후 시설을 지속 운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위험을 초래한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시설 개선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객에게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 환경을 제공하여 부산 공연예술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다.

(재)부산문화회관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기술적·안전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이 더 풍부한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새롭게 재도약할 것이다. 부산의 대표 공연장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태어나는 이 중요한 변화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한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부산시립예술단 2026년 신년계획

부산시립예술단은 오랜 세월, 시민들과 함께 하며 부산의 문화사절단으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준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이 1년여간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부산시립예술단의 주 공연장이었던 부산문화회관을 벗어나 부산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구 문화회관 등 지역의 여러 공연장에서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병오년 올 한해도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여러분 곁으로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지난해 독일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연주 역량과 해석의 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 한해, 정통 교향악 중심의 레퍼토리와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관객들에게 다채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홍석원 전 예술감독은 올해는 수석객원지휘자로 활약하며 예술감독 공석인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지난해 11월, 2026년 상반기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새로운 시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15일 '2026 신년음악회'를 통해 관객과 새해 인사를 나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로시니 특유의 에너지가 담긴 경쾌한 '도둑까치' 서곡을 시작으로 신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광란' 폴카, 그리고 빈 왈츠에 대한 예찬이자 라벨이 평소 존경했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에 대한 헌정의 의미를 가지는 '라 발스'를 들려준다. 협연자로 무대에 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는 2025년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3위와 청중상,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을 수상한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화려한 기교가 돋보이는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를 연주한다.

2026년 첫 정기연주회인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는 1월 29일 부산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환상 교향곡'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브루크너의 건축적 구조미와 장엄한 대위법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지난해 독일 순회공연을 통해 공고해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사운드와 앙상블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2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에서는 K-클래식의 흐름을 주도하는 스타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신창용은 2022년, 북미 최고 권위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레이먼드 E. 버크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으며, 그 해 신설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무대에서는 북유럽을 대표하는 작곡가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에 이어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1번 '겨울날의 꿈'을 통해 겨울 끝 무렵, 꿈과도 같은 무대를 선사한다. 지휘는 홍석원 수석객원지휘자.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는 3월 26일 부산콘서트홀에 이어 4월 1일 낙동아트센터에서 두차례 펼쳐진다. 수석객원지휘자 홍석원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 무대에서 '거장의 감각을 지닌 젊은 루키'로 불리며 클래식 음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요한 달레네가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부산시민과 첫 만남을 갖는다. 요한 달레네는 불과 18세의 나이에 카를 닐센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2024-2025 시즌 상

주 음악가로 활동한 바 있다. 이어서는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을 쇤베르크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편곡한 곡으로, 실내악의 밀도와 대편성의 색채가 어우러지며 원곡의 긴장감을 더욱 웅장한 사운드로 확장한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을 들려준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제630회 정기연주회 'EROICA'는 4월 24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서는 부산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김다솔이 모차르트 협주곡 중에서도 드물게 단조로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제20번'을 협연한다. 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과도기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베토벤의 교향곡 제3번 '영웅'도 이번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상반기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제631회 정기연주회는 최근 그의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말러의 교향곡 제8번으로 꾸며진다. 초연 무대에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원되어 '천인 교향곡'이란 별명이 붙은 '교향곡 제8번'은 클래식 작품 통틀어 거대한 편성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곡으로,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성악 솔리스트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음악적 역량을 선보이는 상반기 시즌의 하이라이트 무대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년 올해도 '실내악 시리즈'를 통해 보다 다양해지고 특별해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실내악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실내악 시리즈'에서는 정기연주회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다채로운 실내악 음악의 세계를 소개하는 한편, 오케스트라의 일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 단원들의 기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3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과 4월 15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두차례 펼쳐진다. 이밖에도 음악회 입장이 어려웠던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우리 아이 음악회'는 가정의 달인 5월 6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우리 아이 음악회'는 어린이들의 '생애 첫 클래식 공연'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온라인 콘텐츠에 관심이 쏠린 아이들에게 클래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가족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은 2026년 올 한해 4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모두 8차례 무대를 통해 합창음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로 관객과 만난다.

2026년을 여는 그 첫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은 낙동아트센터 개관공연 무대에 선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

시립합창단 외에도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와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말리 교향곡 제8번으로 낙동아트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한다.

3월 17일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는 부산시립합창단과 광주시립합창단과의 영호남 교류 음악회 'Harmony'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역 간 음악 교류 활성화를 위한 무대로, 부산 공연에 앞서 3월 12일 국립아시아 문화의전당에서 광주 시민들과 만난다. 상임지휘자 임창은이 이끄는 광주시립합창단은 1976년 시민합창단으로 발족 후 올해로 창단 49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깊이 있는 음색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1일과 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가족 관객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를 무대에 올린다. 2022년 '옛날 옛적에'를 시작으로 '피노키오와 파란마녀'에 이은 부산시립합창단의 세 번째 어린이 뮤지컬로. 단원들의 합창과 연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로 가족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꿈을 향해!'는 물 속에 사는 우울한 문어, 잊어버리길 잘하는 다람쥐, 똥똥보 참새, 느린 달팽이 등 자신에게 하나씩의 불만을 지닌 동물 친구들이 서로에게 '넌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하며 서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5월 28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26년 첫 정기연주회는 영국 현대음악의 거장 벤저민 브리튼 타계 50주년을 추모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1972년 창단한 부산시립합창단의 2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는 무대로, '적과 아군이 함께 부르는 화해의 합창곡'으로 유명한 브리튼의 걸작 'War Requiem'을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War Requiem'은 1940년 독일의 폭격으로 파괴된 성 미카엘 대성당이 1958년 재건됐을 때 그 헌당식에 쓸 음악으로 작곡된 진혼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 외에도 광주시립합창단과 대구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과 소프라노 박미자, 테너 김효중, 베이스 이광근, 오르가니스트 김지연 등 대규모 출연진이 등장,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노래한다.

7월 23일에는 지난 2005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공연 '2026 Summer Fantasy'가 제201회 정기연주회로 펼쳐진다. 'Summer Fantasy'는 매년 여름, 클래식 위주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관객과 합창으로 소통하기 위해 기획된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무대로, 올해는 '리듬'을 주제로 흥겹고 신나는 곡들로 무대를 꾸민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엄보영 부지휘자의 취임연주회를 겸한 무대로, 부산시립합창단과 퍼커셔니스트 이성하가 만드는 환상적인 팝과 재즈, 삼바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국내에서는 쉽게 연주되지 않는 현대합창곡을 소개하는 부산시립합창단만의 특별한 무대 '현대합창의 밤' 여섯 번째 무대는 9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제202회 정기연주회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이기선 지휘자가 부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후의 목적으로 선보여온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시리즈로, 현재 활동중인 현대 작곡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우면서도 실험적인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다. 올해도 다양하고 신선한 합창 프로그램으로 구성, 부산시립합창단만의 깊고 넓은 울림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2026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제203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는 12월 4일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지난해 나타니엘 데트의 'The Ordering of Moses'에 이어 선보이는 현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20세기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작곡가 마이클 티팻의 'A Child of Our Tim'를 부산 초연으로 들려준다. 1938년 나치의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의 개막을 알린 독일 외교관 암살 사건을 오라토리오로 작곡한 'A Child of Our Tim'는 합창과 오케스트라, 독창이 밀도있게 결합된 작품으로, 시대적 압제와 폭력에 대한 평화주의적 응답이자 보편적인 인류애를 호소하는 걸작이다.

이밖에도 부산지역 아마추어 합창단들과 함께하는 합창 축제 '제37회 부산합창제'는 11월 3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무용단

1973년 대한민국 최초의 시립무용단으로 창단된 부산시립무용단은 이정운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48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춤'과 '문화 예술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예술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올 한해 부산시립무용단은 '부산, 춤으로 피어오르다'를 새로운 해의 방향으로 삼고 '너도나도 춤추는 부산'으로서의 춤예술의 정점에 이르고자 한다. 부산시립무용단은 다시 피어날 꿈과 도전, 그리고 부산의 이야기로 가득해질 2026년을 기대하며 올해 두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4월 24일과 2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93회 정기공연에서는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에 선보였던 제85회 정기공연 '부산, 40계단'을 새롭게 창작한 무대로, 당시 이정운 예술감독만의 춤의 어법이 잘 녹아있는 무대로 호평받았다. 이번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당시 '부산, 40계단'의 부제로, 한



국전쟁 피란민의 애환과 역사가 담겨있는 ‘40계단’과 늘 우리 곁에 있는 ‘바다’ 같이 부산의 이야기들이 배인 장소들이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 바다 곁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세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낸다. 특히 이정운 예술감독이 춤으로 풀어내는 ‘부산’은 하반기 정기공연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10월 30일과 31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94회 정기공연은 신작 무대 ‘동백’으로, 부산의 시화(市花)인 ‘동백’에서 가져온 제목처럼, 춤과 부산, 그리고 로컬리티의 예술을 선보인다.

춤이 관객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춤과 이야기가 함께하는 ‘이정운의 댄스살롱’은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펼쳐진다. 이정운 예술감독이 연출을 맡은 ‘이정운의 댄스살롱’은 지난 2021년 첫 선을 보인 후 그동안 한국무용계의 각 세대를 대표하는 무용수들의 협무와 협업으로 무대가 꾸며지며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는 ‘부산의 DNA와 춤 - 한 여름밤의 댄스 파티’라는 주제로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안무가를 향해 한 걸음(STEP) 옮겨 걷고자 하는 단원들의 ‘홀로홀춤’은 12월 11일과 1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나의 길 나의 춤, 부산춤 돌아보기’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2026년에도 부산시립무용단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공연

과 기획으로 영남을 아우르며 우리 춤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레퍼토리의 개발에 힘써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월 12일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2026 신년음악회’를 통해 병오년 새해 첫 인사를 나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웅장함을 바탕으로 남도·서도·중부권의 다양한 음악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아우르며, 새해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이번 신년음악회는 주 공연장인 부산문화회관에서 벗어나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무대로, 시립예술단으로서 지역사회와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무대이다. 새해의 풍요와 평안을 비는 유지숙 명창의 서도소리 ‘비나리’ 외에도 정초의 흥과 기백을 담아 힘찬 시작을 알리는 남도민요,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신년음악회만의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2026년 교류연주회의 주인공은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으로, 3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영남風流’라는 타이틀로 교류공연을 갖는다. 영남 지역은 판소리·민요·정

가·풍물 등 다양한 전통 예술이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권으로, 지역마다 향토적 특색과 역사적 배경을 담은 음악적 유산이 풍부하다. 이번 무대는 그러한 영남의 예술적 DNA를 바탕으로, 두 단체가 각자의 색채를 살려 지역성과 동시대성이 공존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교류 음악회는 부산 무대에 이어 하반기 진주에서도 펼쳐진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창작 위촉곡 시리즈’는 올해도 상, 하반기 두 번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진행된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프로젝트로, 한국적 정체성을 지닌 관현악 레퍼토리의 확장과 동시대 음악가와의 협업을 통해 국악관현악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넓혀 왔다. 그 다섯 번째 무대이자 제234회 정기연주회 ‘사계 동행’은 5월 1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전통 음악의 미래를 열어가길 창작 국악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적 계보(系譜)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고자 기획된 무대로, 각 세대가 품은 미학과 관점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음악적 문장을 만들어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준다. 창작 위촉곡 시리즈 여섯 번째 무대 ‘부산 국악작곡콩쿠르’(제237회 정기)는 10월 2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 젊은 작곡가들의 새로운 창작 국악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무대로,

국악 작곡의 저변을 확대하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새로운 레퍼토리를 구축함으로써 부산 국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5일에는 제235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로 꾸며진다. 이날은 지난해 우리 전통음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국악의 날’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이를 기념하여 국악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9월 17일 제236회 정기연주회는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악의 미래를 열어가는 ‘부산, 청년’으로 마련된다. 협연, 작곡, 지휘 등 세 영역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가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이번 무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을 마무리하는 송년무대로 꾸며지는 제238회 정기연주회는 12월 18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No Boundary’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제목처럼 장르·세대·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악이 지닌 확장성과 미래지향적 에너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서로 다른 장르와 음악적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만남 자체가 ‘경계 없음’이라는 공연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한다.

다양한 관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만의 테마음악회도 올 한해 계속된다. 4월 23일에는 평일



오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휴식과도 같은 무대,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salon’이 펼쳐진다. ‘국악 salon’은 일상의 한복관에서 잠시 멈춰 서서, 국악이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무대로, 국악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브런치 콘서트 특유의 가벼우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를 통해 문화적 휴식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역사 강연과 국악관현악이 결합된 융합형 공연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는 7월 2일과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한국사 스타 강사인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최태성 강사만의 깊이 있는 역사 해설을 통해 국악이 탄생하고 발전해 온 시대적 배경을 흥미롭게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무더운 여름밤, 국악과 재즈가 만나 새로운 감각의 음악 경험을 선사하는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는 8월 1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의 섬세한 선율과 재즈의 즉흥적 리듬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상쾌하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통해 관객에게 한여름의 특별한 음악적 휴식을 제공한다. 바쁜 일상과 힘든 업무에 지친 직장인들과 시민 모두에게 우리소리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은 9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퇴근길 누구나 들러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힐링과 위로를 전하는 무대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차세대 국악연주자들을 위한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는 11월 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

매년 ‘명작극장, 창작극장, 가족극장’이라는 기조로, 극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켜온 부산시립극단은 2026년도 다양한 테마와 주제가 있는 새로운 작품으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시립극단의 새해 첫 공연은 2월 28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어린이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2026년 ‘가족극장’ 첫 번째 작품이자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출신의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는 ‘오즈의 마법사’는 환상의 나라 오즈에서 펼쳐지는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무슨 일이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전해준다.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공연예술활동의 직접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립극단이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터팬’, ‘어린왕자’를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11월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명의 어린이들이 3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극단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가족극장’ 두 번째 작품은 가족뮤지컬 ‘신데렐라 너의 뜻대로’로, 4월 3일부터 25일까지 주중과 토요일,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명의 명작동화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왕자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하고 싶은 일과 꿈을 찾아가는 현대적 신데렐라로 탈바꿈하였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난 2024년 첫 선을 보인 후 매년 공연되며 부산시립극단의 레퍼토리로 가족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창작극장’에서는 지난해 ‘제40회 한국추리문학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세화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무대화한 ‘타오’와 고대 그리스 비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에우리피데스 원작 ‘메데이아’를 선보인다. 제82회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르는 ‘타오’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치밀하게 담아낸 방대한 스케일의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로, 극단 ‘따뜻한 사람들’ 대표이자 연출가인 허석민이 각색과 연출을 맡아 우리사회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제목인 ‘타오’는 극 중심에 있는 베트남 여학생의 이름으로, 베트남어로 ‘푸른숲’을 의미한다. 공연은 7월 2일부터 사흘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9월 10일부터 사흘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제83회 정기공연 ‘메데이아’가 무대에 오른다.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로 불리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최대의 악녀로 알려진 메데이아를 주인공으로 배신과 복수,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규범,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딜레마라는 주제를 깊이있게 탐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해 부산문화재단의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청년 연출가로 선정된 박용희 연출가가 연출을 맡아 비극적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올해 ‘명작극장’에서는 제48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를 통해 ‘근대연극의 태동’을 알린 세 명의 작가를 소개한다. 부산시립극단이 소극장 연극을 지향하여 기획한 ‘스타프로젝트’는 그동안 극단의 레퍼토리를 다각화하기 위한 시도로, 단원이 주도하는 배우와 연기 중심의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왔다. 올해는 근대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헨리크 요한 입센과 스웨덴 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아일랜드 작가 존 밀링턴 싱 등 평소 무대에서 잘 만날 수 없는 근대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는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미스 줄리’가 11월 27일과 2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입센, 체호프와 더불어 근대 연극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트린드베리는 특히 1880년 후반에 생겨난 자

연주의 희곡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스 줄리’ 외에 ‘아버지’, ‘채권자들’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스트린드베리는 예리한 관찰과 심각한 고뇌를 바탕으로 전에는 없는 파격적 표현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로 인해 살아생전 그의 조국인 스웨덴에서는 논란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미스 줄리’는 백작의 딸과 남자 하인의 관계를 통해 계급, 성별 등 사회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1888년 스웨덴에서 발표될 당시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져 경찰에 의해 공연을 저지당했으며, 이후 현지에서 16년간 상연이 금지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넛’의 상임연출가 최용혁이 연출을 맡아 스트린드베리의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12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체호프와 더불어 현대 연극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 ‘인형의 집’을 선보인다. 현모양처 프레임 속에서 ‘인형’에 지나지 않았던 여성 노라의 성장과 해방을 그린 작품으로, 사실주의 연극의 초기 대표작이자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립극단 단원이자 최근 들어 연출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혁우가 연출을 맡아 근대 연극의 진수를 선사한다.

마지막 작품으로는 아일랜드 작가 존 밀링턴 싱의 ‘바다로 가는 기사’가 12월 11일부터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극단

에서 펼쳐진다. 연극사상 가장 훌륭한 단막 비극이라 꼽히는 ‘바다로 가는 기사’는 아일랜드 어떤 외딴 섬의 어촌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자연과의 불가항력적인 투쟁에서 오히려 내면적인 승리를 거두는 한 평범한 여인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전해준다. 지난해 ‘스타프로젝트’를 통해 부산시립극단과 신작 ‘오롯이 빛나는’을 선보였던 차승호 연출가가 다시한번 호흡을 맞춘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난 1994년 창단 이후 부산의 젊은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산실 역할을 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학업과 연주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연주활동과 교육 등을 통해 부산 음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성숙해진 사운드와 특별한 레퍼토리로 시민들 걸을 지켜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26년 한 해도 더 내실있는 기획과 운영, 단원 개개인의 기본기 향상 독려와 이를 위한 환경조성, 과감한 레퍼토리 선정과 도전 등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단체로 거듭날 계획이다.

특히 백승현 수석지휘자와 함께 단단한 기량을 다지기 위

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해 3차례 정기연주회를 통해 라흐마니노프와 쇼스타코비치, 베토벤 교향곡을 차례로 연주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연말 선보인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무대는 솔리스트와 더불어 부산시립합창단, 2025시즌 클래식부산합창단과 함께 웅장한 사운드를 선보이면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올해도 정기연주회에서는 음악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레퍼토리부터 오늘날 꾸준히 무대에 오르며 사랑받는 레퍼토리로 단원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연주 관람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전한다. 3월 18일 제79회 정기연주회와 12월 16일 제81회 정기연주회는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9월 제80회 정기연주회(날짜미정)는 부산콘서트홀에서 개최된다.

기획연주회에서는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유망주 음악회’가 솔로 혹은 소규모 앙상블로 세 차례 펼쳐진다. 2026년에는 6월 27일과 7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만날 수 있다. 5월 14일 낙동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솔로리스트들의 축제’에서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단원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협연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시민들과 호흡하고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가 음악



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공연도 올 한해 계속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천경필 수석지휘자와 함께 역사와 전통에 어울리는 최고의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우뚝 서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 한해도 5차례 정기·특별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 첫 무대는 3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특별연주회 ‘프렌들리 콘서트’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지난 2003년부터 ‘프렌들리 콘서트’를 통해 전국의 소년소녀합창단과 교류하며 합창을 통한 우정을 쌓아 오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도 실력있는 단체를 초청하여 도시간의 교류와 우정을 다지고 수준 높은 청소년 합창의 진수를 펼칠 예정이다.

가정의 달 5월에는 제169회 정기연주회 ‘콩쥐 팥쥐’를 무대에 올린다. 우리의 전래동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콩쥐 팥쥐’는 교훈과 감동을 전하는 이야기에 합창과 솔로, 안무, 영상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를 관객들에게 전한다. 5월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9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리는 제170회 정기연주회에서는 ‘Dream to Dream’이라는 주제로 20세기 프랑스 작곡가 폴랑크의 ‘Ave Verum Corpus’, B. Adams ‘Exsultate Justi in domino’ 등 수준 높은 고전합창에서부터 손민혜 곡 ‘손 잡아줄게’, ‘마음의 소리’, 제갈수영 곡 ‘엄마는 괜찮다’ 등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창작곡, 그리고 이소진 ‘태평가’를 시작으로 민요 ‘경복궁타령’ 등 흥겨운 우리가락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신명나는 안무와 함께 만날 수 있다.

2026년을 마무리하는 12월 19일에는 제171회 정기연주회 ‘We sing together’를 선보인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전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무대로, 1부에서는 영국의 합창음악 전문 작곡가 밥 칠콧(Bob Chilcott)의 재즈풍 미사곡인 ‘작은 재즈 미사(A little Jazz Mass)’를 연주한다. 2부에서는 ‘우리들의 노래’라는 주제로 손민혜 곡 ‘동요 메들리’를 시작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합창의 향연이 펼쳐지며, 마지막 무대에서는 세계합창민요와 캐롤, 겨울 음악 메들리로 2026년을 마무리한다. 이밖에 청소년 합창문화의 발전과 합창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해온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는 11월 6일과 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합창축제로 펼쳐진다.



부산시립
소년소녀합창단

2026 Performance Calenda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문화회관 대극장		대극장 개선사업					
민화회관 대극장	기획	1/23(금) 10:30, 14:00, 1/24(토) 11:00, 14:00 가족 뮤지컬 '구름빵'		3/14(토) 14:00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4/4(토)-5(일) 15:00 연극 '칼로막베스'		
	예술단		2/28(토) 16:00, 19:00, 3/1(일) 13:00, 16:00 극단 특별 '오즈의 마법사'	3/7(토) 17:00 소년소녀 특별 '프렌들리 콘서트' 3/13(금) 19:30 교향 기획 '해설음악회1' 3/18(수) 19:30 청소년교향 제79회 정기 3/20(금) 19:30 교향 기획 '실내악 시리즈1'	4/23(목) 11:00 국악 특별 '국악 브런치 콘서트-국악 살롱, Salon'	5/1(금) 19:30, 5/2(토) 11:00, 15:00 합창 특별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 5/6(수) 11:00, 19:30 교향 기획 '우리 아이 음악회' 5/13(수) 19:30 교향 기획 '해설음악회2' 5/14(목) 19:30 국악 제234회 정기 '창작 위촉곡 시리즈 V-사제 동행' 5/30(토) 17:00 소년소녀 제169회 정기 뮤지컬 '콩쥐 팥쥐'	6/5(금) 19:30 국악 제235회 정기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민화회관 대극장	챔버홀				4/15(수) 19:30 교향 기획 '실내악 시리즈2 '중인!'		6/27(토) 17:00 청소년교향 특별 '유망주음악회'
민화회관 대극장	사랑제극장				4/3(금)-25(토) 평일 11:00, 토요일 11:00, 14:00 극단 특별 '신데렐라-너의 뜻대로'	5/2(토)-7/25(토) 평일 10:30, 토·공휴일 11:00, 14:00 (일-월요일 공연없음)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5/2(토)-7/25(토) 평일 10:30, 토·공휴일 11:00, 14:00 (일-월요일 공연없음)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시민회관 대극장	기획		2/1(일) 14:00, 18:30, 2/3(화)-5(목) 19:30, 2/6(금) 15:30, 19:30, 2/7(토)-8(일) 14:00, 18:30 뮤지컬 '아찌면 해피엔딩' 2/27(금) 19:30 Sound of Busan #1: 올 댓 차이콥스키_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3/19(목)-3/20(금) 19:30 국립발레단 '백조의호수'	4/3(금) 19:30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5/2(토) 17:00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6/12(금) 19:30, 6/13(토) 15:00 화류비련극 '홍도' 6/19(금) 19:30 Sound of Busan #2: 올 댓 차이콥스키_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예술단	1/15(목) 19:30 교향 기획 '2026 신년음악회'	2/26(목) 19:30 교향 제628회 정기 '겨울, 꿈'	3/26(목) 19:30 국악 특별 '영남 風流'	4/24(금) 19:30, 4/25(토) 15:00 무용 제93회 정기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시민회관 소극장	기획	1/16(금) 19:30, 1/17(토) 15:00 연극 '시물라시옹'	2/28(토) 11:00, 14:00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하이든'	3/28(토) 14:00, 17:00 뮤지컬 '인사이드 미'	4/10(금) 19:30 살롱 드 국악I -첼로가야금 4/17(금) 19:30 살롱 드 국악II -추다혜저지스 4/23(목) 14:00, 4/24(금) 14:00, 19:30, 4/25(토) 14:00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예술단						
시민회관 전시실							
시민회관 야외마당						4월~5월 12:10 2026 시민뜨락축제(상반기)	4월~5월 12:10 2026 시민뜨락축제(상반기)
기타 공연장		1/29(목) 19:30 교향 제627회 정기 'DIGNITY' (부산콘서트홀)	2/12(목) 19:30 국악 특별 '금정구민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금정문화회관)	3/17(화) 19:30 합창 특별 '부산-광주 교류연주회_Harmony' (낙동아트센터) 3/26(목) 19:30 교향 제629회 정기 '축제'(부산콘서트홀)	4/1(수) 19:30 교향 제629회 정기 '축제'(낙동아트센터) 4/24(금) 19:30 교향 제630회 정기 'EROICA' (부산콘서트홀)	5/14(목) 19:30 청소년교향 특별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낙동아트센터) 5/28(목) 19:30 합창 제200회 정기 '벤자민 브리튼 War Requiem'(부산콘서트홀)	6/18(목) 19:30 교향 제631회 정기 '부산, 말라'(부산콘서트홀)
순회·해외 공연		1/10(토)-11/(일) 17:00 합창 낙동아트센터 개관공연- '낙동강 풍파레&말러 교향곡 8번'(낙동아트센터)		3/12(목) 합창 '부산-광주 교류연주회_Harmony'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4/3(금) 19:30 교향 '2026 교향악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은 상반기 일정만 게재합니다. 이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대극장 개선사업					
<p>7/2(목)-3(금) 19:30, 7/4(토) 16:00 극단 제82회 정기 '타오'</p> <p>7/23(목) 19:30 합창 제201회 정기 '2026 SUMMER FANTASY'</p>	<p>8/11(화) 19:30 국악 특별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p>	<p>9/17(목) 19:30 국악 제236회 정기 '부산, 청년'</p> <p>9/18(금) 19:30 합창 제202회 정기 '현대합창의 밤VI'</p> <p>9/19(토) 17:00 소년소녀 제170회 정기 'Dreams to Dream'</p> <p>9/30(수) 19:30 국악 특별 '퇴근길 음악회-국악 힐링 타임'</p>	<p>10/28(수) 19:30 청소년교향 특별 '제37회 부산합창제'</p> <p>10/29(목) 19:30 국악 제237회 정기 '창작 위촉곡 시리즈VI-2026 부산 국악작곡 콩쿠르'</p>	<p>11/3(화)-5(목) 19:00 합창 특별 '제37회 부산합창제'</p> <p>11/6(금)-7(토) 17:00 소년소녀 특별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p> <p>11/24(화) 19:30 국악 특별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p>	<p>12/11(금) 19:30, 12/12(토) 15:00 무용 특별 '홀로홀출-나의 길 나의 춤'</p> <p>12/16(수) 19:30 청소년교향 제81회 정기</p> <p>12/19(토) 17:00 소년소녀 제171회 정기 'We sing together'</p>
<p>7/18(토) 17:00 청소년교향 특별 '유망주음악회'</p>					
<p>5/2(토)-7/25(토) 평일 10:30, 토·공휴일 11:00, 14:00 (일·월요일 공연없음)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p>					
	<p>8/21(금) 19:30 Sound of Busan #3: 올 댓 차이콥스키_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p> <p>8/29(토) 15:00 창극 '살로메'</p>				
<p>7/2(목)-3(금) 10:30 국악 특별(예술교육)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p>			<p>10/30(금) 19:30, 10/31(토) 15:00 무용 제94회 정기공연 '동백'</p>		<p>12/18(금) 19:30 국악 제238회 정기 '2026 송년음악회-No Boundary'</p>
		<p>9/10(목)-11(금) 19:30, 9/12(토) 16:00 극단 제83회 정기 '메데이아'</p>		<p>11/27(금) 19:30, 11/28(토) 16:00 극단 제84회 정기 '스타프로젝트-미스 줄리'</p>	<p>12/4(금) 19:30, 12/5(토) 16:00 극단 제84회 정기 '스타프로젝트-인형의 집'</p> <p>12/11(금) 19:30, 12/12(토) 16:00 극단 제84회 정기 '스타프로젝트-바다로 가는 기사'</p>
		<p>9월~10월 12:10 2026 시민뜨락축제(하반기)</p>	<p>9월~10월 12:10 2026 시민뜨락축제(하반기)</p>		
<p>7/24(금) 19:30, 7/25(토) 15:00 무용 특별 '이정윤의 댄스살롱-한 여름밤의 댄스파티' (장소 미정)</p>		<p>9월경 19:30 청소년교향 제80회 정기(부산콘서트홀)</p>			<p>12/4(목) 19:30 합창 제203회 정기 '2026 송년음악회-A Child of Our Times(부산콘서트홀)</p>

간판으로 읽는 도시의 얼굴

- 부산, 오사카, 후쿠오카를 오가며

글 김성필 국립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부산에서 비행기로 한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도시들, 오사카와 후쿠오카. 거리로만 보면 이웃 도시에 가깝지만, 밤이 찾아오고 불이 켜진 뒤 거리를 걸어보면 전혀 다른 행성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그 차이를 가장 먼저 느끼게 해 주는 것은 건물의 높이도, 도로 폭도 아닌 뜻밖에도 간판이다. 최근 출장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잇달아 다녀오며, 비슷한 규모의 항만도시이자 관광도시라는 공통점보다 ‘옥외 간판의 풍경’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인상이 얼마나 다른지 새삼 또렷하게 체감하게 됐다.

오사카에서는 난바·도톤보리를 가득 채운 초대형 네온 간판들이 도시의 얼굴을 만든다. 그중에서도 글리코상 사인이나 카니도라쿠의 거대한 움직이는 게 간판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닌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시각물’로 기능한다. 크고 화려하지만, 일정한 높이 규제와 색채 조율 속에서 배열되기 때문에 거대한 화면이면서도 하나의 리듬을 갖는다. 후쿠오카의 경우 텐진·나카스 일대 역시 상업 지역에는 간판이 집중되지만, 한두 블록만 벗어나면 간판과 건물 사이의 여백이 살아난다. 이는 일본 특유의 ‘경관 조례’가 도시의 얼굴을 장기간에 걸쳐 조율해온 흔적이자, 상업성과 미관이 하나의 일관된 프레임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다.

부산 역시 간판이 도시의 표정을 좌우한다. 다만 도시 내부에서도 지역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남포동의 골목은 부산 간판 풍경의 가장 ‘밀도 높은’ 버전이다. 층마

다 서로 다른 업종의 간판들이 수직으로 쌓이고, 글자·이미지·전화번호가 한 화면 안에 압축되면서 시각적 파동이 거칠게 밀려온다. 오사카 도톤보리의 화려함과 비교하자면 남포동은 화려함보다는 ‘정보량의 과잉’이 먼저 다가온다. 해운대는 부산이 가진 국제도시적 이미지와 관광지 특유의 활기가 가장 격렬하게 뒤섞이는 지역이다. 정비된 구간에서는 간판이 통일된 톤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지만, 대로변은 여전히 서로 다른 색채와 광원이 심미성과 상업성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오사카의 랜드마크 간판처럼 강력한 이미지 자산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상징보다 ‘난립의 에너지’가 더 크게 느껴진다. 한편 전포는 부산 간판 문화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가 감지되는 곳이다. 목재·금속 간판, 미니멀 타이포그래피, 작은 조도(照度)의 간접조명 간판 등이 골목과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미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곳에서는 일본의 작은 골목길 간판처럼 ‘간판이 말수를 줄일수록 골목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원리가 최근 들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도시들은 꽤 이른 시기부터 간판을 도시경관의 일부로 바라보며 제도를 정비해 왔다. 후쿠오카는 1987년에 이미 ‘도시경관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과 옥외광고, 가로경관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오사카 역시 옥외광고 금지구역과 규제구역을 세분화하고, 밝기·점등 시간까지 규정하면서 간판의 양과 질을 동시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거리에서 체감되는 차이는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건물 한동에 허용되는 간판 수가 제한되어 있고, 벽면에서 벗어나 도로 쪽으로 돌출되는 깊이, 3층 이상으로 치솟는 간판의 허용 여부, 야간 조명 밝기와 점멸 방식 등이 모두 도시 차원의 원칙 안에서 통제된다. 덕분에 오사카와 후쿠오카의 상업 지역에서는 간판이 경쟁적으로 튀어나오기보다는 거리 전체의 리듬을 따라 정렬된다. 개별 점포의 개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거리 풍경을 압도하거나 시선을 폭력적으로 빼앗지는 않는다. 간판이 “나 하나만 보라”고 소리치는 대신, “이 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할까.

부산 역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간판의 크기·개수·설치 위치를 규정하고, 한 업소당 간판 총수를 제한하는 등 정비를 지속해 왔다. 일부 구에서는 간판 개선사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자 수와 색채, 조명 방식까지 권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배너 프리 거리’를 선언하며 불법 현수막과 무분별한 광고물을 줄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거리에서 간판이 주는 인상은 여전히 “민첩한 제도”보다는 “오래 축적된 관행”에 가깝다. 한 건물에 층마다 난립하는 자투리 간판, 브랜드 로고와 문구, 전화번호, 슬로건이 한 판 안에 뽀뽀이 들어찬 정보과잉형 간판, 색채 대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강렬한 색감의 조합... 이 모든 요소가 모여 “부산다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표정을 필요 이상으로 거칠고 피로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중요한 시점에서, 간판은 도시 브랜딩의 최전선에서 있다. 해운대의 바다와 남포동 골목의 정취가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 위를 뒤덮는 문자의 숲이 조율되어 있지 않다면, 관람자는 도시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시각디자인의 언어로 바꾸어 말해보면, 일본 도시의 간판은 비교적 그리드와 여백이 살아 있는 편이다. 간판과 간판 사이, 문자와 이미지 사이에 ‘숨구멍’이 있다. 글자 수

를 줄이고, 색의 종류를 제한하고, 동일 거리에서는 글자의 크기와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추는 방향으로 합의가 축적되어 있다. 반대로 부산의 간판 풍경은 포화 상태의 캔버스를 떠올리게 한다. 하나의 점포가 자기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고 싶어 할수록, 글자는 늘어나고 색은 더 자극적으로 변한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간판도 온전히 읽히지 않고, 거리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소음’처럼 느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여기에 ‘소리’의 층위까지 더해보면, 간판은 단순한 시각 정보가 아니라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까지 형성한다. 오사카의 변화가가 거대한 전광판과 BGM으로 만들어내는 인공적 활기라면, 후쿠오카의 골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음량과 절제된 빛 속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정서를 제공한다. 부산의 거리는 그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 바다와 항만, 언덕과 골목이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도시 구조에 비해, 간판 디자인의 리듬은 아직 그 복잡한 매력을 충분히 ‘작곡’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결국 문제는 “어느 도시가 더 깔끔해 보이느냐”가 아니다. 질문은 조금 더 정교하다.

- 간판이 도시의 표정을 어떻게 빚어내는가.
- 그 표정이 그 도시가 지향하는 정체성과 어울리는가.
- 그리고 시민과 방문객의 시선과 몸의 리듬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부산이 오사카나 후쿠오카를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본의 도시들이 수십 년간 경관조례와 옥외광고 제도를 통해 축적해 온 것은, 규제가 아니라 “도시의 얼굴을 함께 디자인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 이 지점은 우리 부산이 눈여겨볼 만하다. 디자이너와 행정, 상인과 시민이 함께 간판을 “개별 점포의 홍보판”이 아니라 “거리와 어울려야 하는 공공 시각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도시는 비로소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부산은 지금, 그 변곡점의 초입에서 있다. 간판을 조금 덜 말하게 만들고, 대신 도시가 더 깊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디자이너인 필자가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다녀온 뒤 부산의 거리를 다시 바라보며 떠오른,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오랜 고민을 남기는 과제였다.

실연자의 의미

글 계승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교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창작을 한 사람을 저작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라고 부르고 저작자에게 저작권(copyright)을 부여한다. 예를 들면 소설을 쓴 소설가를, 작곡을 한 작곡가를, 무용의 바탕이 되는 안무를 짠 안무가를 저작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소설을 가지고 연극대본, 영화대본¹⁾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연기를 하는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들을 저작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연극배우, 영화배우²⁾,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자, 지휘자, 성악가, 가수, 무용수 등을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라고 부르고 실연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이라고 한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구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권리는 서로 다른 권리이고 독립된 권리이다. 두 권리는 배타적인 재산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권리의 대상과 주체가 서로 다르다. 저작권은 창작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여되는 권리인데 반하여 저작인접권은 창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말하고 이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일컫는다. 저작인접권자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도 저작인접권과 유사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의미

앞서 언급한 대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구별되는데 저작인접권은 창작행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물을 실연하는 실연자, 창작물을 음반에 고정한 사람 즉 음반제작자, 방송하는 사람 즉 방송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창작 행위가 아닌 사람의 노동 행위, 예를 들면 가수의 노래, 연주자의 연주, 배우의 연기, 무용수의 무용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반제작자의 음반 제작행위와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작인접권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의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녹음, 녹화와 같은 기록매체 기술들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은 기록매체에 대한 투자와 기록매체에 삽입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성악가의 성악 실력과도 연계성을 가

1 소설을 기초로 해서 연극대본, 영화대본을 작성한 경우 저작권법에서는 연극대본, 영화대본을 2차적저작물(저작권법 제5조)이라고 부른다.
2 가수, 영화배우와 같은 우리가 소위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법률의 관점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이라고 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이 행하는 연기나 가창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연에 해당되고 실연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지고 있다. 이전에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려면 공연장에 가야되지만 이제는 기록매체를 통해서, 즉 음반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공연장에 가지 않더라도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서 저작자의 창작물을 전달하는 사람, 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 저작권인점권이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창작을 보호하는 제도가 저작권 제도라면 저작물을 활용하는 사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저작권점권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실연자의 범위

저작권점권자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실연자이다. 앞서 예를 든 연극배우, 연극감독, 연출가 등은 연극대본의 기초인 사상과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지휘자, 연주자, 성악가, 가수 등은 창작물인 악곡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연주나 가창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같은 곡이라고 하더라도 성악가가 누군지에 따라 또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의 의미가 달라지고 연주자의 작품 해석 능력이나 연주 기량에 따라 관객들의 감동이 달라진다. 실연자는 원래 창작자가 행한 창작물을 해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창작물을 해석하고 이해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상 거의 창작 행위와 유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구연이나 낭독과 같은 것은 실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를 들면 프로야구 선수의 경기는 실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능적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연자에는 앞서 예를 든 사람 이외에 마술사, 곡예, 복화술, 팬터마임을 하는 연기자도 포함되고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 즉 지휘자, 연출자, 감독도 포함된다.

실연자의 권리

앞서 예를 든 실연자들은 거의 창작자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는 인격권적 보호로서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진다. 특히 성명표시권은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실연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실연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자신의 경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연자는 재산권적인 의미를 가지는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대여권을 가진다.

누구나 창작자가 되는 콘텐츠의 시대, 저작권에 대한 지식은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그리 쉽지 않다. <예술의초대>에서는 올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행정 또는 문화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작권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새해의 기운을, ‘신’나게 잡아보는 신년 음악회

글 송현민 음악평론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Song)년 음악회’에 노래(Song)가 있다면, 한 해를 여는 ‘신년 음악회’에는 ‘신’나는 분위기가 흐른다. 12월의 무대가 “잘 가라, 올해”로 건네는 인사라면, 신년 공연은 “반갑다, 새해”라는 환영이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세계 공연계는 자연스레 신년 음악회의 각축장이 된다.

한 해의 서막을 알리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어떤 오케스트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목직한 레퍼토리로 ‘의미’ 있게 문을 열고, 어느 악단은 여러 곡을 모아 “새해엔 이런 것도, 저런 것도!”라는 다채로운 ‘재미’로 문을 연다. 둘 중 하나만이 답은 아니다. 오히려 신년 음악회의 묘미는, 의미가 재미를 억누르지 않고 재미가 의미를 희석하지 않는 그 균형감에 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진다. 클래식에는 신년 음악회가 하나의 장르로 안착했는데, 왜 ‘신년 연극’ ‘신년 무용’ ‘신년 전시’라는 명칭은 상대적으로 덜 익숙할까? 아마도 공연 기획의 용이성 때문일 것이다. 신년 음악회는 기성 레퍼토리의 재배치로도 충분히 성립된다. 왈츠·서곡·협주곡·교향곡 등으로 ‘축하의 기분’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반면, 연극·무용은 새 작품이면 제작과 연습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매년 1월 첫 주에 열리는 신년 공연의 형식을 고정하기 어렵다. 전시 역시 준비 기간이 길다.

신년 음악회의 유래와 전통

흔히 신년 음악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음악의 수도라 불리는 오스트리아 빈과 왈츠의 모습일 것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무지크페라인 황금홀에서

펼치는 이 공연은 이제 ‘새해의 표준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전통은 아득한 옛날부터 내려온 의식이라기보다, 비교적 현대에 형성된 문화다. 빈 필하모닉의 공식 기록은 1939년 송년 음악회와 1941년 신년 음악회 전통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설명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이처럼 20세기 현대에 와서 만들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문화적 현상에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가 남긴 대표 저서의 제목도 ‘만들어진 전통’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간단하다. 전통은 처음부터 전통이 아니라는 것. 어느 순간 누군가가 새해의 공기를 음악으로 묶어 “이렇게 시작해 보자!”라고 제안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반복하며 믿어줄 때, 비로소 전통이 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신년 음악회는 가장 ‘현재형’의 전통이다. 매년 다른 지휘자와 다른 기획이 서더라도, 관객이 공연장을 들어설 때 품는 기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새해의 음악은 그래서 늘 ‘지금’의 얼굴을 하고, 동시에 ‘되풀이’되며 역사와 전통을 쌓아간다.

빈 신년 음악회는 늘 화제의 중심에!

빈 필하모닉 신년 음악회는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와 폴카로 새해의 마음을 가볍게 띄운다. 전 세계로 중계되는 규모 역시 이 공연이 도시(빈)의 행사를 넘어선 문화적 사건임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 무대는 매년 1월 1일 오전 11시 15분(현지) 황금홀에서 열리고, TV·스트리밍을 통해 150개국 이상에 송출되며 약 5천만 명이 시청하는 ‘의식’에 가깝다.

흥미로운 건 단 한 번만 열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3일간 같은 공연이 오른다는 점이다. 즉, 빈 필하모닉은 같은 프로그램을 12월 30일 오전 11시, 12월 31일 오후 7시 30

분, 그리고 1월 1일 11시 15분에 연주하고, 우리가 흔히 '빈 신년 음악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중 1월 1일 공연이다.

신년 음악회의 지휘를 누가 맡는지도 늘 화제다. 2026년 공연은 야닉 네제-세갱이 맡았다. 2012년부터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2018년부터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지휘자를 맡고 있다. 오늘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클래식을 무장시켜 나가는 젊은 지휘자가 오랜 전통이 스며 있는 신년 음악회의 지휘봉을 잡는다고 화제다.

레퍼토리 역시 그 방향을 또렷이 드러낸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인디고와 40인의 도적> 서곡으로 문을 열고, 이칼 미하엘 치러러의 '도나우 전설', 요제프 란너의 '말라푸 갈로프',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의 폴카 등으로 빈의 리듬을 엮는다. 여기에 프란츠 폰 주페의 서곡, 조제피네 바인리히의 <사이렌의 노래>, 플로렌스 프라이스의 왈츠가 포함된다. 그중 5곡이 빈 신년 음악회 사상 최초의 연주이기에, 새 얼굴이 선보이는 새 라인업과 새 작품이 이번 음악회의 화제다.

이처럼 변화를 입어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곡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이다. 1946년 신년 음악회에서 처음 연주된 곡으로, 어느 지휘자가 오더라도 이 곡을 통한 마무리는 신년 음악회 불변의 법칙과도 같다. 관객들은 빈 필하모니의 행진곡 연주에 맞춰 관객들의 박수를 끌어내는데, 이를 유도하고 끌어내는 모습도 제 각각이다.

국내 공연장과 극장에서도 빈의 왈츠를 즐긴다

빈의 신년 음악회가 만든 전통을 유럽의 여러 나라가 각자의 문화를 섞어 이어나가고 있기도 하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라 페니체 오페라극장에서 1월 1일에 선보이는 '카포단노 콘서트'는 역시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답게 노래가 무대의 중심을 채운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신년 음악회가 펼쳐지는데 그 특징을 정리하면 몇 유형으로 함축된다. 첫째는 '의미형'이다. 새해 첫 장을 대편성 형식으로 열어젖혀, 교향곡·합창·오라



빈 신년 음악회

토리오 같은 레퍼토리로 새 시간을 축하하고, 새해를 다짐하게 만든다. 둘째는 축제형으로 가장 많이 선호한다. 왈츠, 서곡, 춤곡, 앙코르가 어깨를 들쩍이게 하는 이 유형은 신년 음악회는 '즐거워도 된다'가 아니라 '즐거워야 한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셋째는 확장형이다. 클래식의 문법을 지키되, 무대는 더 넓어진다. 현대 작품, 크로스오버, 내레이션, 영상, 무용 등과의 결합을 통해 신년 콘서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끼와 묘수를 펼쳐낸다.

무엇보다 신년 음악회는 더 이상 '그 자리에 간 사람만의 새해'가 아니다. 다른 도시의 사람들이 같은 음악과 기분으로 새해를 열 수 있도록 중계를 통해 보다 널리 퍼지고 있다. 1월 1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경기도)과 세종예술의전당(세종시) 같은 공연장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통해 빈에서 감상하는 듯한 현실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같은 날 메가박스는 전국 32개 지점에서 생중계 상영을 하고, 부산에서도 만날 수 있다.

더불어 클래식 음악 전용홀을 갖춘 부산콘서트홀에서도 1월 8일 신년 음악회를 선보인다. 작년 6월 개관 페스티벌을 선보이며 막을 열었으니 부산콘서트홀 역사상 '최초의 신년 음악회'라 할 수 있겠다. 부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부산메세나협회가 마련한 이번 공연에는 임현정이 지휘하고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맡아 말리의 교향곡 1번을 선보인다. <거인>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으로, 거인처럼 우뚝 설 힘과 용기를 음악으로 불어넣을 시간이 될 것이다.

송고의 경험, 뉴먼과 로스코의 색면회화

글 박송화 미학연구자, <새롭게 읽는 서양미술사> 저자



바넷 뉴먼, <단일성 I>, 1948, 캔버스에 유채, 마스크잉 테이프, 69.2x41.2cm, 뉴욕현대미술관

바닥에 놓인 거대한 캔버스에 물감을 뿌리는 잭슨 폴록의 액션페인팅은 미국 현대미술의 개화를 화려하게 알렸다. 한편, 거칠고 요란한 액션 페인터들과 다르게 감정을 절제하고 사색적 태도로 색면을 넓게 칠하는 무리가 있었다. 그들 중 일부 역시 1930년대 뉴딜정책의 공공미술사업인 벽화 작업을 통해 광활한 화면을 경험했으며, 유럽 전 통에서 벗어나 미국 미술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은 추상표현주의의 다른 측면인 색면회화(Color-Field Painting)로 나아갔고, 작품을 통해 철학적 사유를 빚어냈다. 그러자 색채는 그 자체로 인간을 초월하는 위력을 지닌 존재로 격상된다.

뉴먼과 로스코는 색면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이들도 입체주의, 추상미술, 초현실주의 등 당대 유럽 현대미술에서 영향받았다. 특히나 초현실주의에서 주목했던 인간의 억압된 욕망, 무의식, 꿈 등은 추상표현주의 작가들도 또한 다루었고, 20세기 두 차례나 일어난 전대미문의 전쟁은 화가들에게 인간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사색을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에 관한 탐구는 인류 문화의 원형인 신화로 이어졌고, 신화 속 비극적 운명과 그것을 마주한 인간의 송고함은 색면회화에서 색채로 피어났다.

뉴욕 태생의 폴란드계 유대인, 바넷 뉴먼(Barnett Newman, 1905~1970)은 미술 이론가로 활동하

바넷 뉴먼,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 1950~1951, 캔버스에 유채, 242.2x541.7cm, 뉴욕현대미술관



며 작품활동을 병행했다. 그는 신화에 관심을 가지며 초현실주의에 영향받아 유기적 형상을 그리다 1940년대 중엽부터 색면을 수직으로 가르는 선을 그었다. 형식적 실험을 거쳐 탄생한 <단일성 I>(1948)은 작가가 “내 현재 삶의 시작”이라 할 정도로 이정표가 된 작품이다. 붉은색으로 칠한 직사각형 화면 가운데, 뉴먼은 작업 준비를 위해 마스킹 테이프를 수직으로 붙였다. 그는 테이프를 뜯는 대신 그 위에 팔레트 나이프로 오렌지색을 덧입혔다. 수직선은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빛, 또는 쏟아지는 신성한 피를 연상시키며 화면은 자못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치 창세기에서 창조주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추상적으로 펼쳐진 것 같다.

뉴먼은 이 세로선을 ‘zip(수직 띠)’이라고 명명하였다. zip은 공간을 가르기도, 만나게도 하면서 높이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나아가 뉴먼은 zip을 통해 자갈한 인간사를 무력하게 하는 ‘숭고’의 힘을 표현하고자 했다. 18세기 철학자 버크(Edmund Burke, 1729~1797)와 칸트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된 숭고(崇高, sublime)는 거대하고 광활한 것, 그러한 자연을 대면할 때, 인간이 자신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힘을 느끼게 되면서 두려움과 공경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숭고는 거대하고 무한한 양적 개념과 그 앞에서 유한성을 인정하는 인간의 이성적 측면이 합쳐진 것이다. 숭고는 18, 19세기 유럽인들이 프랑스 혁명의 혼란, 산업혁명의 격변, 나폴레옹 전쟁 등을 겪으며 이성만으로 세계를 설명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당대 예술 경향인 낭만주의의 주된 정조로 자리 잡았다.

뉴먼은 역사 속 숭고 개념을 가져와 20세기의 새로운 예술을 공표하고 인간 존재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는 기존 유럽 미술이 온건하고 암전한 ‘아름다움’의 틀 속에 갇혀 있기에, 숭고를 통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 더욱이 뉴먼이 살았던 20세기 전반기는 전쟁, 홀로코스트, 핵무기로 점철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 그는 인간을 규정하던 기존의 조건이 모두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예술은 안일한 시선을 벗어나 충격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가로 5.4m, 세로 2.4m가 넘는 <인간, 영웅적이고 숭고한>(1950~1951)은 온통 강렬한 붉은색으로 균질하게 채색되어 있으며 5개의 zip이 수직으로 캔버스를 가른다. 뉴먼은 자신의 그림을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보도록 권장하며 인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색채화면을 통해 관람자로부터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존성’과 동시에 ‘초월적 경험’을 유도한다.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마크 로스코(Mark Rothko, 1903~1970)는 대학 중퇴 후 뉴욕에서 미술을 공부하며 뉴욕 풍경과 대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다. 1930년대가 되면 초현실주의의 미국 유행과 더불어 로스코 역시 신화, 무의식에 근거한 유기적 형상을 탐구하였고, 194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화면은 여러 색채가 서로 번지는 형상을 보여주다가 1950년대가 되면 서너 개의 색채와 수직, 수평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간소화된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뉴먼의 화면과 달리, 로스코는 형태를 부드럽고 흐릿하게 처리하여 차분한 느낌을 준다. 로스코는 캔버스에 물감을 여러 번 겹쳐 발라 면사포가 무한히 중첩된 것 같은 시각적 효과와 함께 깊이감을 자아냈다.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살아 숨 쉰다”라고 말하며 뉴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작품을 가까이서 볼 것을 요구한다. 손에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는 관람자를 화폭 안에 위치하게 하여 색채를 말 그대로 ‘경험’하게 한다. <오렌지와 노랑>(1956)은 오렌지 색상을 배경으로 상단의 노란 사각형과 하단의 짙은 오렌지색의 사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흐릿한 경계로 인해 사각 형태는 배경으로 사라진다. 노란색과 오렌지색의 대조로 노란색은 화면 밖으로 돌출하는 듯, 오렌지색은 화면 안에서 조용히 머무르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밀고 당김, 수축과 팽창, 멀어짐과 가까움이라는 이원성을 한 공간에 펼쳐놓는다. 이러한 두 성질은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생명의 근원적 운동이며 이내 관람자는 자신이 마주한 색채가 생명 운동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된다.

회화란 경험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경험 그 자체”임을 강조한 로스코는 궁극적으로 “비극, 황홀경, 운명같이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때 화면 속 색면들은 무대 위의 배우가 되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작품은 드라마로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관람자를 그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의 작품은 그리스 비극의 상연과도 같다. 절정을 지나 갈등이 해소되는 결말에 이르면 관객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감정이 정화되듯 관람자는 그의 작품을 통해 걱정과 감정의 해방을 경험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갈색, 짙은 파란색, 회색, 검은색 등 어두운 색상이 등장하면서 화면은 더욱 암울하고 애잔해졌다. 뉴욕 시그렘 빌딩의 레스토랑 벽에 걸릴 예정이었던 시그렘 연작은 차갑게 타오르는 붉은색에 익숙한 짙은 갈색이 주를 이루며 죽음을 연상하게 했고(로스코는 결국 레스토랑과의 계약을 철회했다), 휴스턴의 예배당에 걸린 작품들은 화면에서 사각형이 사라지고 검고 푸른 단색화가 되었다. 매 순간 수많은 이미지를 쏟아내며 사람을 현혹하는 현대사회에 대항이라도 하는 듯, 로스코는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침잠하여 정신을 가다듬기를 권유한다.

1969년 이후, 화면은 검은 상단과 다양한 빛을 머금은 회색 하단으로 더욱 간소하게 나뉜다. <무제>(1969~70)의 검은 면은 밤하늘이나 우주를 연상하게 하기도, 우윳빛 머금은 회색 면은 달의 표면 같기도 하다. 순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절대적 고요함이 엄습한다. 로스코에게 예술이란 관조의 대상을 넘어 경험 그 자체가 되면서 예술의 개념이 확장된다. 색면회화는 우리에게 예술만이 줄 수 있는 순수한 경험을 선사한다. 색채를 통해 공명하는 감정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마크 로스코, <오렌지와 노랑>, 1956, 캔버스에 유채, 231.1x180.3cm, 올브라이트-녹스 미술관, 버팔로



마크 로스코, <무제>, 1969~70, 캔버스에 아크릴, 198.1x168.2cm, 뉴욕현대미술관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462-1870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부산콘서트홀	640-8888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음	557-3369

E

액터스소극장	611-6616
어댑터씨어터	0507-1388-1447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인디아트홀 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SUN

MON

TUE

W

공지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안정적이고 수준높은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한해 대극장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시설 이용에 참고 바랍니다.

전시실

제43회 대한민국 미술 대상전

· 1월 7일(수)~10일(토)
입장료: 무료
문의: (사)한국현대미술협회 051-644-0005

제21회 부경서도대전

· 1월 21일(수)~24일(토)
입장료: 무료
문의: (사)한국서도협회부산지회 051-516-5678

4

5

6

7

11

12

13

14

더뉴&아르떼 영재음악 콩쿠르 입상자 음악회
15:00
☎ 초대/더뉴앙상블(070-8095-9426)

18

19

20

21

제8회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7:00
☎ 초대/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25

26

27

28

무장애음악회 '화음' 14
☎ 초대(단체 예약)/부산시



ED	THU	FRI	SAT
	1	2	3
	8	9	10
	15	16 창작오페라 '페스트' 19:30 7만원-5만원-3만원 루체테음악극연구소(513-1009)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19:30 전석 1만원 부산색소폰앙상블(010-2420-3887)	17 창작오페라 '페스트' 14:00, 19:00 7만원-5만원-3만원 루체테음악극연구소(513-1009)
	22	23 가족 뮤지컬 <구름뿔> 10:30(단체관람), 14:00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4 가족 뮤지컬 <구름뿔> 11:00, 14:00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9	30	31

00
립예술단(607-3111)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전시실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by Martinbull

· 1월 9일(금)~3월 29일(일) 전시실 1,2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 성인 1만8천원, 청소년 1만4천원, 어린이 9천원
문의 : (주)늘품이엔티 1588-2532

4

부활 40주년 콘서트 16:00

대 14만3천원·12만1천원·9만9천원
(주)하늘이엔티(1688-6675)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 유치원도, 도시도 처음이야> 11:00, 14:00, 16:30

소 전석 6만6천원(예매할인 3만7천9백원)
극단국민(010-4095-3005)

5

6

7

11

뮤지컬 <헬로카봇 스페셜 시즌9-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 - 11:00, 14:00

대 7만원·6만원/(주)밝은누리(1544-9621)

12

13

14

18

베베핀뮤지컬 시즌2 <두근두근 새친구> 11:00, 14:00, 16:30

대 7만7천원·5만5천원/(주)어드칸(02-586-0622)

19

20

21

25

엄마랑 아이랑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17:00

대 초대/엄마랑 아이랑 합창단(0502-1929-7896)

싱어롱뮤지컬 <브레드야발소 - 브레드와 월크의 세계여행> 11:00, 14:00

소 전석 6만원
(주)드림엔터테인먼트(1600-1787)

26

27

28

ED

THU

FRI

SAT

1

2

3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 유치원도, 도시도
처음이야> 11:00, 14:00, 16:30
 Ⓢ 전석 6만6천원(예매할인 3만7천9백원)
 극단국민(010-4095-3005)

8

9

10

뮤지컬 <헬로카봇 스페셜 시즌9 -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 11:00, 14:00, 16:30
 Ⓢ 7만원·6만원/쥬박은누리(1544-9621)

15

16

17

❖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 신년음악회 19:30
 Ⓢ 3만원·2만원·1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연극<시물라시옹> 19:30
 Ⓢ 전석 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베베핀뮤지컬 시즌2 <두근두근 새친구>
 11:00, 14:00, 16:30
 Ⓢ 7만7천원·5만5천원/쥬애드칸(02-586-0622)
 ❖ 연극<시물라시옹> 15:00
 Ⓢ 전석 5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2

23

24

싱어롱뮤지컬 <브레드야발소 -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여행> 11:00, 14:00, 16:30
 Ⓢ 전석 6만원
 (주)드림엔터테인먼트(1600-1787)

29

30

31



2030년대의 감성과 기술이 만나는 SF로맨스극 연극 <시물라시옹>



(재)부산문화회관은 2026년 첫 기획공연으로 연극 <시물라시옹>을 1월 16일과 17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2035년 근미래를 배경으로, 기술과 감정, 인간과 AI의 경계를 깊이 탐구하는 연극이다.

연극의 제목 '시물라시옹'은 1981년 장 보드리야르가 발표한 시물라시옹 이론에서 차용해온 말로, '모사된 이미지가 실재를 대체하고, 실재가 아닌 것으로 전환되는 과

정'을 뜻한다. 작품은 이 개념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심리적 풍경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근미래적 설정과 배우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를 통해 사랑과 상실의 의미, 기술 발전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억과 정체성의 본질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진다.

동아연극상 후보작을 부산에서 만나다

연극 <시물라시옹>은 제62회 동아연극상 후보작으로 선



정됐다. 동아연극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연극상으로, 한 해를 대표하는 연극 작품과 예술가를 선정한다. 그 후보작을 부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연은 더욱 의미가 깊다.

또한 <시물라시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지원사업, 2025 퀴드초이스 ‘재연을 부탁해’ 선정작으로, 2024~2025년 대학로 공연 당시 “기술과 감정의 경계를 가장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 “SF적 상상력이 인간의 감정으로 귀결되는 보기 드문 연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AI, 가상현실, 데이터 기술이라는 차가운 개념을 상실과 사랑, 위로라는 보편적 감정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진실성

작품의 배경은 10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2035년 근미래로, 비행기 참사로 아내를 잃은 선욱이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아내를 복원하는 과정을 그린다. 자율비행기 사고로 아내 상아를 잃은 선욱은, 그녀의 기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AI 아내와 ‘시물라시옹’ 프로그램 안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는 동일한 하루를 반복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지만,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존재는 선욱의 기억 속 상아와 점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AI를 단순한 소재가 아닌, 연극의 구조와 감정선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치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사라진 존재를 기술로 다시 불러내는 선택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게 하며, 기억과 감정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근미래와 첨단기술을 무대 위에 구현한 <시물라시옹>은 가상현실을 바탕으로 기술과 윤리의 질문을 엮어 내며, 감정과 사유를 동시에 유발하는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작품의 깊이 있는 질문과 시청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세련된 연출, 밀도 높은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져 부산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기술과 예술의 정교한 결합

대본 최양현, 연출 이태린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 이번 공연은 무대·조명·영상·사운드·움직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연출로, 현실과 가상, 기억과 현재가 교차하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선욱 역은 송철호가, 상아 역은 신사랑이 맡았으며, 이들과 함께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이 출연해 기술·윤리·철학적 질문부터 깊은 감정의 균열까지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AI 시대의 ‘관계’라는 낯선 질문을 관객의 현재로 끌어온다.

AI가 자연스럽게 일상이 된 지금, 작품 속 질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시물라시옹>은 사랑과 기억, 그리고 관계의 본질이 기술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객이 스스로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긴다.

일시 1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1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금액 전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시물라시옹의 시대, 위로와 파국 사이에서

연극 <시물라시옹>

글 이성곤 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기술이 발달할수록 인간에 대한 질문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과학의 진보로 우주의 비밀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질문의 폭과 깊이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로봇과 AI의 기술적 진화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대체 가능성에서 비롯한 불안감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모색도 그에 못지않게 심화되고 있다.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들이 철학적 질문이 담긴 에세이들을 발표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극 <시물라시옹>이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상현실 재현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근 미래 사회. 재현된 존재와 인간이 맺는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정체성, 나아가 생명과 자연법칙에 대한 인식을 되묻고 있기 때문이다. 소멸된 존재들의 ‘복원’과 ‘재회’는 과연 인간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AI 복원 기술을 통해 생성과 소멸, 그리고 또 다른 생성으로 이어지는 자연의 순환 법칙을 거스르거나 되돌리는 것이 가능할까?

연극 <시물라시옹>은 소멸한 존재들의 복원과 재현에 모티프를 두고 있다. 주인공 선욱(송철호 분)이 2년 전 항공기 사고로 죽은 아내 상아(신사랑 분)를 가상현실 프로그램인 ‘시물라시옹’(임지영 목소리)을 통해 복원하여 재회한다는 것이 메인 플롯이다. 여기에 남편의 팻로스 증후군과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죽은 반려견을 복원한 정

희(유연 분)의 이야기가 서브플롯으로 병치된다. 인물들은 제각기 상실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AI 복원 기술에 기댄다. 실재와 비실재, 존재와 비존재,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위계가 전복되는 현실을 ‘드라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위 ‘리브라인’을 통한 갈등 전개가 강한 몰입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적’이다.

상아와의 ‘되돌려진 만남’이 주는 행복도 잠시,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아내를 복원하기 위해 상아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던 선욱은 결국 아내의 불륜 정황과 마주하게 된다. 상아가 다니던 미술학원 원장의 남편 화가 박동훈(안창현 분)과 이탈리아 여행을 함께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봉인되었던 과거의 기억과 의심이 다시 현재로 소환된다. 상아는 이탈리아 여행을 떠났다 돌아오던 길에 사고로 죽었다. 따라서 그 순간 애도는 증오와 미움으로 변질된다. ‘시물라시옹’은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관계의 파국을 재연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인 ‘시물라시옹’도 교란을 일으킨다. 선욱과 상아의 ‘시물라시옹’에 박동훈이 불쑥 등장하여 개입하면서 가상현실의 세계는 균열을 일으킨다. 애도와 위로, 그리고 치유를 기대했던 시물라시옹의 세계는 갈등과 균열, 또 다른 상실의 경험으로 변모한다.

기술은 스스로 인간을 사유할 능력이 없다. 기술문명에 기생하며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또한 인간을 사유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이 마주할 불안과 상실에 아랑곳 없이 폭주하듯 내달리는 기술 진보에 대한 열망은 마치 제동장치가 고장난 롤러코스터 같다. 작품에 롤러코스터가 등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물라시옹>의 공간적 배경은 세 곳이다. 선욱의 집과 박동훈의 아내 유미가 운영하는 미술학원, 그리고 선욱과 민수(송예준 분), 정희가 근무하는 지니랜드 어트랙션 R&D센터. “스위스 제조사로부터 신규 도입되어 런칭을 앞둔 롤러코스터 갤러리 익스프레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들의 임무는 속도 제어 장치



의 기술적 결합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간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속도로 내달리는 롤러코스터는 어쩌면 아직은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물라시옹' 프로그램에 대한 은유라고 볼 수 있다. 일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갤럭시 익스프레스를 VR버전으로 대체한다는 결정이 내려진다. '시물라시옹' 프로그램의 구독을 끊은 정희와 고민에 빠진 선욱과는 대조적이다. 인간의 "감정과 기억과 기대와 인식"에 역주행하는 기술 진화의 속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상하 대칭구조로 되어 있는 무대도 흥미롭다. 책상이나 테이블, 조명 등 일상의 사물들을 마치 거울처럼 무대 바닥과 천정에 상하로 배치하여 원본과 복제가 동시에 공존하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설명적인 무대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무대의 대칭성은 선욱과 상아, 유미와 동훈, 그리고 정희와 반려견처럼 이미 한 차례 '살았던' 삶의 장면이 재현되는 세계에 대한 강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와 현실을 대체해버린 가상과 가짜에 대한 패러디처럼 읽히기도 한다. 이처럼 연극 <시물라시옹>은 SF적 디스토피아의 세계만을 그리는 데서 머물지 않는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유효할 '시물라시옹의 시대'까지 문제의식을 넓히고 있는 작품이다.

'시물라시옹'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 이상으로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제안한 개념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살지 않는다. 우리는 시물라시옹을 산다"는 선언으로 유명하다. 더 정확히 말해 그가 말한 '시물라시옹의 시대'는 곧 '이미지의 시대'를 의미했다. 그 시대는 이미 현대 자본주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보드리야르의 말처럼 '이미지'는 스스로 '현실'처럼 기능하고 있다. AI 기술의 진화는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수천에서 수만 개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2035년을 배경으로 하는 연극 <시물라시옹>에서 제시하는 AI 복원 기술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작품 속 선욱이 겪고 있는 갈등과 고민도 조만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 작품을 통해 이미 도래한 미래를 엿보았는지도 모른다. 시물라시옹의 시대, 위로와 파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조용히 되묻고 있는지도.

음악과 함께 맞이하는 새해

부산시립교향악단 2026 신년음악회



1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6년,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해가 밝았다.

새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1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한 해의 첫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따뜻한 신년 인사를 전하고자 특별한 신년음악회를 준비했다. 새해의 설렘과 기대를 가득 담은 이번 공연에서는 활기차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2026년을 힘차게 열며, 음악을 통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한다. 특히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와 함께하는 무대는 새해 첫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부산시민회관에서 펼쳐질 이번 신년음악회와 함께, 2026년을 활기차게 열어나가기 기대한다.

새해를 여는 선율, 희망을 여는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해 2026년 신년음악회를 1월 15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부지휘자이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백승현과 바이올리니스트 김현서가 함께 무대를 꾸미며 새해의 첫인사를 전한다.

공연의 문을 여는 첫 곡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소작농의 딸이 도둑 누명을 쓰고 처형 된 후에야 까치가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실화)을 바탕으로 한 로시니의 오페라 ‘도둑까치’ 서곡이다. 작은북의 독주를 시작으로 씩씩한 행진곡으로의 화려한 진행이 돋보이는 곡이다.

두 번째 무대는 사라사테가 1880년대 초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 기초해 쓴 곡인 ‘카르멘 판타지’로 바이올린의 불꽃 튀는 기교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협연을 맡은 김현서는 2025년 프렐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3위와 청중상, 최연소 결선 진출자상을 수상했으며, 2024년 잔 바티스타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여 한국인 최초 바이올린 부문 수상자라는 기록을 남겼다. 또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열리는 모닝사이드 뮤직 브리지에 참여해 스텐워드 홀랜드 어워드를 수상했고, 홍콩 제너레이션 넥스트 아츠(HKGNA)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주니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김현서는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성남시향, 군포프라임필 등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삼일미래재단, 현대차 정몽구재단 문화예술 인재 장학생으로도 선발된 바 있다. 김현서는 2025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대표작들이 연주된다. '황제 왈츠'는 '왈츠의 왕'으로 불리던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비엔나 왈츠 스타일의 매력과 우아함이 잘 표현됐다. '광란 폴카'는 유난히 빠르고 격렬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전통적인 우아한 폴카의 성격보다는 폭발적인 추진력을 보여준다. 전체 길이는 짧지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마지막 무대는 전쟁 이후 유럽 사회에 드리운 혼란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라벨의 '라 발스'가 장식한다. 프랑스어로 '왈츠'를 의미하는 '라 발스'는 작곡가 라벨이 스스로 '빈 왈츠의 예찬'이라고 불렀던 곡으로, 단순한 무도회 음악을 넘어 라벨 특유의 힘과 열정, 짙은 낭만주의적 감성이 뒤섞여 있다.

지휘자 백승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과 지휘전공으로 학사를,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악대학 대학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와 합창 지휘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독일 문화부 산하 독일음악협회의 '지휘자포럼' 회원을 역임했으며, 2021년 7회 에른스트 폰 슈호 상을 공동수상했다. 백승현은 그동안 데트몰트시립극장 오케스트라, 로이틀링엔 필하모니, 바덴바덴 필하모니,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포항시립 교향악단 등을 객원지휘했으며 2022년에는 이태일리 문화대상 대상작인 와이즈발레단의 <VITA>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했다. 또한 고전음악 뿐 아니라 현대창작음악을 비롯한 각종 음악 분야에 대한 관심은 현대음악 연주단체나 작곡가들과의 빈번한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을 여는 이번 신년음악회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깊이 있는 해석이 어우러진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음악과 새해의 문을 여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지휘 백승현



바이올린 김현서

[프로그램]

- 로시니 / 오페라 '도둑 까치' 서곡
G. Rossini - Overture to 'La gazza ladra'
- 사라사테 / 카르멘 판타지
P. Sarasate - Carmen Fantasy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황제 왈츠
J. Strauss II - Emperor Waltz, Op. 437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광란 폴카
J. Strauss II - Furioso-Polka, Op. 260
- 라벨 / 라 발스
M. Ravel - La Valse

※ 단,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족뮤지컬 <구름빵>

따뜻한 상상력과 포근한 감성이 담긴 가족뮤지컬 '구름빵'이 오는 1월 23일~2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을 찾는다. '구름빵'은 전 세계 40만 권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동화를 원작으로, KBS 인기 애니메이션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 어린이 콘텐츠다. 애니메이션 속 친숙한 노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아이들은 물론 부모 세대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인다.

가족뮤지컬 '구름빵'은 엄마가 일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 심술이 난 동생 '홍시'를 위해 누나 '홍비'와 아빠가 준비한 특별한 하루를 그린다. 엄마 없이 보내는 시간이 서운하기만 한 홍시는, 누나와 아빠가 들려주는 놀이와 이야기를 통해 점차 마음을 연다. 그 과정에서 홍비와 홍시는 가족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작은 걱정과 서운함 또한 사랑으로 풀어간다.

'구름빵'은 다정하고 든든한 누나 홍비, 하나뿐인 남동생 홍시,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엄마, 그리고 조금은 덤벙거리지만,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가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이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하루를 함께하다 보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진다.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반죽 체험'이다. "오물오물 짹짹, 조물조물 짹짹" 손유희와 의성어·의태어가 가득한 노래에 맞춰 배우들과 함께 손을 움직이는 시간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참여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여기에 새롭게 구성된 무대효과와 따뜻한 조명, 동화적인 의상이 조화를 이루어 '구름빵' 특유의 감성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또한 애니메이션에서 사랑받았던 주요 OST들이 무대 위에서 생동감 있게 울려 퍼지며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홍비·홍시 남매가 노래하고 춤추며 관객을 초대하면, 어느새 객석은 작은 구름빵 마을로 변한다. 친숙한 멜로디들이 공연의 흐름을 이끌며 어린이 관객은 물론 부모 세대에게도 따뜻한 추억을 선물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어우러진 가족뮤지컬 '구름빵'은 빵처럼 포근한 이야기와 섬세한 감성이 만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며 한겨울, 아이들과 함께 작은 빵 한 조각 같은 따뜻함을 품고 돌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1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지난해 독일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1월 29일 부산콘서트홀에서 2026년 첫 정기연주회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5번'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독일 순회공연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사운드와 앙상블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브루크너 '교향곡 제5번'은 연주 시간만 80분이 넘는 대작으로 국내에서는 자주 만날 수 없는 작품이다. 웅장한 구조와 복잡한 화성으로 유명하며, 브루크너 스스로가 '환상적'이라 표현했을 만큼, 그의 깊은 음악적 통찰과 영감이 담긴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지휘자 홍석원의 해석과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력이 결합되어 브루크너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아쉬운 이별을 했던 홍석원 전 예술감독은 올해는 수석객원지휘자로 활약하며 예술감독 공석인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끄는 지휘자로 손꼽히는 홍석원은 탁월한 음악성과 다양한 음악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현대음악과 오페라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1962년 창단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부산의 문화적 자존심을 상징하는 오케스트라로, 다양한 기획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수많은 해외 순회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세계 음악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아온 부산시립교향악단은 특히 1997년 미국 4개 도시 순회연주회를 통해 뉴욕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대한민국 최초의 교향악단으로 기록되었으며, 지난해 독일 순회공연을 통해서 유럽의 저명한 음악제인 무직페스트 베를린 2025의 폐막 무대에 오른 최초의 아시아 교향악단이라는 기록도 보유하게 되었다.

깊이 있는 해석과 웅대한 스케일이 어우러지는 이번 공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지향하는 품격과 예술적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의미 있는 연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한국 창작뮤지컬 사상 최초로 제 78회 '토니 어워즈(Tony Awards)' 6관왕을 차지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부산을 찾는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박천후 작가와 월 애런슨 작곡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이 작품은, 토니상 수상에 앞서 2021년 '제8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뮤지컬 부문 최우수상과 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작품의 배경은 멀지 않은 미래인 21세기 후반 서울 메트로폴리탄.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헬퍼봇 '올리버'와 '클레어'는 구형이 되어 버려진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지며, 반딧불을 찾아 떠난 예기치 않은 여행 속에서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배워간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감정이 가져오는 고통 또한 함께 깨달게 되는 이야기다.

헬퍼봇 5인 '올리버'는, 옛 주인의 취향을 닮아 아날로그를 좋아하며 언젠가 옛 주인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반면 헬퍼봇 6인 '클레어'는 인공지능과 감정뿐만 아니라, 5에겐 없는 '사회적 기술'까지 갖춘 인간에 더 가까운 로봇으로, 겉으로는 활발하고 영리하지만, '관계'와 '애정'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올리버의 옛 주



인 '제임스'는 한국인이지만 서구 문화에 더 친숙하고 빈티지 취향을 지닌 인물로,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올리버를 소유했다.

사람들이 더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작품은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감정에 주목한다. 그리움과 두려움, 희망 같은 오래된 감정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테크놀로지는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임을 잊게 만드는 장치인지도 모른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

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고, 사라진다는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 월 애런슨과 박천후는 두 사람이 아닌 두 로봇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고, 미래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아날로그적이고 어쿠스틱 사운드로 이야기를 채운다.

2월 1일부터 8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그 이후의 고통까지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끝을 아는 우리가 과연 '해피엔딩'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스며든다.

2월 1일(일)~8일(일) 화~목요일 오후 7시 30분,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2시, 오후 6시 30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9만원, S석 8만원, A석 7만원

문의 티켓링크 1588-0766



무대위의 환상적 재현,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산시립극단 제81회 정기공연 <모든 날, 모든 순간>

글 강태욱 PERFORMANCE PROCESSING TODAY 대표,
극작가, 연출가, 부산시립극단 운영위원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자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존재하기만 하기 때문에... - 오스카 와일드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지금 당신이 행한 것들보다 행하지 않은 것들로 인해, 더 많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 마크 트웨인

인생과 삶에 관한 많은 명언들로 감상을 전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곳,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의 무대에는 시대정신도, 철학적 고민도, 극적인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곳에는 그저 일상의 짧은 한순간, 잘 기억나지도 않는, 지나간 삶의 어느 한때를 가장 아름답고, 최대한 멋있고, 가능한 한 넘치도록 포장하여 특별한 순간으로 꾸며 놓은 것만 있다. 마치 누군가의 꿈처럼...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환상처럼...

무대가 꿈이고, 판타지라면, 그것을 기대하는 이들에게는 '범용적인 대중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예술'이고, '사조'며, '철학적인 고뇌'나 '사회적 고발'은 고상한 '지성인'들의 잘난 척 일 뿐.

부산시립극단의 <모든 날, 모든 순간>(부산문화회관 중극장 2025. 12. 11~13.)은 기존의 부산시립극단 단원 16명(상임 10명/비상임 6명)과 부산의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공연예술아카데미 2기' 12명, 총 28명의 인원이 신체적, 음성적 앙상블로 110분을 여백 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작품이다.

누군가는 1930~40년대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를 떠올리거나, 혹은 독일의 브레히트를 떠올리며, 서사극의 연출적 메소드와 비교하며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브제나 조명효과, 무리를 활용한 미국식 쇼 메카니즘을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저, <모든 날, 모든 순간>의 무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대는 누군가에게 꿈이며, 환상이고, 비현실인 판타지이다. 아마도 김민우 연출에게 있어서 바로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일어난 무대 위 그곳이, 그가 그리고 싶은 환상이지 않았을까?

작품의 구성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주인공 '선영'이라는 인물의 삶의 이야기를 따라, 총 3개의 시간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고, '무대감독'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시공간 배경을 설명하고, 그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무대 위에서 공연 형식으로 재연해 준다는 식의 구성으로 일종의 메타연극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공간 배경은 충남, 전라, 경상의 산줄기가 맞닿은 어느 시골 마을인 '삼봉리(세 개의 산봉우리가 마주 닿는다



고 하여 ‘삼봉리’라고 함)라는 곳으로 극중 인물이 고깃배를 타고, 어업을 하는 어촌마을이 함께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실제 모델이 되는 시골 마을이 있기보다는 상상의 시골 마을이다.

줄거리는 큰 반전이 없이,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 ‘삼봉마을’에 서로 이웃으로 사는 ‘이씨’네와 ‘김씨’네의 ‘딸, 선영’과 ‘아들, 동식’이 어린 시절부터 허물없이 지내다가, 학창시절이 되면서 서로 남녀 간의 마음이 생기고, 성인이 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또 몇 해가 지나 ‘선영’이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되면서, ‘선영’이 이대로 저승으로 그냥 갈 수 없으며, ‘무대감독’에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하게 되고, 무대감독은 그것을 허락해 주는 대신 선영에게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단 하루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선영은 학창 시절 자신의 생일날로 돌아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날의 일상을 바라보며,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전혀 중요하다 생각지 못했던 그 시절의 빛나는 찬란함을 이야기하며, 끝이 나지만, 작품의 형식은 간단하지 않다.

작품은 ‘무대감독’ 역과 ‘스텝’ 역을 하는 배우들이 무대를 둘러싸고, 극 속의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이중적 구조로 되어있다. 이들은 진행자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체와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때로는 조명효과로, 때로는 자연으로, 때로는 버스로, 때로는 화장실의 전구가 되기도 하며, 장면의 분위기와 상황, 공간 묘사를 일사불란하게 한다. 이들은 움직이는 세트이자, 배경의 한 조각으로서 무대위에 존재하면서, 무대위의 환상을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장치로, 관객들은 이들로 인해, 극에 대한 몰입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이른 바, ‘이격효과’를 일으키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관객들에게 작품의 일차적인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시각적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이야기 속 주동배우들이 마임적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 장치 사용을 하는 것과는 결이 다르게,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무대 위에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세트와 작화에 공을 들여, 상당히 사실적으로 메인공간을 구축한 점이 비견된다. 이 점이 다소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인 듯하면서도, 멀리서 바라본 풍경화처럼 보이도록 하였다는 점과 ‘스텝’ 역할 배우들의 움직임과 조화를 통해, 정적인 풍경에 역동성을 부여 시키고 있다.

극 전반에 걸친 작품의 목표는 ‘컨셉에 충실한 디테일 완성에 대한 철저함’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컨셉은 크게 ‘일상의 순간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과 ‘특별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의 특별함을 발견케 하는 것’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실제로, 이야기의 플롯이 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소소한 소재나 표현 양식 하나까지 컨셉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자면, 극 중 ‘복희엄마’와 ‘용달총각’의 대화 중에, 용달총각이 ‘무청’이라는 소재를 빌어, 복희엄마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 용달총각은 ‘무청’의 정체성과 특별한 가치에 대한 장황한 열변을 토로 하는 대사를 뱉는다. 일상에서 의미 없는 사물 하나까지도 그 의미를 특별하게 돋보이게 하고자, 소재의 선택에서부터 그것의 특별함을 열거하는 문장의 디테일은 대중의 호흡과 눈길을 계속 끌어당기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한다.

또 다른 계열의 관점에서 어둠 속 랜턴을 활용한 효과 처리나 조명을 의도적으로 객석으로 비추거나 하는 등



공연 시작 전 ‘섬광 주의’라는 경고문구를 안내하면서까지 눈부신 빛 효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눈부신 빛처럼 아름다운 순간임을 물리적으로 재현하고 싶은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관객의 눈을 부시게 할 정도의 빛을 이용한 장면 효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관객의 이격효과를 사용한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극성’보다는 장면의 표현과 1차원적인 감정에 몰입하여, 편안하게 따라오도록 하는 극적 전개 방식에 힘을 실어, 빠른 템포에 범용적인 즐거움을 제공해 주려 한다.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노래만 없었지, 뮤지컬에 가까운 장면 전개와 연기적 표현 양식으로 1분의 틈 없이 가득 채운 무대효과들은 대중에게 편안하고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공연이지 싶다.

끝으로, 필자와 같이 사상이 다소 불손한 독자의 경우는, “일상에서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 한순간을 가장 빛나고 의미 있게 재연 해내기 위해, ‘수많은 인력’과 ‘수개월의 연습 시간’, ‘얼마나 많은 무대 기술과 자본이 소요 되었는가?’”만을 놓고 생각해 보자면, “일상의 한순간, 일평생 중의 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하나 가치 있고,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의미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많은 에너지와 마음가짐으로 삶에 임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늘 반복되고 특별할 것 없는 하루에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음을 인지한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과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편의 공감을 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한다.

삶의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한순간!
일상을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편집된 자아의 시대, 해머는 어디를 겨누는가?

알렉산더 에크만 <HAMMER> 예테보리 오페라 댄스컴퍼니

글 이상현 춤 비평가

주황색 해머, 회색 블록, 바닥에 프린트된 거대한 흑백 이미지(사진), 느슨하고 중성적인 의상, 파란색과 흰색 패턴의 퍼 코트, 오렌지색 가발, 큰 카메라, 큰 향수병, 토크쇼, 검은 상자, 혀를 내민 고양이 탈 그리고 조명 등 다양한 상징이 촘촘하게 중복·반복되며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감각적인 무대. 이야기의 시간이 아니라 편집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무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스펙터클로 화려함을 갈망하는 현대인의 결핍을 경쾌한 우울로 펼친 알렉산더 에크만의 <HAMMER>가 지난 11월 21일,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랐다. <HAMMER>가 전달하는 바는 분명하다. 떠밀린 자아도취와 허위에 허덕이며 온라인을 부유하는 삶 속에서 '진실된 것'은 무엇인가.

이 작품을 분석한 글이 이미 많은 만큼, 여기서는 안무와 춤의 세부 분석보다 앞서 열거한 상징의 의미에 집중하고자 한다. 막이 오르면 무대 오른쪽에 비어 있는 작은 상자가 떠 있다. 바닥 전체에는 남녀 얼굴의 옆모습 사진이 덮여 있고, 사방은 회색 블록이 담처럼 둘러쳐 있다. 한 남자가 주황색 해머를 들고 나타나 상자에 해머를 집어넣으면서 작품이 시작된다. 작품 제목이기도 한 해머는 원래 파괴와 폭력의 상징이지만, 이 작품에서 해머는 개인을 상품으로 만들고 이미지로 객체화하는 시스템을 깨려는 의지다. 한 걸음 나아가 해머의 주황색과 향수병 상표 'No. 5 HAMMER'는 해머조차 브랜드로 유통되는 현실을 비튼 블랙 유머다. 다시 말해, 시스템을 깨려는 의지이면

서도 그 저항조차 상품화되는 시대의 자기 패러디다.

바닥에 프린트된 대형 흑백 이미지가 상징하는 바도 단순하지 않다. 흑백사진은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이다. 모두가 누군가의 이미지를 밟고, 그 위에서 자기를 드러낸다. 사진의 조화로운 구도는 무용수들의 폭주, 개별적 과시, 해체되는 집단 안에서 계속 어긋나고, 가려진다. 작품 초반부터 등장하는 회색 블록은 다기능적이다. 어떤 장면에서는 블록이 '위에 서기 위한 자리'로 '미세한 계단식 위계'를 상징한다. 블록 위로 올라서는 순간, 각자는 잠시 '선택된 장면'이 된다. 그러나 그 장면의 권리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 다음 것에서는 자리도 의미도 빠르게 교체된다. 블록이 곳곳에 놓이는 순간 무대는 평평한 댄스 플로어에서 깨진 도시의 모듈로 변하고, 분절된 개인 영역으로 쪼개지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이 회색은 유예된 불안이다. 언제든지 다른 구성으로 재배열될 수 있는 도시, 언제든지 다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자아를 상징하는 색이다.

1막 후반에 무용수들이 객석으로 퍼져 나와 인사를 나누며 관객의 시선과 휴대폰 앞에서 온갖 포즈를 취한다. 작품 모티브인 자기 연출의 욕망과 인정 욕구를, 관객을 통해 현실처럼 호출한 장면이다. 한편으로 관객 서비스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주제를 강화하는 연출의 의도인데, '인정 욕망'의 재현을 넘어, 인정이 작동하는 방식, 즉 선택과 편집의 윤리를 관객이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 장치는 관객의 동의, 쾌감, 불편이 만들어 내는 미학적 의미까지 생각하게 한다.

2막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영상과 라이브 카메라는 감시의 시선이자, 자기애적 응시, 필터와 편집을 통한 이미지의

폭력이다. 이로써 이미지가 몸을 지배하고 스크린이 무대를 장악하는 시대를 무대 위에 그대로 겹쳐 놓는다. 의상은 전체적으로 과장되고 유머러스하다. 1막에서 느슨하고 중성적인 옷은 꾸미기보다 함께 노는 공동체를 뒷받침하는 춤추는 몸을 위한 의상이다. 2막에 나오는 파란·흰색 패턴의 퍼 코트, 몸의 곡선을 과장하는 보디슈트, 오렌지색 가발과 강한 메이크업은 더 이상 ‘춤추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 속 캐릭터, 향수병을 든 모델, 브랜드의 아바타처럼 보인다. 여기서 의상은 ‘몸의 해석’이 아니라 ‘몸의 패키징’이다. 각자의 개성은 유행하는 스타일로 치환되고, 스타일은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서사로 편집된다.

조명도 짚어볼 만하다. 1막에서 넓고 부드럽게 무대 전체를 균등하게 덮는 빛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다. 2막에서 좁은 스포트, 콘트라스트, 백라이트는 ‘골라주는 빛’으로 칭찬과 비난, 주목과 무시에 대한 은유다. 또한 스포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거나, 스포트 안에서 과장된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자기 연출의 욕망을 드러내 보인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혀를 내밀고 있는 큰 고양이 탈은 앞서 보여 준 여러 상징과 의미를 한 번에 조롱하고 무력화시키는 전복적 장치로 볼 수 있다. 고양이 탈은 해머의 다중적 상징과 함께 이 작품이 정리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해머를 내리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징의 핵심이다.

이처럼 <HAMMER>는 상징 의미를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흥미진진한 작품이다. 작품의 메시지는 관객이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서, 주제 찾기에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잉의 세계가 결국 ‘어떤 부분이 남고 어떤 부분이 지워지는가’라는 문제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HAMMER>의 핵심은 무분별한 과시가 아니라 컷의 규칙이다. 이번 부산 공연은 원작보다 러닝 타임이 짧았다. 동성, 이성 간 애정 행위를 묘사한 아다지오는 아예 빠졌고, 일부 군무도 길이를 줄인 것 같다. 물론 이상태만으로도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했고, 스펙터클도 모자라지 않았지만,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부산 공연의 축약이 단순한 생략이 아니고 <HAMMER>가 이 시대를 다루는 방식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 우리는 늘 ‘잘린 장면’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필터링된 감정으로 관계를 유지한다. 부산에서 더 짧아진 <HAMMER>가 역설적으로 그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빠졌는지를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미지의 편집 윤리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결국 이 작품에서 해머가 겨누는 것이 무대 위에서 보여 준 현실 시스템만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편리하게 즐기므로써 시스템을 갈수록 두텁게 만드는,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일지도 모른다.



F R O M T H E R I V E R , F O R T H E W O R L D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낙동아트센터 개관



부산 강서구 낙동강을 품은 땅에 지역과 세계 무대를 이을 낙동아트센터가 1월 10일 정식 개관한다.

지역예술의 새로운 거점

서부산권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는 지역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기 위해 탄생한 복합 문화플랫폼으로, 가덕신공항 시대와 에코델타시티의 성장축 위에서 낙동강의 흐름처럼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지역과 세계를 잇는 열린 문화의 통로가 되고자 탄생된 공간이다.

낙동아트센터는 987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292석의 앙상블극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서트홀은 울림과 공간감이 탁월한 ‘슈박스(shoebow)’형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췄다. 직사각형 형태

의 슈박스 구조는 전 세계 유수의 콘서트홀에서 채택하는 음향 최적 구조로, 풍부한 잔향과 균형 잡힌 사운드를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음향 설계는 국내외 음향 전문가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객석 전 구간에서 동일한 음향 품질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 객석은 1층과 2층 발코니, 합창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관객이 최적의 시야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앙상블극장은 중·소형 다목적 공연장으로, 실내악·독주·연극·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담아내는 창조적 공간이다. 가변형 무대 시스템을 통해, 객석과 무대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으며, 전문 조명 장비와 고화질 영상 시스템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공연 연출의 완성도를 높인다. 관객과 예술가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진정한 ‘앙상블’의 의미를 실현하는 감동의 무대이다.

‘From the River, For the World’라는 슬로건 아래, 낙동아트센터는 예술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문화의 길을 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 중심의 창작·발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예술인과 청년 아티스트를 육성하고, 지역 스토리를 담은 창작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기획·제작 공연을 선도하며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 초청과 해외 공연장과의 공동제작을 추진하는 한편, 공연이 없는 날에도 시민이 머무는 열린 공간으로서, 라운지 개방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예술’이 실현되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낙동아트센터 전경



첫 출발 알리는 개관 페스티벌

낙동아트센터는 이번 개관일에 맞춰 1월 10일부터 개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특히 1월 10일과 11일 양일간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개막공연에서는 부산대학교 정수란 교수의 창작 작품 ‘낙동강 팡파레’가 초연되며, 이어 대규모 편성의 말러 교향곡 8번 ‘천인교향곡’이 연주된다. 말러 ‘교향곡 제8번’은 비수도권 최초로 선보이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무대를 위해 지역 연주자들로 구성된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와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의 예술가들이 함께 무대를 완성한다. 지역 합창단, 연주자, 성악가 등 330여 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무대로, 지역 예술의 자체 역량만으로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이번 개관 페스티벌은 자체 제작 공연과 대중성 있는 작품들로 관객과 소통한다. 자체 제작된 오페라 ‘아이디’는 단순 대관을 넘어 기획부터 제작, 무대 기술, 출연진 구성까지 기관 내부 역량으로 완성한 공연으로, 낙동아트센터가 창·제작 능력을 갖춘 종합 예술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이어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 지역 예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다. ‘미래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는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젊은 연주자들이 전문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실질적인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적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낙동이 여는 클래식 신세계’, ‘낙동의 바람 피아노를 노래한다’ 등 지역 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지역 창작 생태의 자립성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아울러 ‘NAC 솔리스트 시리즈’로 성재창 트럼펫 리사이틀과 김다미 바이올린 리사이틀이 이어지며, 3일간 진행되는 오픈실 내악축제에서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최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해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낙동아트센터는 개관 이후 국제 교류와 공동제작, 해외 예술 단체와의 협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부산이 동아시아 예술 교류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이번 개관페스티벌에는 독일 ‘윌른(WDR) 방송오케스트라’와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영국 ‘킹스싱어즈



콘서트홀



양상블극장

(The King’s Singers)’가 내한한다. 이는 ‘낙동강의 울림이 세계로 이어진다’라는 개관의 메시지를 실제 무대로 구현하는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다목적 공연장인 양상블극장에서는 재즈, 시 낭송, 어린이 공연,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펼쳐진다. ‘이정식 재즈 콰르텟 with 김준’, 부산시낭송협회와 에델현악사중주의 ‘시 낭송 콘서트’, ‘재즈 빅밴드’의 사운드와 함께 세계 다양한 춤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예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연 ‘매직 프레젠티’, 연극 ‘리어왕’ 등으로 개관 페스티벌에 다층적인 색채를 더한다.

지역 예술이 중심이 되면서도 예술적 품격을 잃지 않는 이번 개관 프로그램은 단순한 축하 행사가 아닌 지역 예술 생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본격적인 출발임을 보여준다.

■ 문의: 낙동아트센터 970-2771

낙동아트센터 개관 페스티벌 일정

일시	공연명	장소
1. 10.(토) 17:00	낙동의 첫 울림	콘서트홀
1. 11.(일) 17:00	<낙동강 팡파레 & 말러 교향곡 8번>	콘서트홀
1. 13.(화) 19:30	미래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 <NAC 미래를 깨우다>	콘서트홀
1. 14.(수) 19:30	이정식 재즈 콰르텟 with 김준	양상블극장
1. 16.(금) 19:30	아름다운 동행 <시를 연주하다> 시낭송콘서트	양상블극장
1. 17.(토) 17:00	낙동이 여는 클래식 신세계 - 오충근 & BSO	콘서트홀
1. 20.(화) 19:30	낙동의 바람 피아노를 노래하다	콘서트홀
1. 21.(수) 19:30	재즈 빅밴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세계의 춤	양상블극장
1. 22.(목) 19:30	NAC 솔리스트 시리즈 I 성재창 트럼펫 리사이틀	콘서트홀
1. 23.(금) 19:30	NAC 솔리스트 시리즈 II 김다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콘서트홀
1. 24.(토) 15:00	<매직 프레젠티>	양상블극장
1. 25.(일) 15:00	최고의 마술사들이 초대하는 마법의 순간	양상블극장
1. 27.(화) 19:30	Falling in string	콘서트홀
1. 28.(수) 19:30	개관 팡파르 (Fanfare for a New Beginning)	콘서트홀
1. 29.(목) 19:30	어텀실내악페스티벌 <피어나는>	콘서트홀
1. 30.(금) 19:30	어텀실내악페스티벌 <시간초월>	콘서트홀
1. 31.(토) 17:00	어텀실내악페스티벌 <노부스 콰르텟 & Friends>	콘서트홀
1. 29.(목) 19:30	연극 <리어왕>	양상블극장
1. 30.(금) 19:30	오페라 <아이디>	콘서트홀
2. 5.(목) 19:30		
2. 6.(금) 19:30		
2. 7.(토) 17:00		
2. 8.(일) 17:00	발레 <백조의 호수>	콘서트홀
2. 27.(금) 19:30		
2. 28.(토) 17:00		
3. 1.(일) 17:00	킹스싱어즈 내한공연	콘서트홀
3. 5.(목) 19:30	퀵(WDR)방송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콘서트홀

낙동의 첫 울림 <낙동강 팡파레 & 말러 교향곡 8번>

1월 10일(토)~11일(일) 오후 5:00 콘서트홀

부산대 정수란 교수의 창작 작품 '낙동강 팡파레'를 시작으로 지역 예술의 자생력을 알리는 상징적 울림을 선사한다. 이어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연주로 말러 '교향곡 제8번'을 통해 공연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

미래세대 클래식 협연 콘서트 <NAC 미래를 깨우다>

1월 13일(화) 오후 7:30 콘서트홀

낙동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해 오디션으로 선발된 부산 지역 청소년 협연자 7명과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부산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

이정식 콰르텟 with 김준

1월 14일(수) 오후 7:30 양상블극장

한국을 대표하는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과 데뷔 60년이 넘도록 현역으로 활동하는 레전드 보컬리스트 김준이 함께하는 무대로, 두 거장의 호흡을 베테랑 연주자들이 완성도 높게 뒷받침한다. 피아노 해먼드 오르간의 성기문, 스윙 베이스 허진호, 드럼의 이광혁이 함께하며 깊이 있는 재즈의 정수를 선사한다.

아름다운 동행 <시를 연주하다> 시낭송콘서트

1월 16일(금) 오후 7:30 양상블극장

시는 함축과 운율로 음악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깊은 감동을 전한다. 이번 공연은 시와 음악의 조화를 친절한 해설과 함께 전달한다.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에델현악사중주단을 초청해 시 낭송과 함께 성악, 악기,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낙동이 여는 클래식 신세계 - 오충근 & BSO

1월 17일(토) 오후 5:00 콘서트홀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가 드보르자크의 '축전 행진곡', '첼로 협주곡',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연주하며 역사적 순간을 기념한다. 예술감독 오충근이 지휘하며 세계적인 첼리스트 송영훈이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선다.

낙동의 바람 피아노로 노래하다

1월 20일(화) 오후 7:30 콘서트홀

부산광역시 음악협회와 공동주최로 부산 음악계를 이끄는 최고 수준의 피아노 연주자들이 무대를 펼친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 등 친숙한 명곡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다.

재즈 빅밴드와 함께하는 다양한 세계의 춤

1월 21일(수) 오후 7:30 양상블극장

컨템포러리 재즈 빅밴드의 사운드와 세계 여러 문화의 춤이 만나는 무대로, 트럼펫·색소폰·트롬본과 리듬 섹션이 만들어내는 깊이 있는 재즈 음악에 다채로운 춤이 더해져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NAC 솔리스트 시리즈 I <성재창 트럼펫 리사이틀>

1월 22일(목) 오후 7:30 콘서트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의 아이콘인 미국의 대표 작곡가 조지 거슈윈의 작품을 성재창 트럼펫 리사이틀로 선보인다. 아름다운 선율과 매력적인 멜로디를 금관의 음색에 담아 관객들에게 전한다.

NAC 솔리스트 시리즈 II <김다미 바이올린 리사이틀>

1월 23일(금) 오후 7:30 콘서트홀

2026년 병오년의 시작과 낙동아트센터의 역사적 개관을 기념해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 중 한 명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서울대 교수를 초청, 관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한다.

최고의 마술사들이 초대하는 마법의 순간 <매직 프레젠티>

1월 24일(토)~25일(일) 오후 3:00 양상블극장

마술·연극·무용·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 <매직 프레젠티>는 '선물'을 주제로 저글링, 서커스, 그림자극 등 다양한 장르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이며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5세 이상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환경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해 환경 교육과 재활용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Falling in String

1월 27일(화) 오후 7:30 콘서트홀

음악을 통한 연주자와 청중의 교감을 증시하는 센토챔버소사이어티의 무대로, 현악 앙상블의 매력을 전한다. 센토챔버소사이어티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이은욱 부악장을 주축으로 부산·포항·창원 시립교향악단 단원과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실내악단으로, 개개인의 뛰어난 기량과 완성도 높은 앙상블을 선보이고 있다.

개관 팡파르(Fanfare of New Beginning)

1월 28일(수) 오후 7:30 콘서트홀

부산·창원·포항시립교향악단 금관 연주자들이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현대 윈드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낙동아트센터 개관의 의미를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무대로, 웅장함과 생동감을 모두 갖춘 금관합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어텀실내악페스티벌

<피어나는(Blooming of Chamber Music)>

1월 29일(목) 오후 7:30 콘서트홀

<시간초월(Timeless Chamber)>

1월 30일(금) 오후 7:30 콘서트홀

<노부스 콰르텟 & Friends>

1월 31일(토) 오후 5:00 콘서트홀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최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하는 '오픈실내악축제'로, 대한민국 실내악의 깊이와 정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개관페스티벌을 빛내줄 고품격 무대로, 다양한 편성의 명작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연극 <리어왕>

1월 29일(목)~30일(금) 오후 7:30 양상블극장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 가장 현대적 감성을 지닌 작품 <리어왕>을 새롭게 재해석해, 물질에 집착한 노인이 아닌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강인한 리어왕의 면모를 극적으로 그려낸다.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통해 현실을 비추는 새로운 시각을 관객에게 선사한다.

오페라 <아이이다>

2월 5일(목)~6일(금) 오후 7:30, 7일(토)~8일(일) 오후 5:00 콘서트홀

베르디가 수에즈운하 개통을 기념해 작곡한 오페라 '아이이다'는 섬세한 심리묘사와 웅장한 스케일이 어우러진 걸작으로, '정결한 아이이다', '오 나의 조국' 등 주옥같은 아리아와 압도적인 '개선행진곡' 장면으로 유명하다. 사랑과 갈등, 비극을 드라마틱하게 담아낸 대작의 감동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발레 <백조의 호수>

2월 27일(금) 오후 7:30, 28일(토) 오후 5:00 콘서트홀

러시아 정통 마린스키 스타일을 계승한 유니버설발레단이 차이콥스키의 음악과 프티파-이바노프의 안무가 빛나는 명작 '백조의 호수'를 화려한 군무와 무대로 선보인다. 백조 군무의 절정부터 다양한 캐릭터 춤까지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담아낸 무대로 관객을 매혹한다.

킹스싱어즈 내한공연

3월 1일(일) 오후 5:00 콘서트홀

완벽한 하모니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아카펠라 그룹 '킹스싱어즈'가 내한해 뛰어난 예술성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쾰른(WDR)방송오케스트라 내한공연

3월 5일(목) 오후 7:30 콘서트홀

65년의 역사를 지닌 명실상부한 쾰른(WDR)방송오케스트라가 8년 만에 내한한 무대로, 세계 최정상 지휘자 안드레스 포가가 지휘를 맡아 정통 독일 사운드를 전한다. 여기에 독일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와 한국의 떠오르는 신예의 듀오 협연으로 무대를 더욱 빛낸다.

뱅크시 사진전 WHO IS BANKSY by Martin Bull

뱅크시의 미스터리를 포착하다: 사진으로 만나는 거리 예술의 아이콘

일 시 1월 9일(금)~3월 29일(일) 오전 10:00~오후 7:00 *입장마감 오후 6: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 소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1, 2

입장료 성인 1만8천원, 청소년 1만4천원, 어린이 9천원

문의 (주)늘품이엔티 1588-2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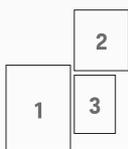
익명 예술가 '뱅크시(Banksy)'

‘얼굴 없는 거리의 예술가’ 뱅크시(Banksy)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WHO IS BANKSY by Martin Bull’(이하 ‘뱅크시 사진전’)이 부산에서 열린다. 1월 9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뱅크시의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가려진 작가로, 현대 예술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은유와 위트로 가득 찬, 때론 전쟁을 반대하며 자본주의의 폐해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뱅크시의 작품은 매력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벽화, 설치미술, 그리고 게릴라 방식의 예술 활동으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은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뱅크시는 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대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단순한 거리 예술가를 넘어선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러한 뱅크시의 관점을 대표하는 ‘풍선을 든 소녀(Girl with Balloon), 2002년’, ‘꽃을 던지는 남자(Love is in the air), 2003년’, ‘몽키 퀸(Monkey Queen), 2003년’ 등을 비롯해 그의 대표작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다양한 주제와 메시지에





- 1 공놀이 금지(No Ball Games)
- 2 꽃던지는 남자(Love is in the air)
- 3 키스하는 경찰(Kissing Coppers)

따라 섹션별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그의 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으며, 섹션마다 다양한 아트워크 작품을 함께 전시하여 거리 예술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뱅크시의 흔적을 기록한 사람, 마틴 볼(Martin Bull)

특히 이번 ‘뱅크시 사진전’은 뱅크시의 고향 브리스톨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큐레이터, 사진가인 마틴 볼(Martin Bull)의 시선을 통해 뱅크시의 작품과 그가 남긴 흔적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그는 거리 예술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며, 뱅크시의 작품을 단순히 예술로 보는 것을 넘어, 이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메시지와 철학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마틴 볼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뱅크시의 거리 미술을 느껴보기 위해 실제로 그곳에 방문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는 “나 역시 여러분처럼 뱅크시의 열렬한 마니아이다. 단지 내가 느끼고 보았던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할 뿐, 거창한 설명을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전시가 각자만의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뱅크시의 작품이 탄생한 도시와 거리의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예술가와 그의 메시지를 추적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람객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일일이 작품을 찾아가지 않고도 뱅크시의 작품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라고 이번 전시의 기획 의도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부산에서 만나는 뱅크시, 그 특별한 의미

이번 전시는 뱅크시의 다양한 작품과 풍성한 볼거리를 통해 그의 매력에 빠질 좋은 기회이자, 거리 예술이 가진 힘과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특히 해외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작품과 기록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시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예술성과 메시지, 그리고 시대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번 ‘뱅크시 사진전’은 젊은 세대뿐 아니라 동시대 예술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부산문화회관

창작오페라 페스트

일 시 | 1월 16일(금) 오후 7:30, 17일(토)
오후 2:00, 7:00 **중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루체테움악극연구소 513-1009



2024년 초연 당시 관객들의 뜨거운 극찬을 받았던 루체테움악극연구소의 창작오페라 <페스트>가 다시 돌아온다.

<페스트> 초연 한달 후, 거짓말처럼 계엄령이 선포된 지 정확히 일년이 지난 지금, 카뮈의 '페스트'와 '계엄령'을 기반으로 한 창작오페라 <페스트>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장 정직한 기록이 될 것이다.

봉쇄된 도시, 말할 수 없는 공포. 공포가 통치하고, 침묵이 질서가 되는 순간. 도망치려는 사람, 맞서 싸우려는 사람, 침묵을 택한 사람, 두려움에 흔들리는 사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 작곡, 예술감독/백현주 • 대본/김지용
- 연출/클레멘스 베히텔
- 지휘, 음악감독/전진

부산시민회관

가족뮤지컬 **엄마까투리 - 유치원도, 도시도 처음이야**

일 시 | 1월 3일(토)~4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6천원 (예매할인 3만7천9백원)
문 의 | 극단국민 010-4095-3005



평온했던 숲속을 떠나 새로운 도시, '햇살마을'로 이사 온 엄마 까투리네 가족! 새롭고 낯선 환경 속에서 까병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바로 유치원 생활이다.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함께 뒷밭을 가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콩지가 정성껏 키운 거대 당근은 엄청난 자랑거리였지만, 다음날, 당근이 사라졌다. 깜짝 놀란 까병이들은 '까병이 탐정단'을 결성해 단서를 따라 수사를 시작한다. 과연 까병이 탐정단은 사라진 당근을 찾아낼 수 있을까?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일 시 | 1월 16일(금) 오후 7:30 **챔버홀**
입 장 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색소폰앙상블 010-2420-3887



음악감독 김대훈의 지도 아래 결성된 부산색소폰앙상블 창단연주회. 부산색소폰앙상블은 앞으로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색소폰으로 새롭게 표현, 관객들에게 색소폰 음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첫 출발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클래식 색소폰 앙상블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관현악과 독주 레퍼토리로 알려진 작품들을 색소폰 편성으로 재구성하여 악기의 새로운 색채와 표현력을 선보인다.

- 음악감독/김대훈
- 소프라노 색소폰/박현수, 박성주
- 알토 색소폰/장온찬, 박수진, 이가현, 정지윤
- 테너 색소폰/최지원, 박재린
- 바리톤 색소폰/음현창, 하설희

부활 40주년 콘서트

일 시 | 1월 4일(일) 오후 4: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하늘이엔티 1688-6675



수많은 멤버들의 여정을 기억하고, 음악으로 살아온 날들을 되새기며, 부활의 이름을 사랑해 준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헌정의 무대. 김태원의 기타는 울림이 되었고, 그 위에 얹힌 수많은 보컬들의 목소리를 시대의 감정과 청춘의 언어가 되어 세대를 관통하는 명곡들을 만들어냈다. 한국 록의 정체성을 지켜온 '음악 정신', 세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무게', 그 이름 하나로 수많은 시간을 견뎌온 부활, 그리고 이제,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부활이 역사의 순간을 무대 위에서 다시 불러낸다.

제8회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1월 18일(일) 오후 5:00 **중극장**
입 장 료 | 초대
문 의 | 부산아너스 플루트오케스트라
010-2831-2836



다양한 연주 경험을 통해 연주력 향상은 물론, 지역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며,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아너스플루트오케스트라는 플루트를 하고 있는 많은 전공자들이 소수 비전공자들을 도와 함께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 문화를 알리는데 의의를 둔다.

협연자로는 플루트 이예지·박여경·최현주와 해금 강민정이 참여하고, 게스트로는 첼로 우리라와 피아노 최보예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수준 높은 플루트 사운드로 슈베트의 '시인과 농부 서곡'을 비롯해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 교향곡, 실내악 등을 선별해 하나의 흐름 있는 멜로디로 엮어 수준높은 플루트 사운드로 들려준다.

뮤지컬 **헬로카봇 스페셜 시즌9 <전설의 용사를 찾아서>**

일 시 | 1월 10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11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대극장
입 장 료 | R석 7만원, S석 6만원
문 의 | ㈜밝은누리 1544-9621



갑작스러운 라인 일당의 공격으로 뒤를 쫓던 하이드와 카봇X. 그때, 라인 일당의 공격으로 시공터널이 붕괴되고 그 뒤를 쫓던 하이드는 시공터널 속에서 그대로 사라진다. 시공터널의 붕괴로 세상의 시간이 뒤죽박죽되고, 세상이 더 엉망이 되어버리기 전에 시공터널을 복구해야 하는 차탄! 기억을 잃은 하이드와 세상의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방법은 오직 하나 뿐. 시간과 차원의 균형을 지키고 있던 사라진 전설의 용사를 찾아내는 것으로, 과연 카봇X와 차탄은 전설의 용사를 찾아 무사히 하이드와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

베베핀뮤지컬 시즌2 두근두근 새친구

일 시 | 1월 17일(토)~18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대극장
입 장 료 | VIP석 7만7천원, R석 5만5천원
문 의 | ㈜애드칸 02-586-0622



▼▼
엄마, 아빠, 보라, 브로디와 함께 익숙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핀에게 새로운 이웃들이 집으로 찾아온다. 처음 보는 친구와 낯선 얼굴들, 꾸뻑꾸뻑 어색해하는 두 아이를 위해 함께 놀이할 것을 제안하는 엄마, 아빠들. 신기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마을 축제를 즐기는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신나는 모험과 즐거운 이야기들이 펼쳐질까? 그리고 핀과 민지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새해맞이 굿·연희 공연 굿(GOOD)이로구나!

일 시 | 1월 3일(토), 10일(토)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3일),
예지당(10일)
입 장 료 | S석 2만원, A석 1만원(10일은 전석 1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
2017년부터 전통문화 예술의 원형이 담긴 '굿'을 무대화하여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기획된,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신년 행사 '굿(GOOD)이로구나!'. 병오년에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굿과 연희를 선보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고유한 멋을 전달하고 새해 운수대통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축원의 장을 마련한다.

3일 <연희와의 만남> 대단한 놀이판 : 오늘의 광대 - 예인집단 아라한
사자춤의 환상콤비 일석(앞다리)과 이조(뒷다리)의 천수 잔치(=100세 잔치)가 열리는 날! 이제는 떼레야 뭘 수 없는 사이, 100세가 된 그들은 여전히 힘이 넘치고, 찰떡궁합의 호흡을 보

싱어롱뮤지컬 브레드이발소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여행>

일 시 |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2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소극장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드림엔터테인먼트 1600-1787



▼▼
오늘은 윌크의 생일파티가 열리는 날이다. 생일파티를 하는 순간 브레드이발소에 도착한 의문의 선물 상자. 선물상자에 소원을 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내 소원은 모두 함께 신나는 세계여행을 가는 거야!"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신비한 여행. 미국, 이집트, 일본, 중국, 인도 등 각 나라를 여행할 때마다 멋진 춤과 노래, 놀거리들이 한가득 펼쳐진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나타나는 깜짝 미션! 과연 브레드와 친구들은 협동심을 발휘해 미션을 해결하고 세계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여준다. 환상의 콤비 일석과 이조는 오랜 벗들과 오늘을 함께하는 기쁨을 노래하며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대단한 놀이판을 완성한다.
창작 연희 단체 예인집단 '아라한'은 한국의 전통 연희를 잇는 전문예술단체로 전통연희의 가치와 동시대성에 대해 탐구하여 가락의 원형부터 미디어아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창작활동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10일 <굿과의 만남> 비손 : 축원 - 우리소리 바라지
전통의 정서로 새해와 연말을 열고 닫는 예술적 의례인 '비손·축원'은 두 손을 모아 기원하는 행위와 덕담의 의미를 바탕으로 한 우리소리 바라지의 대표 레퍼토리이다. 오랜 기간 다듬어 온 전통 기반 창작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와 정서적 치유의 장을 제공한다.
우리소리 바라지는 한국 전통음악 및 연희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국악기만을 사용하여 창작함으로써 전통 고유의 예술성과 더불어 동시대를 추구하고 있다. 단체명인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알뜰히 돌보는 것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음악

2026 부산 메세나 신년 음악회

일 시 | 1월 8일(목)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 장 료 | 전석 무료(예약)
문 의 | 부산메세나협회 715-4715



▼▼
기업과 예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메세나협회의 2026 신년음악회. 한국 말러 해석의 거장 임현정과 최근 말러 교향곡 제1번으로 호평받은 울산 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콘서트홀의 탁월한 음향 속에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의 웅대한 스케일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특히 임현정은 '말러 신드롬'을 일으킨 지휘자로, 그의 지휘 아래 만들어질 새로운 '부울경 말러 사운드'는 이번 신년음악회의 중요한 음악적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과 공공 사회분야에서 헌신해온 이웃들을 초청, 새해의 희망을 함께 나눈다.

프로그램
베도벤/에그몬트 서곡
말러/교향곡 제1번 '거인'

F1963 겨울음악회2 F1963 바로크 음악회

일 시 | 1월 10일(토) 오후 4:00 F1963 석천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문화재단1963 760-1812



▼▼
F1963이 전하는 다섯 번의 연주회 중 두 번째 겨울음악회.
1부에서는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 중 '여왕의 도착', 토마소 알비노니의 '두 대의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바장조, 작품 9, 제 3번', 바흐의 '하프시코드 협주곡 라단조, BWV 1052'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요한 파헬벨의 '개는 변주곡 라장조',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로 진행된다.
양상블부산과 첼발로 윤연준이 빛과 그늘의 선율이 전하는 아름다움을 들려준다.

낙동의 첫 울림
낙동강 팡파레 & 말러 교향곡 8번

일 시 | 1월 10일(토)~11일(일) 오후 5:00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낙동아트센터 970-2771



서부산 최초의 클래식 콘서트홀인 낙동아트센터 개관을 축하하는 개관 페스티벌 첫 무대. 부산대 정수란 교수의 창작 작품 ‘낙동강 팡파레’를 시작으로 지역 예술의 자생력을 알리는 상징적 울림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대규모 편성의 말러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이 연주된다. 비수도권 최초의 연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이번 무대는 지역 연주자들로 구성된 ‘낙동아트센터 페스티벌 오케스트라(NAFO)’를 비롯해 부산·김해·창원 등 낙동강 유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무대를 완성한다. 지역 합창단, 연주자, 성악가 등 330여 명이 함께하는 초대형 무대로, 지역 예술 자체 역량만으로 세계적 규모의 감동을 구현한다.

On Stage Concert
그랜드 테너 스타즈

일 시 | 1월 20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해운대문화회관 기획공연 ‘On Stage Concert’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연주자가 하나 되는 참여형 콘서트다. 일반적인 공연처럼 객석과 무대가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관객이 무대 위에서 연주자를 마주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 경험하는 음악이라는 새로운 관람 문화와 공연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김보우, 김진훈, 성민기, 이신범, 피아노 오채영, 사화 김성민이 출연, 한국 가곡과 오페라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다시 찾아온 겨울

일 시 | 1월 18일(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010-5029-5807



첼리스트 이명로, 이석민, 플루티스트 신혜원, 피아니스트 박민희, 바이올리니스트 이지우가 선보이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이 울겨울에도 찾아온다. 닥터지바고의 ‘Lala’s Theme’로 시작해서 ‘마녀배달부 키키’, ‘메이플스토리’, ‘하울의 움직이는 성’, ‘이웃집 토토로’ 등 따뜻한 감성과 깊은 울림을 담은 지브리 클래식의 명장면들이 음악과 함께 새롭게 펼쳐진다. 울겨울, 음악이 만들어내는 가장 포근한 순간을 함께 만나보길 바란다.

2026 영도문화예술회관 신년음악회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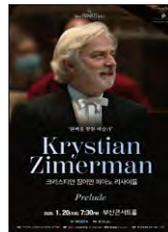
일 시 | 1월 22일(목)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차이콥스키의 서정성과 비발디가 그려낸 사계절의 풍경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영도문화예술회관 2026 신년음악회. 차이콥스키 ‘현을 위한 세레나데’가 지닌 따뜻한 울림과, 한국인이 사랑하는 클래식 레퍼토리인 비발디 ‘사계’ 전 악장이 새해의 시작을 장엄하게 열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33년 전통의 부산 대표 교향악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와 지휘자 오충근, 국내외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이 함께한다. 윤은솔은 이번 무대에서 새로운 해를 여는 ‘사계’ 협연을 통해 사계절의 자연을 생동감 있게 담아낼 예정이다.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월 20일(화) 오후 7:30 부산콘서트홀
입장료 | R석 17만원, S석 13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
문의 | ㈜마스트미디어 070-8680-1277



2026년 1월, 새해의 시작과 함께 이 시대 가장 독보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짐머만이 투어 리사이틀로 다시 한국을 찾는다. 안벽을 향한 집요한 탐구로 매 무대를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려 온 짐머만은, 한 시즌 50회 이하의 공연만을 고집하고 있다.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한 예술가인 그가 무대에 오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리사이틀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짐머만이 직접 설계한 피아노 세팅과 세밀한 조율을 통해 오롯이 ‘짐머만의 시간’으로 채워진다.

지브리 하우스 콘서트
당신이 듣고싶던 곡들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3:00 첼리스트의 서재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다양한 연주자들과 함께 섬세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을 만들어가며, ‘음악과 시’를 통하여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노래하고 나누면서 관객들을 ‘깊은 공감’과 ‘힐링의 시간’ 안으로 이끄는 첼리스트의 서재가 마련하는 지브리 하우스 콘서트. 지브리의 섬세하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아름다운 클래식 소품들이 한곳에서 어우러진 이 서재 안에서 바쁜 일상 속에 잠시 멈추어 음악과 함께 마음을 쉬어가고 각자의 추억과 꿈을 조용히 꺼내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F1963 겨울음악회3 현악 콰르텟과 피아노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4:00 F1963 석천홀
입 장 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문화재단1963 760-1812



F1963 겨울음악회 세 번째 무대인 '리수스 콰르텟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1부는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2번 가단조, 작품. 13'으로 시작해서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 마단조, 작품. 11'로 마무리된다. 2부에서는 리수스 콰르텟이 드보르작 '피아노 오중주 2번 가장조 작품. 81'을 들려준다. 제1 바이올린 이해니, 제2 바이올린 유지은, 비올라 장은경, 첼로 마유경과 피아노 조민현으로 구성된 리수스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한겨울의 공연장에 따뜻한 온기를 더할 것이다.

연극

WHO DONE IT - 시트콤연극! 한겨울 기막힌 사건

일 시 | 2025년 12월 6일(토)~2026년 1월 31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어댑터씨어터 1관
입 장 료 | 일반 3만5천원
문 의 | 어댑터씨어터 1관 0507-1337-1447



2025년 여름 최고 흥행작 <WHO DONE IT>의 두 번째 시리즈 '한겨울 기막힌 사건'이 임프로브 코미디로 돌아온다. 임프로브 코미디는 미국 브로드웨이,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이끌고 있는 즉흥극 형식의 코미디 장르로 배우들의 순발력, 유쾌한 상상력, 그리고 관객의 예측 불가능한 제안이 만나 매일매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웃음과 반전을 선사한다. 한겨울 광안리에서 당신만의 이야기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무대 위 연극에 참여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겨보길 바란다.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

일 시 | 1월 15일(목)~4월 5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오늘도 극한직업>은 사파리와 롤러코스터가 결합한 신개념 놀이기구 사파리 익스프레스에서 벌어지는 멸종위기 나무늘보의 '월드와이드 짝짓기 프로젝트' 이야기로 프로젝트 성공 후 포상금을 향한 각기 다른 목적으로 의지를 불태우는 사파리 익스프레스 직원들의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다. 승진을 꿈꾸는 구해효와 포상금으로 영화감독 꿈을 노리는 정대성, 사파리 동물들에게 찌심인 손희영, 그리고 방금 입사한 온리원까지! 과연 이들은 짝짓기를 무사히 성공시키고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뮤지컬

연극 스위치

일 시 | 1월 8일(목)~3월 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5:30
(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1588-2757



무서운 좌석, 덜 무서운 좌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4D 기술로 구현되는 감각적이고 화려한 공포의 결정판! 연극 '스위치'는 공포 연극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패러다임을 모조리 '스위치' 한다. 과거 극장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사하던 유기자는 고연출의 연속된 공연 흥행과 과거의 사건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직감하고 그의 수상한 행적을 쫓기 시작한다. 관객들은 무대 위 인물들과 함께 점점 깊어지는 공포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마주하게 된다. 특히 극장 속의 극장이라는 독특한 무대 배경이 최고의 몰입감을 선사한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일 시 | 2025년 3월 7일(금)~2026년 1월 4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2:00, 5:00,
일요일 오후 2:00(1/1일 오후 2:00,
월-화요일 공연없음) KNN시어터
입 장 료 | 전석 6만원
문 의 | KNN시어터 051-664-8400



주인공 영주는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동네 휴남동에서 서점을 오픈한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았으나, 묘한 휴남동 서점의 분위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 대부분 힘겨운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휴남동 서점을 통해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을 찾는다. 그리고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이는다.

뮤지컬 '위키드' 내한 공연

일 시 | 2025년 11월 13일(목)~2026년 1월 18일(일)
화-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7:3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후 3:00
(1/1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드림씨어터
입 장 료 | VIP석 19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A석 8만원
문 의 | 클럽서비스 1577-3363



오즈의 마법사를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쾌하게 뒤집은 그레고리 맥과이어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 <위키드>는 100년간 숨겨져 있던 오즈의 마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막힌 반전으로 풀려진다. 특히 객석에 입장하는 순간 맞이하는 12.4m 거대한 타임 드래곤, 수천 개의 비눗방울을 뿜어내는 글린다의 버블 슬라이딩과 무대 가장 높은 곳까지 치솟는 엘파바의 짜릿한 플라잉까지, 환상적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낭만박상환 께발산 키득가득의 **웃웃쇼**

일 시 | 1월 17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18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상시할인 4만2천원
 문 의 | 인스타컴퍼니 1899-3423



인기 크리에이터들의 쇼 공연을 통해 팬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스토리텔링 공연. 쇼츠 코미디 시리즈물의 원조 낭만박상환, Z세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는 코미디 듀오 께발산, 맥방과 공감대, 히어로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는 혼성 코미디 트리오 키득가득의 끼가 뭉쳤다, 대한민국 쇼츠 유투버들이 누구에게나 웃음과 공감을 형성하는 리얼리티쇼가 이제 시작된다.

뮤지컬 **집사TV <대저택문의 비밀> : par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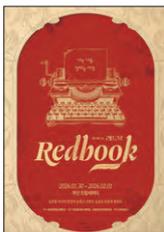
일 시 | 1월 3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4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KBS부산홀
 입장료 | R석 7만원
 문 의 | ㈜엔투게더 070-4108-9999



아이들의 최애 콘텐츠 집사TV와 뮤지컬이 만났다, 초통령 유투브 크리에이터 집사TV와 6명의 크루 '팀 대저택'. 아이들에게 선과 악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 삶에 대한 성찰과 통찰, 철학적인 내용을 대저택의 로블록스 세계관에 녹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을 뮤지컬로 선보인다. 문을 열면 물속 세상이 펼쳐지고, 또 강아지가 되어 버리는 방이 나타나는 대저택에서 이상하고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무너지는 집을 지키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뮤지컬 **레드북**

일 시 | 1월 30일(금) 오후 7:30, 31일(토) 오후 2:00, 6:30, 2월 1일(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타입커뮤니케이션 1522-2061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 <쇼맨_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배우> 등 함께하는 작품마다 큰 사랑을 받은 흥행보증수표 한정석 작가, 이선영 작곡가와 콤비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섬세한 해석으로 따뜻함을 선사하는 박소영 연출이 또 한 번 만나 <레드북>의 네 번째 장을 함께 써 내려간다. 숙녀보다는 '나'로 살고 싶은 언나 역에 옥주현, 아이비, 민경아. 사랑도 연애도 책오로지 배운 신사 중의 신사 브라운 역에 송원근, 지현우, 김성식. 그리고 15명의 배우가 선사하는 유쾌한 시너지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어린이뮤지컬 **백설공주**

일 시 | 1월 10일(토) 오전 11:00, 오후 1:00, 3:00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티켓링크 1588-7890



기분좋은극단 해미소가 보여주는 새로운 야심작 환상의 뮤지컬 <백설공주>가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 <백설공주>는 요즘 각박해져만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제작됐다.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디즈니 명작 중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 <백설공주>를 통해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자아실현, 풍부한 상상력을 통한 창의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가족극

2026 라이브가족뮤지컬 **신데렐라**

일 시 | 1월 2일(금)~3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00, 4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 신세계센터시티 9층 문화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조이컬쳐 070-4045-2302



언제나 웃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 신데렐라. 착한 신데렐라에게 놀라운 마법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요정 할머니가 주문을 외우면 순식간에 아름다운 드레스로 같이입고, 반짝이는 호박 마차를 타고 왕자님의 성으로 간다. 하지만 12시가 넘으면 마법은 풀리게 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재미있는 요소와 아름다운 호박 마차, 무대에서 변하는 신데렐라 드레스의 실감 나는 무대효과까지! 화려한 군무곡부터 신데렐라 왕자의 슬로곡, 계모와 언니들의 트리오 등 14곡의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다.

설민석의 **한국사대모험: 안중근**

일 시 | 1월 24일(토)~2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4:30 **백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3만9천원, S석 3만3천원
 문 의 | 더화랑이엔티 1800-6567



가족뮤지컬 제작사 ES생 활문화와 역사 강사 설민석, 두 최고의 만남이 선사하는 가족뮤지컬. 시간 여행자 설쌤, 온달, 평강은 안중근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과거로 향한다. 안응칠의 시절부터 동학농민군의 전투, 독립운동, 단치동맹을 결성하고 이토 히로부미 사살을 계획하는, 안중근이 소년에서 영웅이 되는 과정을 함께하며 그의 뜨거운 신념을 직접 목격한다. 그러나 이들의 여정을 가로막는 미스터리한 존재 X맨. 설쌤과 아이들은 올바른 역사를 지키기 위해 엑스맨 앞을 가로막는다. 과연 이들은 영웅의 역사를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

가족뮤지컬 **오즈의마법사**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1:00, 3: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 장 료 | 전석 4만원
문 의 | 놀이터 070-7807-0701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오즈의 나라로 가게된 도로시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두뇌가 없는 허수아비와 심장이 없는 양철 나무꾼, 용기를 얻고자 하는 사자와 집으로 돌아가려는 도로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물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심장, 그 누구보다 뛰어난 용기와 따뜻한 집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역할까지 한다. 서로의 믿음으로 보여주는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을 꿈을 향한 신나는 여행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배워본다.

급식왕2 - 좀비가 나타났다

일 시 |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30, 2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상시할인 4만2천원
문 의 | 인스타컴퍼니 1899-3423



아이들의 인기 콘텐츠 ‘급식왕’이 최강 코믹 뮤지컬로 찾아온다. 평화로운 급식왕 학교에 악당들이 또 일을 저질렀다. 바로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려 좀비들을 만들어 낸 것! 우리의 히어로 ‘화이트 구구’가 아닌 ‘레인보우 디바’가 나서지만 급식왕 최약체 디바로는 좀비들을 막을 수 없다. 모두가 말리지만 앞장서는 디바. 과연 급식왕 학교는 좀비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한 이야기에 춤과 노래가 더해져, 가족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족뮤지컬이다.

가족뮤지컬 **장화신은고양이**

일 시 | 1월 25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가장구청 차성아트홀
입 장 료 | 예매시 1만원
문 의 | 극단파랑새 0507-1386-8895



현대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나 금전적 풍요로 대변되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이야기하는 ‘장화신은 고양이’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품으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과 경쟁하기보다 믿고 돕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꿈을 꾸라고 이야기 한다. 네가 나를 믿어주고 아껴준다면 난 너에게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 줄 거야!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어른들에서 아이들에게 전염되고 가정에서, 초등학교에서 어디를 가리지 않고 퍼져있는 지금. 친구를 위해 아끼고 믿음을 준다는 것, 믿어준다는 것. 약속을 지키고 사랑을 한다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임을 알려준다.

가족뮤지컬 **겨울이야기**

일 시 | 1월 25일(일) 오전 11:00, 오후 1:00, 3: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31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 장 료 | 전석 2만4천9백원
문 의 | 010-2284-4842



사고로 다친 동생에게 눈의 여왕이 나타나 동생을 치료해 주고는 언니를 차가운 얼음왕국으로 데려가 버린다. 언니를 찾아 길을 떠난 동생은 언니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에 만난 친구들과 힘을 합쳐 얼음왕국으로 들어간다. 과연 친구들은 차가운 눈의 여왕 계락에서 무사히 언니를 구출해 낼 수 있을까?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눈의 여왕>을 바탕으로 한 판타지 가족뮤지컬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 웃음과 감동은 물론 아이들에게 따뜻한 교훈을 전한다.

콘서트

자우림 단독 콘서트

MIDNIGHT EXPRESS 2025-2026 : LIFE!

일 시 | 1월 3일(토) 오후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 장 료 | SR석 15만4천원, R석 14만3천원
문 의 | ㈜윌드쇼마켓 1566-5490



4년 만에 정규 12집으로 돌아온 우리나라 대표 록 밴드 자우림이 단독 콘서트 ‘MIDNIGHT EXPRESS’로 부산의 새해를 밝힌다. 자우림은 1997년 정규 앨범 ‘Purple Heart’로 데뷔 후 ‘하하하’, ‘스물다섯, 스물하나’ 등 주옥 같은 명곡으로 여전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유의 철학적 가사와 강렬한 사운드가 어우러져 ‘삼’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깊이 있게 담은 신보를 발매한 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자우림은 이번 공연에서 새 앨범의 사운드에 맞춰 폭발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잔나비 연말-연초 콘서트

합창의 밤 2026, The Party Anthem

일 시 | 1월 3일(토)~4일(일) 오후 5:00
 벅스코 제1전시장 1홀
입 장 료 | I석 17만8천원, M석 17만 8천원, J석 15만8천원, F석 12만8천원
문 의 | (주)모티브하이로 02-6953-6290



시즌 콘서트 특유의 온기, 관객의 합창, 잔나비의 서정적 연출이 맞물려 한 해의 끝과 시작을 잇는 대표적 연말 프로젝트로 자리 잡은 잔나비 콘서트. “목은해를 고이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근사한 상동리에 아래에서 모두 함께 노래하자”라는 메시지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겨울 파티형 콘서트로, 청중의 에너지와 잔나비성 서정이 공존하는 축제형 무대이다. 잔나비는 이번 무대에서 라이브 밴드의 에너지와 감각적인 무대 연출을 결합해 몰입도 높은 무대를 구현하며 관객들에게 잔나비만의 계절감과 음악적 서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2025-26 양파 전국투어 콘서트 HOMECOMING

일 시 | 1월 3일(토) 오후 6: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R석 14만5천원, S석 13만5천원
 문 의 | (주)모티브히어로 02-6953-6290



▼▼
 변치 않는 목소리로 우리의 감성을 채워 온 발라드 여제 양파가 새로운 앨범과 함께 전국투어 콘서트로 돌아온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8년간의 음악적 여정을 모두 담아, 대중의 향수를 자극할 히트 넘버들로 따스한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오랜 명곡들과 10월에 발표될 정규 6집 part.1의 신곡, 그리고 '복면가왕'에서 극찬받았던 레퍼토리까지, 양파가 직접 기획한 무대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시 기술이 더해져 이번 콘서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선물할 예정이다.

2026 이문세 'The Best'

일 시 | 1월 10일(토) 오후 6:00
 벅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 R석 17만6천원, RS석 15만4천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
 '이문세 더 베스트'는 전 세대가 사랑한 명곡을 중심으로, 최첨단 무대 연출과 이문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을 모두 담아낸다. 매 공연마다 새로운 감동과 감각적인 연출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온 만큼 이번 '더 베스트' 역시 타이틀에 걸맞은 최고의 경험을 예고한다.

오직 이문세만이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국내 최정상 스태프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매번 화제를 모았던 '더 베스트'만의 특급 이벤트와 서프라이즈도 한층 업그레이드돼 관객들에게 더욱 큰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유진 1st Fan Concert TWENTY

일 시 | 1월 10일(토) 오후 2:00, 6:3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R석 14만3천원, S석 12만1천원, A석 9만9천원
 문 의 | 스포엔터테인먼트 1522-4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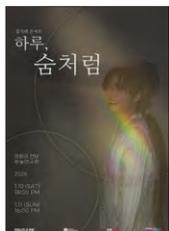


▼▼
 2024년 MBN <현역가왕> 우승으로 인정받은 실력파 트로트 가수 전유진이 어느덧 스무살이 되어, 두근두근 떨리는 20대의 첫 시작을 팬과 함께 하고자 한다.

전유진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단독 팬 콘서트로, 옛가요·OST·댄스·팬 참여 코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스무 살의 감성과 성장을 담아낸 무대이다. 새롭게 펼쳐지는 전유진의 20대, 그 설렘 가득한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한다.

김기태 콘서트 <하루, 숨처럼>

일 시 | 1월 10일(토) 오후 6:00, 11일(일) 오후 4: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7만원, R석 16만원, S석 13만원
 문 의 | 티켓링크 1688-7890



▼▼
 김기태 소극장 콘서트 '숨처럼'을 잇는 공연으로, 이번에는 부산을 찾아 관객들과 소통한다.

독보적인 허스키 보이스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만큼, 콘서트 '하루, 숨처럼'에서는 풍성한 세트리스트가 준비돼 김기태의 거친 보이스의 매력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다. '싱어게인' 우승자에서 믿고 듣는 발라더로 자리매김한 김기태는 이번 무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2025-26 엠씨더맥스 이수 콘서트 겨울나기

일 시 | 1월 17일(토) 오후 6:00
 벅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 R석 16만5천원, S석 15만4천원, A석 14만3천원, B석 13만2천원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
 겨울의 상징이다.

'겨울나기' 콘서트를 통해 진한 여운을 남겼던 이수는 이번 공연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신곡을 비롯하여 팬들의 요청이 컸던 명곡 무대들을 준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확장된 스케일과 공연장의 온도를 높일 웰메이드 무대로 관객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5-2026 이창섭 단독 콘서트 EndAnd

일 시 | 1월 17일(토) 오후 6:00, 18일(일) 오후 5: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석 15만4천원, R석 14만3천원, S석 13만2천원
 문 의 | (주)인엔터 1588-0766



▼▼
 2024-2025 솔로 투어 'The Wayfarer'에 이어 2년 연속 진행하는 이창섭의 단독 전국투어. 호소력 짙은 보컬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이창섭은 파워풀한 가창력과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미니 2집 '이별, -이별'을 발매한 이창섭은 직접 작사한 수록곡을 타이틀로 선정하며 무대와 팬들을 향한 진심을 담아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은 그의 음악 세계를 더욱 깊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2025-26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호시절 : 9.11MHZ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5:00, 25일(일) 오후 4:00 KBS부산홀
입 장 료 | J석 15만4천원, M석 14만3천원, H석 13만2천원
문 의 | NOLETICKET 1544-1555



지난해 콘서트 '호시절 : 시간여행'을 잇는 무대로 더 깊어진 감성과 탄탄한 음악 구성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는 장민호 전국 투어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헌정 앨범(Tribute Album) 'Analog Vol.1(아날로그 볼륨 1)'에 수록된 신곡들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히트곡들이 어우러져 한층 더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유의 따뜻한 무대 매너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으로 '믿고 보는 공연'이라는 평을 받아온 만큼, 이번 '호시절 : 9.11Mhz' 역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의 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온천천 빛 축제

일 시 | 2025년 12월 19일(금)~2026년 2월 1일(일) 부산 온천천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동래구청 550-4000

제203회 알바트로스 시낭송콘서트
신년 시낭송회

일 시 | 1월 17일(토) 오후 3:00
부산 영광도서 문화홀(9층)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010-6367-0149

· 출연/허영화 시인 외 시인 30명, 초대시인, 초청 음악가(테너 김이수, 소프라노 박현정)

2025-26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

일 시 | 1월 24일(토) 오후 6:00
백스코 제1전시장 1홀
입 장 료 |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2만1천원
문 의 | 스포엔터테인먼트 1522-4248



지난 40년 음악 여정을 되돌아보며, 그의 인생과 음악에 담긴 깊은 울림을 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나는 임재범이다'라는 부제로 '고해', '너를 위해', '비상', '이 밤이 지나면', '사랑', '크게 라디오를 켜고', '낙인' 등 40년의 세월이 만든 더욱 깊어진 감성으로 재탄생되는 감동의 무대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노래로 써온 40년의 시간, 그 깊은 울림으로 다시 한번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2026 최현우 아판타시아

일 시 | 1월 17일(토) 오후 3:00, 7:00, 18일(일) 오후 2:00, 6:00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 장 료 |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하늘이엔티 1688-6675



'아판타시아(Aphantasia)'란 쉽게 말해, 눈을 감고 상상을 해도 머릿속에 장면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다. 최현우 마술사는 여기에 "마술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예술인데, 상상이 불가능한 이들은 과연 마술을 느낄 수 있을까?", "이들에게도 마법 같은 놀라움을 전하려면, 우리 마술사들은 어떤 공연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아판타시아는 어떠한 마술 도구도 장치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무의식과 심리 반응만으로 설계된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최면 기반 마술 공연으로, 무대 위에는 오직 최현우와 관객들만이 존재한다.

행사

해운대 빛축제

일 시 | 2025년 11월 29일(토)~2026년 1월 18일(일) 해운대 해수욕장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구청 749-4000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2026년 2월 22일(일) 부산 광복로, 광복중앙로 일원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부산 중구청 6000-4000



금정 신중년더채움학습관

인문학 클래식 산책

일 시 | 1월 6일(화)-3월 31일(화) 매주 화요일 오후 2:00 금정 신중년더채움학습관
입 장 료 | 무료
문 의 | 신중년더채움학습관 519-5806~7

프로그램

- 클래식 왕초보를 위한 길라잡이- 클래식음악에 입문하기
-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부터 낭만파 까지- 서양 음악사 완전 정복
-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세계, 파헬렐의 캐논
-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감상
- 베토벤 교향곡 5번<운명>, 6번<전원>
- 19세기 낭만파 작곡가 슈베르트의 생애와 가곡
-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감상
- K아트 팝 가곡 싱얼롱, 가곡 부르기 등

김옥균의 인문학 클래식 뮤직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 명곡 연주회
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 1:00
다송뮤직 아트홀(UN평화공원 옆)
입장료 | 1개월 5만원
문의 | 김옥균 예술감독 010-6367-0149



▼▼
프로그램
· 클래식영화음악 O.S.T.감
상회
·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하이라이트
· [K-art pop 가곡] 신년
특집

-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
- 그리그-모음곡 '페르귄트'
- 모차르트의 탄생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다큐
기행
- 멘델스존-바이올린협주곡
-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전시

우연 또는 필연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2026년 1월
9일(금) 고은사진미술관
입장료 | 무료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
사진작가 강운구의 초기
작이자 첫 개인전인 <우
연 또는 필연>을 31년 만
에 다시금 선보인다.

전시명은 강운구의 작업
론을 설명한다. 누구에게
나 우연의 순간은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필연으로 포착된다. '우연이란 것도 필연이다'라
는 생각에서 비롯된 표현은 단순히 시리즈 제목
이 아니라, 사진가가 세상을 보고 작업을 대하는
태도에 가깝다.

총 12개의 섹션을 따라가다 보면, 이미지 사이의
느슨한 여백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사진의 이야기
가 펼쳐진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오후 5:30 입장마감, 매주 월요일,
1/1일 휴관)

1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 2:00,
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2만5천원
문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
대표 심성섭의 해설과 감
상소감으로 진행되는 오
페라 바움 해설이 있는 클
래식&오페라 감상회.

프로그램

오페라(바그너 반지 4부
작 완전체 초연 150주년기념)/프로코피예프 '전
쟁과 평화'(2일~3일), 제1부 '니벨룽의 반지'(9일~
10일), 제2부 '발퀴레'(16일~17일), 제3부 '지
그프리트'(23~24일), 제4부 '신들의 황혼'(30일~
31일)
콘서트/바흐 'B단조 미사'(5일, 10일), (송년
특집)베를린 필 제야음악회(12일, 17일), (번
스타인-말러 특집) 말러교향곡 제9번(19일,
24일), 알반 베르크 '바이올린 협주곡', 슈만 '교
향곡 제1번'(26,31일)

미피와 마법 우체통 in 부산

일 시 | 2025년 9월 11일(목)~2026년 1월
11일(일) 포디움다이브
입장료 | 성인 1만8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5천원
문의 | 포디움다이브 752-2200



▼▼
미피의 70년 메시지가 네
덜란드에서 도착했다! 전
세계 8,500만 부 이상 판
매된 스테디셀러 '미피' 시
리즈. 오랜 시간 사랑받아
온 미피가 무려 7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마법 우
체통에는 작가 덕 브루너가 미피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메시지를 따라가며 70년간 변함없이 이어진 미
피의 감성과 소중한 가치를 이번 전시를 통해 발
견해 보길 바란다. 귀여운 미피와 함께하는 특별
한 순간, 지금, 마법 우체통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8:00
(오후 7:00 입장마감)

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8일(목)·29(목)
오후 5:00 시네바움
문의 | 시네바움 010-2774-3455(문자예약)

- ▼▼
- 1월 5일(월) 오후 7시
- 미디어 리터러시(시민기자교실)
 - 오리엔테이션 &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 1월 8일(목) 오후 5시
- 중국어로 읽는 당시삼백수
- 1월 12일(월) 오후 7시
- 모두를 위한 미술사-보는 미술 읽는 미술-해석
하는 미술
- 1월 19일(월) 오후 7시
- 시네바움 스크리닝-시네마 안운은: 보이지 않
는 영화들
- 1월 26일(월) 오후 7시
- 모두를 위한 미술사-미술의 언어: 도상과 양식
- 1월 29일(목) 오후 5시
- 하이쿠 산책

다시, 낭만의 시대

일 시 | 2025년 11월 15일(화)~2026년 10월
11일(일) 뮤지엄 원
입장료 | 성인 1만8천원, 청소년 1만5천원,
어린이 1만3천원
문의 | 뮤지엄 원 731-3302



▼▼
<다시, 낭만의 시대>는
19세기 낭만주의의 개념
을 재해석하여 현재로 다
시 소환해 내는 전시이다.
기형적인 현대사회를 살
아가고 있는 예술가가 매
우 주관적인 철학과 시각에 기인하여 작가의 자
유로운 상상력에 의존해 작품으로 치환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관람객에게 관습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의 적나라한 현장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통해 기존 사회적 체계가 만들어 낸
윤리와 관습을 조건 없이 따르는 대신, 구성원 스
스로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삶을 개척하여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
고자 한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마감)

짱구야캠핑가자! - 두 번째 이야기

일 시 | 2025년 11월 22일(토)~2026년 2월 1일(일) 부산 피아크 2층
 입장료 | 성인 2만원, 청소년·어린이 1만8천원
 문 의 | 우리공간연구소 1566-1957



짱구와 함께 떠나는 캠핑 어드벤처展, 짱구 페스티벌 <짱구야 캠핑가자! 두 번째 이야기>. 짱구와 함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리뉴얼 된 '짱구야 캠핑가자!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계절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첫 번째 이야기와 다르게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조닝 구성! 실물 크기로 재현된 애니메이션 속 명장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AR 미션, 부산에서 만나는 짱구만의 유쾌한 감성 연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초대형 랜드마크 조형물까지! 국내 최대 크기의 짱구 조형물과 함께 짜릿한 인증샷을 남겨보자.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7:30 (오후 6:30 입장마감)

2025 부산현대미술관 플랫폼 나의 집이나

일 시 | 2025년 11월 29일(토)~2026년 3월 22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실 4
 문 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

BNK부산은행 갤러리 1월 전시

일 시 | 1월 9일(금)~29일(목) BNK부산은행갤러리
 문 의 | BNK부산은행갤러리 246-8975

9일(금)~15일(목) <QUEEN'S MOMENTUM>



한국적인 오브제인 달항아리에 계절의 생명력과 인연의 소중함을 담아낸 작가 송현영, 공감과 웃음, 희망을 전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

2025년 금고미술관 투어전시 2025-2026 금고, 커넥티드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2026년 3월 2일(월)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지하 1층 금고미술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607-8000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하에는 시간이 멈춘 공간이 있다. 한때 화폐와 금고를 보관하던 견고한 금고들은 이제 예술과 역사가 교차하는 장소로 다시 태어난다.

이번 전시는 1호부터 4호까지의 금고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 역사와 예술을 연결한다. 금고의 두꺼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역사의 증인이자 예술의 동반자가 된다. 과거가 보관되고 미래가 창조되는 이곳에서, 시간과 예술이 커넥티드 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

- 관람시간/오전 9:00~오후 6:00 (오후 5:00 입장마감)

는 작가 광미경, 자신만의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작가 최민정이 참여한 'QUEEN'S MOMENTUM'은 각기 독립적이었던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이 만나 강력한 추진력(MOMENTUM)을 만들어내는 여정을 선보인다.

20일(화)~29일(목) <뺑과 장미> 참여작가들의 삶의 이야기를 캔버스 위에 정직하게 빚어낸 전시로 일상 속에 작고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한다. 작가들은 삶의 궤적(뺑)을 따라가는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깊은 열망이 담긴 그림 이야기(장미)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예술이 우리의 삶에 선사하는 치유와 힘을 전달한다.



- 관람시간/오전 11:00~오후 6:00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전

일 시 | 1월 2일(금)~3월 29일(일) 동구문화플랫폼
 입장료 | 성인 1만원, 청소년·어린이 8천원
 문 의 | 동구 문화플랫폼 465-4070



고흐의 대표적인 시기를 따라 다섯 개의 테마로 구성되며, 그의 치열한 창작 여정을 깊이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된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플리카전'.

초창기 농민 화가 시절부터 파리에서의 수련기, 유명한 작품을 남긴 남부 프랑스의 생활, 생레미 병원에서서의 시간, 그리고 오베르의 마지막 나날에 이르기까지, 고흐의 짧지만 강렬했던 예술 세계를 정밀하게 재현한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소개한다.

- 이번 전시를 통해 깊은 위로와 감동을 느끼고, 예술이 전하는 진정한 치유의 힘을 발견하길 바란다.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마감)

TV애니메이션 체인소 맨展

일 시 | 1월 15일(목)~5월 31일(일) 덕스 부산
 입장료 | 성인 2만2천원, 청소년·어린이 1만8천원
 문 의 | 예스24 1544-6399



악마를 사냥하는 다크 히어로의 활약! 글로벌 OTT 히트작, 애니메이션 <체인소 맨> 전시가 드디어 부산에서 개최된다. 애니메이션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재현한 주요 캐릭터들의 실물 피규어와 희귀 복제 원화 등의 제작 자료는 물론 한정 굿즈와 덕스포도 한정 프레임으로 <체인소 맨> 세계관에 빠져드는 경험을 선사한다.

체인소 맨, 마키마, 파워, 하야카와 아키까지 애니메이션 속 주요 캐릭터를 실물 크기로 사실감 넘치게 재현한 피규어를 통해 생생한 감동과 쾌감을 만끽해 보길 바란다.

- 관람시간/오후 12:00~오후 7:00 (오후 6:00 입장마감)

전지적 관객 시점 · 오늘도 공연장에 갑니다

라흐마니노프의 언올로 위어간 저녁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5회 정기연주회
<RACHMANINOFF>

글 김애나 양산시 물금로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25회 정기연주회 <RACHMANINOFF>를 관람했다. 새벽부터 움직인 하루는 분주했고, 퇴근 후 곧바로 공연장으로 향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좌석에 앉아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그날 하루를 채우고 있던 피로와 복잡한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깊고 부드럽게 마음을 감싸주는 느낌이었다. 섬세하면서도 힘 있는 피아노 연주와 풍성하게 울려 퍼지는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특별한 설명 없이



도 자연스럽게 공연에 빠져들게 했다.

이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고, 연주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함께 간 친구가 “이 무대를 위해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고 말했는데,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여유로운 연주 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쌓여 있었을 것 같았다. 친절함 스태프들의 안내까지 더해져 공연 전반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 이번 연주회는 일상을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충전의 시간이었다.

‘두드림’으로 완성된 한국의 소리와 몸짓

부산시립무용단 제92회 정기공연
<두드림: Do Dream>

글 홍자영 부산진구 가야대로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용을 넘어 한국 전통예술의 집합체라 불러도 손색없는 무대였다. 공연의 시작과 끝을 장식한 거대한 북은 전체를 관통하는 상징처럼 구조를 단단히 받쳐주었고, 큰 북 위에서 무용수가 춤을 추며 아래 무용수와 호흡을 맞추는 장면은 신선한 충격으로 남았다. 태평소를 비롯한 전통 악기와 정가의 조화는 한국의 소리와 몸짓이 만들어내는 깊은 울림을 전했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무용수들과 전통 영상이 어우러진 무대는 시선을 사로잡았다. 악기에 바퀴를 달아 대형을 바



꾸는 장면과 하나의 북을 두 사람이 나눠 연주하는 퍼포먼스는 정교하면서도 역동적이었다. 특히 장구 솔로에 관객의 추임새가 더해진 즉흥적인 ‘잼’은 공연장을 하나의 장단으로 묶으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악기를 두드리는 행위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두드림을 겹쳐 표현한 제목처럼, 공연 내내 멈추지 않는 울림은 관객의 마음까지 두드렸다. 올해 본 공연 중 가장 완성도 높은 무대 중 하나로, 외국인 관객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다.

NEW BOOK



야만의 바다

하동현 장편소설
예미 / 1만 8,000원

“안개가 완전히 걷혔다. 바다를 가르며 거친 엔진소리에 덩달아 자신의 맥박이 힘차게 뛰는 것 같았다. 그래, 이제 다시 출항이다.” 하동현 작가의 장편 해양소설 <야만의 바다> 속 문장에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선박이 떠오른다. 하동현 작가는 부경대학교(구 수산대학교) 어업학과를 졸업했다. 한국 원양어업이 세계 정상에 있던 시절, 항해사와 선장으로 오랜 세월 바다 위에서 삶을 일궈왔다. 산문집 <양망일기>, 소설집 <아디오스 땅고> 등에서 거친 바다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해양산업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 소설은 한국 원양어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선장 ‘이광조’의 실화에 가까운 삶과, 그 배에 승선했던 젊은 항해사 ‘황승현’의 시선을 통해 격동의 한국 해양사를 웅혼하게 그려낸 본격 해양 서사이다. 한때 국가 전체 수출액의 5%를 담당했던 원양어업의 명암(明暗)이 이 소설의 거친 파도 속에 담겨 있다.



춤추는 사상: 일상을 뒤집는 빛과 춤의 다큐멘터리

이준희 사진·글
스미다 / 2만 2,000원

부산 사상산업단지의 공간을 재창조한 프로젝트 사진집. 이준희 작가는 현재 국내 아트 스포츠 사진을 개척하며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산장애인체육회와 함께하고 있으며, 부산시 사상구청과 ‘춤추는 사상’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모두가 서울로 향할 때 부산으로 역주행한 사진작가 이준희는 부산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부산 시민이 쌓아온 다양한 사운드와 헤리티지를 발견했다. 부산 시민이 된 작가는 “부산을 위해 사진작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했다. 2025년에 부산 사상구청과 협업하여 사상공단의 공장들과 사상구의 일상 장소들을 프레임에 담기 시작했다. 세탁소, 이발소, 버스 회사를 비롯해 로봇 공장, 신발 공장 등 우리가 잊었거나 인식하지 못한 일상의 공간들이 다채로운 조명과 현대무용가들의 춤으로 뮤지컬 무대처럼 바뀌었다.



발레, 미술관에 가다

한지영 지음
북피움 / 2만 6,000원

오랫동안 발레는 지상의 인간들이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천상의 예술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한국 무용수들이 세계 최고 무용수로 우뚝 서고, ‘스테이지 파이터’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등, 취미로 발레를 배우며 발레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이 책이 발레와의 거리를 더 좁혀준다. 프랑스 화가 에드가르 드가, 툴루즈 로트레크 등을 비롯해 많은 화가가 남긴 170여 점의 그림과 함께 읽는 발레 인문 교양서다. 한지영 저자는 현재 국민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겸임교수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과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에서 강의하며 무용 이론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발레를 담은 명화가 포착해 낸 무대 위나 일상 속 무용수, 발레 관련 인물 초상화, 당대 흐름 속 발레의 위치를 짐작하게 하는 역사화, 작품 포스터 속 발레리나 형상 등. 이 그림들은 무용의 기록이자, 시대가 발레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January 2026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2025 송년음악회 성료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회원들을 위한 2025 하반기 송년음악회가 12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로비음악회에서는 장문호 회장을 비롯해 후원회원 및 동반인 90명과 차재근 대표 이사를 비롯한 (재)부산문화회관 직

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필로스 색소폰 앙상블’을 초청,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색소폰 연주 무대가 펼쳐졌다. 로비음악회는 후원회원들을 위해 매년 2차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로비에서 진행해오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창립총회를 통해 정식 발족한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인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 후원활동 및 기부문화 조성에 힘써오는 한편,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이 품격 높은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무인카페 & 무인편의점 오픈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층에 AI 로봇카페 ‘b:eat(비트)’와 무인편의점 ‘PnGo(피앤고)’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b:eat(비트)’는 상주 인력 없이 주문부터 결제, 제조, 픽업 등 전 과정이 무인으로 이뤄지는 미래형 로봇카페로, 좋은 품질의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의 커피, 음료를 맛볼 수 있다. ‘PnGo(피앤고)’는 고객이 스스로 결제할 수 있는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의 편의점으로, 공연 관람 전후 짧은 시간에도 간편한 결제와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오픈에 따라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부산문화회관을 찾는 관람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부산문화회관, 국립부경대학교 부산인권포럼과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이 지난해 12월, 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 부산인권포럼(대표 구수경)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지난 12월 11일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재)부산문화회관과 국립부경대학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특히 인접해 있는 양 기관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취업 연계 교육과정 설계, 현장실습 및 관련 교과목 운영, 교내외 행사 및 시설물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12월 15일, 성희롱·성폭력 없는



부산 문화예술계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해 부산인권포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부산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성희롱·성폭력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담 및 폭력예방교육 등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도 SNS서포터즈·주부홍보단 해단식 개최

지난 2025년 한 해동안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던 제11기 SNS서포터즈와 제3기 주부홍보단이 지난 12월 15일 해단식을 갖고 일년 간의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했다.

(재)부산문화회관 SNS서포터즈는 그동안 (재)부산문화회관 및 부산시립예술단이 주최하는 공연, 전시 소식을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하며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려왔다.

또한 한 가정의 교육, 문화와 소비의 주체가 되는 주부들을 서포터즈로 참여시킨 주부홍보단 역시 그동안 SNS 채널 홍보를 통해 우리 기관과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2025년도 온라인 홍보 활동 결과 발표와 수료증 수여,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었다.



BSCC

P R O G R A M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6 상반기 공연프로그램 안내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전화예매 | 대표번호 051-607-6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주말 및 공휴일 제외)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7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분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취소마감은 공연 전일 17시
공연 1일 전~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문의 : 051-607-6000

2026. 1-6월

January - June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가족뮤지컬 <구름빵>

문화 | 중극장 2026. 1. 23.(금)-24.(토)
 금요일 10:30am, 2:00pm, 토요일 11:00am, 2:00pm
 ※금요일 오전 회차는 단체관람만 가능
 R석 40,000원 S석 20,000원
 • 프로듀서 | 정유란 • 연출 | 이태린 • 극본 | 서희정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1인 1좌석)



당신의 삶이 영화가 되는 시간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문화 | 중극장 2026. 3. 14.(토) 2:00pm
 R석 55,000원 S석 44,000원
 • 출연 | 홍진호(첼로), 박현수(보컬), 조운성(피아노), 석다연(드럼), Sean Pentland(베이스)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피와 욕망, 권력에 눈먼 자들의 광기

연극 <칼로막베스>

문화 | 중극장 2026. 4. 4.(토)-5.(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



사실 그 날, 용궁에선 기록에 남지 않은

비밀스러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사랑채 2026. 5. 2.(토) - 7. 25.(토)
 평일 10:30am(단체관람), 토요일 및 공휴일 11:00am, 2:00pm
 *일요일 및 월요일 공연 없음
 전석 30,000원
 ※ 관람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부산시민회관

기억이 불러온 가상은 현실의 위로일까, 망상일까

연극 <시들라시웅>

시민 | 소극장 2026. 1. 16.(금)-17.(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전석 50,000원
 • 연출 | 이태린 • 작가 | 최양현
 • 출연 | 송철호, 신사랑, 유연, 안창현, 임지영, 송예준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공연계 최고 권위의 상 "TONY AWARDS!" 6관왕 수상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시민 | 대극장 2026. 2. 1.(일)-2. 8.(일)
 화-목 7:30pm, 금요일 3:30pm, 7:30pm, 주말 2:00pm, 6:30pm
 R석 90,000원 S석 80,000원 A석 70,000원
 • 작작사 | 박천후 Hue Park
 • 작작곡·편곡 | 윌 애런슨 Will Aronson
 ※ 관람연령 | 14세 이상 관람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6. 2. 27.(금), 6. 19.(금), 8. 21.(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출연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자 - 하이든

시민 | 소극장 2026. 2. 28.(토) 11:00am, 2:00pm
 전석 30,000원
 • 출연 | 라보(시간여행 가이드), 라보챔버오케스트라
 ※ 관람연령 | 30개월 이상(1인 1좌석)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발레의 정수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시민 | 대극장 2026. 3. 19.(목)-20.(금) 7:30pm
 VIP석 100,000원 R석 80,000원 S석 6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국립발레단
 • 음악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 안무 | 유리 그리고로비치(Yuri Grigorovich)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진짜 내 안의 나를 찾아서

뮤지컬 <인사이드 미>

시민 | 소극장 2026. 3. 28.(토) 2:00pm, 5:0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연출 | 서홍석 • 음악안무 | 이윤희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데뷔 70주년을 맞은, 건반위의 구도자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시민 | 대극장 2026. 4. 3.(금) 7:30pm
 R석 100,000원 S석 70,000원 A석 50,000원
 • 출연 | 백건우
 ※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동서양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시민 | 소극장 2026. 4. 10.(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김 솔 다니엘(첼로), 윤다영(가야금)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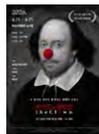
무속음악의 펑키(funky)함을 전하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해차지스

시민 | 소극장 2026. 4. 17.(금) 7:30pm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출연 | 추다해(리더, 보컬), 시문(기타), 김재호(베이스), 김다빈(드럼)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제45회 서울연극제 자유경연작 부문 '최우수상' 수상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시민 | 소극장 2026. 4. 23.(목) 2:00pm(단체관람),
24.(금) 2:00pm(단체관람), 7:30pm, 25.(토) 2:00pm
전석 40,000원
• 원작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연출 | 홍성연
• 출연 | 강나리, 구옥분, 류찬
※관람연령 | 7세 이상 관람



시민의 일상에 예술을 더하다!
<2026 시민뜨락축제(상반기)>

시민 | 야외광장 2026. 4-5월 예정 12:10pm
무료



하추핑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시민 | 대극장 2026. 5. 2.(토) 5:00pm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
• 출연 | 지휘자 김성진, 디토 오케스트라, 뮤지컬 배우 6인
※ 관람 연령 | 24개월 이상 관람(1인 1좌석)



화류비련극의 레전드가 온다
화류비련극 <홍도>

시민 | 대극장 2026. 6.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원작 | 임선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 각색/연출 | 고선웅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집착에 눈 먼 자들이 벌이는 그로테스크한 난장
창극 <살로메>

시민 | 대극장 2026. 8. 29.(토) 3:00pm
R석 70,000원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출연 | 김준수의 (추후공개) • 원작 | 오스카 와일드 Salome
• 극본 | 고선웅 • 연출 | 김시화
※ 관람연령 | 13세 이상 관람(중학생 이상)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 부산콘서트홀 / **낙동** 낙동아트센터 / **금정** 금정문화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2026 신년음악회

시민 | 대극장 2026. 1. 15.(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바이올린 | 김현서



제627회 정기연주회
DIGNITY

부산 | 콘서트홀 2026. 1. 29.(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황필주

제628회 정기연주회
겨울, 꿈

시민 | 대극장 2026. 2. 26.(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피아노 | 신창용



기획연주회
실내악 시리즈 I

문화 | 중극장 2026. 3. 20.(금) 7:30pm



제629회 정기연주회
축제

부산 | 콘서트홀 2026. 3. 26.(목) 7:30pm
낙동 | 콘서트홀 2026. 4. 1.(수)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 바이올린 | 요한 달레네



©Mats Backer

기획연주회
실내악 시리즈 II <중인 I>

문화 | 챔버홀 2026. 4. 15.(수) 7:30pm



제630회 정기연주회

EROICA

부산 | 콘서트홀 2026. 4. 24.(금)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백승현
• 피아노 | 김다솔



기획연주회

우리 아이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5. 6.(수) 11:00am, 7:30pm



제631회 정기연주회

부산, 말러

부산 | 콘서트홀 2026. 6. 18.(목) 7:30pm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 지휘 | 홍석원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부산-광주 교류음악회 'Harmony'

낙동 | 콘서트홀 2026. 3. 17.(화) 7:30pm
• 지휘 | 이기선, 임창은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광주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어린이 뮤지컬 '꿈을 향해!'

문화 | 중극장 2026. 5. 1.(금) 7:30pm,
5. 2.(토) 11:00am, 3:00pm
• 지휘 | 엄보영



제200회 정기연주회

벤저민 브리튼 'War Requiem'

부산 | 콘서트홀 2026. 5. 28.(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광주-대구시립합창단,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201회 정기연주회

2026 SUMMER FANTASY

문화 | 중극장 2026. 7. 23.(목) 7:30pm
• 지휘 | 엄보영
• 타악 | 이성하
• 연주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02회 정기연주회

현대합창의 밤VI

문화 | 중극장 2026. 9. 18.(금) 7:30pm
• 지휘 | 이기선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3.(화)-11. 5.(목) 7:00pm
• 지휘 | 이기선



제203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A Child of Our Time'

부산 | 콘서트홀 2026. 12. 4.(목) 7:30pm
• 지휘 | 이기선
• 합창 | 부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제93회 정기공연

바다결에 오래였으나 바다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시민 | 대극장 2026. 4. 24.(금) 7:30pm,
4.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이정운의 댄스살롱 - 한 여름밤의 댄스파티

장소 미정 2026. 7. 24.(금) 7:30pm, 7. 25.(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제94회 정기공연

동백

시민 | 대극장 2026. 10. 30.(금) 7:30pm, 10. 31.(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특별공연

홀로출출_나의 길 나의 춤

문화 | 중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3:00pm
• 예술감독 | 이정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김정구민과 함께하는 2026 신년음악회

금정 | 금빛누리홀 2026. 2. 12.(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영남 風流’

시민 | 대극장 2026. 3. 26.(목) 7:30pm
• 지휘 | 이동훈, 이건설



특별연주회
국악 브런치 콘서트 **‘국악 살롱, Salon’**

문화 | 중극장 2026. 4. 23.(목) 11:00a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4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 **‘사제 동행’**

문화 | 중극장 2026. 5. 14.(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5회 정기연주회
국악의 날, 다시 울리는 우리 소리

문화 | 중극장 2026. 6. 5.(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예술교육
큰별쌤 최태성과 함께하는
‘역사 속 우리 음악 이야기’

시민 | 대극장 2026. 7. 2.(금)-7. 3.(금) 10:30a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열대야 국악 재즈 콘서트

문화 | 중극장 2026. 8. 11.(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6회 정기연주회
부산, 청년

문화 | 중극장 2026. 9. 17.(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중극장 2026. 9. 30.(수)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7회 정기연주회
창작 위촉곡 시리즈VI
‘2026 부산 국악작곡 콩쿠르’

문화 | 중극장 2026. 10. 29.(목)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특별연주회
제51회 청소년 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문화 | 중극장 2026. 11. 24.(화)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제238회 정기연주회
2026 송년음악회 **‘No Boundary’**

시민 | 대극장 2026. 12. 18.(금) 7:30pm
• 예술감독 | 이동훈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오즈의 마법사’**

문화 | 중극장 2026. 2. 28.(토) 4:00pm, 7:00pm,
3. 1.(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 라이먼프랭크 바움
• 각색, 연출 | 윤준기 • 작곡 | 강현민
※ 관람연령 | 전체 관람가



특별공연
가족뮤지컬 **‘신데렐라_너의 뜻대로’**

문화 | 사랑채극장 2026. 4. 3.(금)-4. 25.(토) 평일 11:00am,
토요일 11:00am, 2:00pm
전석 12,000원
• 대본, 작사 | 김영화 • 작곡, 음악감독 | 이영재
• 작사, 연출 | 김지용 • 안무 | 홍충민
※ 관람연령 | 전체 관람가(48개월 이하 부모동반관람 권장)



제82회 정기공연
타오

문화 | 중극장 2026. 7. 2.(목)-7. 3.(금) 7:30pm,
7. 4.(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김세화
• 각색, 연출 | 허석민
※ 관람연령 | 초등학교생 이상 관람가



제83회 정기공연
메데이아

시민 | 소극장 2026. 9. 10.(목)-9. 11.(금) 7:30pm,
9.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원작 | 에우리피데스
• 연출 | 박용희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미스 줄리'

시민 | 소극장 2026. 11. 27.(금) 7:30pm, 11. 28.(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
• 연출 | 최용혁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인형의 집'

시민 | 소극장 2026. 12. 4.(금) 7:30pm, 12. 5.(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헨릭요한 입센
• 연출 | 이혁우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제84회 정기공연
스타프로젝트 '바다로 가는 기사'

시민 | 소극장 2026. 12. 11.(금) 7:30pm, 12. 12.(토) 4:00pm
전석 20,000원
• 작 | 존 밀링턴 싱
• 연출 | 차승호
※ 관람연령 | 중학생 이상 관람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3. 1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낙동 | 콘서트홀 2026. 5. 14.(목) 7:30pm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6. 27.(토) 5:00pm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6. 7. 18.(토) 5:00pm



제80회 정기연주회

부산 | 콘서트홀 2026. 9. ※ 날짜미정
• 지휘 | 백승현



특별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0. 28.(수) 7:30pm
• 지휘 | 백승현



제81회 정기연주회

문화 | 중극장 2026. 12. 16.(수) 7:30pm
• 지휘 | 백승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Friendly Concert

문화 | 중극장 2026. 3.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69회 정기연주회
뮤지컬 '몽쥐 팔쥐'

문화 | 중극장 2026. 5. 30.(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0회 정기연주회
더 큰 꿈을 향하여... Dreams to Dream

문화 | 중극장 2026. 9.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특별연주회
제37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중극장 2026. 11. 6.(금)-11. 7.(토) 5:00pm
• 지휘 | 천경필



제171회 정기연주회
우리 함께 노래해요 We sing together

문화 | 중극장 2026. 12. 19.(토) 5:00pm
• 지휘 | 천경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 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 제휴업체 할인(사정 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MEMBERSHIP GUIDE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공연 관람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수(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
- *차량번호 등록 시 할인 적용(1대에 한하며, 신청 후 7일 이내 등록)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무료 및 일부공연 제외)
- 부산 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VIP



- 연회비** 10만원
- 초대권** 8매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 할인매수** 6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 연회비** 5만원
- 초대권**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 할인매수** 4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 연회비** 3만원
- 초대권** 2매
(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 할인매수** 2매(공연당)
-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 (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가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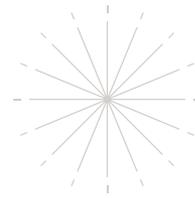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0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 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취소 불가능)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됩니다. 게재된 공연은 2026년 예매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매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연극 <시물라시옹>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7:30
1월 1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가족뮤지컬 <구름빵>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30, 오후 2:00
1월 24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Sound of Busan : 올 댓 차이콥스키 **종료**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7:30
6월 19일(금) 오후 7:30
8월 21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토요일의 키즈 클래식

<라보'의 클래식 상사 - 하이든>

2026년 2월 28일(토) 오전 11:00,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20매)

시네마 파라디소 <Begin Again> **종료**

2026년 3월 14일(토) 오후 2: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10매)

뮤지컬 <인사이드 마> **종료**

2026년 3월 28일(토) 오후 2:00,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10매)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종료**

2026년 4월 3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0매)

연극 <칼로막베스> **종료**

2026년 4월 4일(토) 오후 3:00
4월 5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10매)

살롱 드 국악 I - 첼로가야금

2026년 4월 10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살롱 드 국악 II - 추다혜차지스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0매)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The Clown>

2026년 4월 23일(목) 오후 2:00
4월 24일(금) 오후 2:00, 오후 7:30
4월 25일(토)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금 19:30, 토 14:00 회차별 10매)

블링블링 캐치! 티니핑 심포니

2026년 5월 2일(토)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화류비련극 <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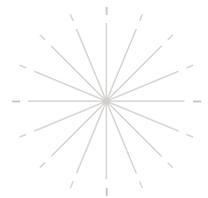
2026년 6월 12일(금) 오후 7:30
6월 13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20매)

창극 <살로메> **종료**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20매)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1인 1매에 한해 예매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명예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홍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주)코팩스 회장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재)대송문화재단 이사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주)한성테크 회장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손명진
(전)바르게살기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 여성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태진
류용주
손명찬
오권석

(주)플라시스템 대표이사
삼신교통(주) 회장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주)성원 회장

임말섭
정문흠
정상배

(주)미성하이텍
(주)태영버스 회장
한국라이엔기초건설(주) 회장

* 이사회원

강대일
강서룡
곽국민
권한상

웰딩시스템 대표
(주)효승테크 대표이사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김성우
김암우
김현태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주)상명 회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정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신한춘 (주)금정화운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성규 김해주차장 대표
-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 이은석 (주)엘제이 이앤에스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중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허정은 (주)제이세라믹 대표이사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에셋 대표이사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 성원기 손내과의원 원장
- 손혜경 하나유치원 원장
- 안금주 경성대학교 교수
- 안진우 세무법인 인성
-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상수 엘가 대표
-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에리카정애 명성피씨리 주식회사
- 이종원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이현숙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원장
- 정명선 정민섭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 정의화 (전)국회의장
-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 조준형 문우당서점 해광출판사 대표
- 하정태 (주)일신케미칼 사장
-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허혜영

※ 회원명 가나다순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센터(607-6072)

따뜻한 감성동화

대한민국 대표 가족뮤지컬

구름비바

| 프로듀서 | 정유란
| 극본 | 서희정
| 작곡 | 신경미
| 연출 | 이태린
| 안무 | 이서은



2026. 1. 23.(금) 10시 30분, 14시 / 1. 24.(토) 11시, 14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부산문화회관 | 주관 | (주)문화아이콘 | 관람연령 | 전체관람가(추천 연령 4-6세) | 티켓 | R석 4만원, S석 2만원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1월 23일(금) 10:30회차 단체관람만 가능



<예술의초대>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술의초대>는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구독 가능합니다.

정기회원이 아닌 경우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을
비롯 금정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등 구(區) 문화회관,
그리고 서면 영광도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술의초대>에 공연·전시·행사 일정을 게재하려면 **전월 15일까지**

관련 내용 및 사진(포스터)을 **E-mail(book2580@bscc.or.kr)**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단,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전시·행사에 한해 가능합니다.

<예술의초대>에서는 매월 유료 지면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료광고 게재를 원하시면
고객지원팀(607-6071)으로 문의 바랍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뉴스레터 낱말퍼즐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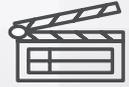
퍼즐풀기

- 2025. 12. 26.(금)~2026. 1. 11.(일)
- 정답 및 당첨 발표 : 2026. 1. 16.(금)
- ※ 정답 및 당첨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월간지 <예술의초대> 지면을 통해 발표됩니다.
- ※ 기프트콘은 기재하신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됩니다.

2025년 12월호 낱말퍼즐 당첨자 명단

010-****-2011	010-****-3867	010-****-1466
010-****-0864	010-****-0593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COUPON



공간 소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지하 242
(지하철 2호선 대연역사 내)
051) 611-8518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 977-8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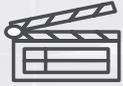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공간 소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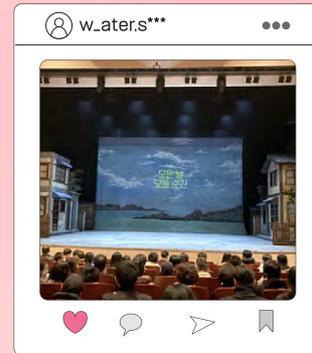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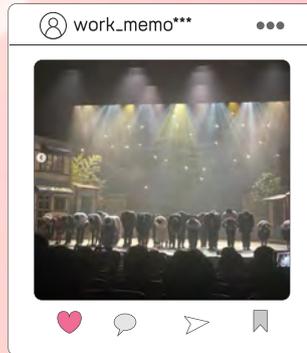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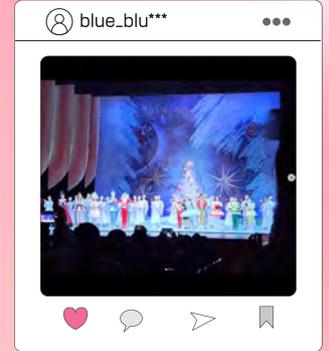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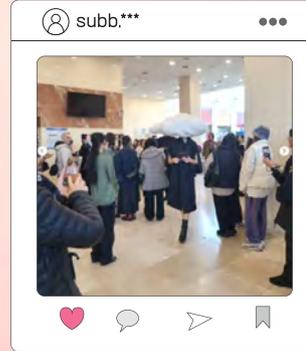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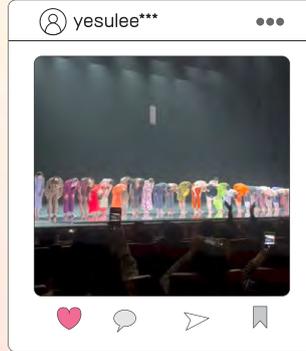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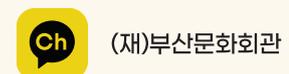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초대권 또는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하세요!



NHN LINK PRESENTS



MAYBE HAPPY ENDING



THE MUSICAL

어쩌면 해피엔딩

by Will Aronson and Hue Park

김재범 | 신성민 | 전성우 | 정휘 | 전미도 | 최수진 | 박지연 | 박진주 | 방민아 | 이시안 | 고훈정 | 박세훈

2026.02.01-2026.02.08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202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BPO SYMPHONIC SEASON 2026

DIGNITY

브루크너 / 교향곡 제5번

*

지휘 홍석원

627

2026.1.29.(목) PM 7:30
부산콘서트홀

주최 클래식부산, (재)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부산 클래식의 저력, 음악적 드라마의 완성

SOUND of BUSAN

올 댓 차이콥스키

All That Pyotr Tchaikovsky

Sound of Busan #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교향곡 4번-바이올린 협주곡
2026. 2. 27.(금) 19:30

Sound of Busa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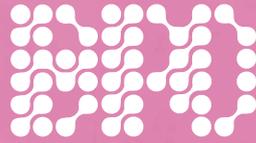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교향곡 5번-첼로 협주곡_로코코
2026. 6. 19.(금) 19:30

Sound of Busan #3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
교향곡 6번-피아노 협주곡
2026. 8. 21.(금) 19:30

P
Y
O
T
R
I
L
Y
I
C
H

2026년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BPO PROGRAMMED CONCERT 2026

2026 **신년음악회**

로시니 / 오페라 <도둑마치> 서곡
사라사테 / 카르멘 판타지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황제 왈츠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광란 폴카
라벨 / 라 발스

*

지휘 백승현 / 바이올린 김현서

2026.1.15.(목) PM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www.bscc.or.kr